

ISSN 1739-8932

충남 문화

ChungNam Culture
2008 제12호

韓國文化院聯合會 忠清南道支會

ChungNam Culture



충남문화 2008 • 제12호

한국문화원연합회충청남도지회의 역할

충남 지역내의 지방문화원 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 문화원 회원의 교육 및 친목도모사업 · 충남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필요한 부대사업 · 도내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 협력 및 정보교류 · 도민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남 문화

그곳에 가면

안 용 산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바람이
휘어지는 가지마다
나뭇잎은 돌아나뭇 끝내
있어야 할 것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몰라도 그저
여기에 오면 마냥
즐거워지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그곳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안 용 산
1956년 금산에서 태어나 좌도시와 실천문학을 통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시집으로 『돌무야 놀자』 등이 있음. 현재 금산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음

충남문화

제12호

2008
ChungNam Culture

- 발행일자 2008년 12월 / 연 1회발행
- 발행인 박응진
- 편집인 이준창
- 편집위원 (가나다순)
박응진(도지회장), 김시경, 김호택, 명수남,
송용삼, 유성열, 윤준웅, 김시운, 이준호, 임기석,
임영이, 전용택, 정재권, 정재욱, 정정희, 김준기

-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
320-030 논산시 내동 279-4번지
Tel. (041)730-4632 Fax. (041)732-2394
- 편집디자인
봄커뮤니케이션 042-486-2725

† 『충남문화 제12호』는 충청남도 지원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Contents

- 003 권두시
 - 안용산 (시인, 금산문화원사무국장)
- 006 권두언
 - 박응진(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 008 축간사
 -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 강태봉 (충청남도의회 의장)
- 012 기획특집 - 해외문화탐방 연수
 - 해외문화탐방 연수
- 031 충남의 꼭 가봐야 할 곳
- 048 충남의 인물
 - 김종서 장군(공주문화원)
 - 고균 김옥균(공주문화원)
 - 고불 맹사성(온양문화원)
- 059 충남의 민속
 - 수룡동 당산 풍어제(홍성문화원)
- 060 충남의 전설
 - 황금새의 전설(부여문화원)
 - 동자복(서천문화원)
- 066 충남의 문화재
 - 남이홍장군 일가 유품(당진문화원)
 - 승무(서산문화원)
 - 천홍사지당간지주(성환문화원)
 - 천홍사지오층석탑(성환문화원)
 -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조치원문화원)
 - 광경사지당간지주(홍성문화원)
- 082 충남의 향토문화축제
 - 금산인삼축제(금산문화원)
 - 온양온천문화예술제(온양문화원)
 - 도원문화제(조치원문화원)
 - 칠갑산장승문화축제(청양문화원)
 - 홍성내포큰사랑축제(홍성문화원)
- 100 문화원 단신
- 102 2008년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 108 2008년 문화원 활동상황 (가나다순)
 -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 대전문화원 활동상황
 -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박 응 진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무자년 한해를 바쁘게 마무리하고 기축년 새해를 새로운 희망으로 기대하는 이때 『충남문화』 제12호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해 동안 본 지회뿐만 아니라 충남의 문화원 활동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충남의 문화 소식들로 구성된 『충남문화』 제12호야말로 여러 사업 중 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충남문화』 제12호는 충남 지역의 인물, 문화재, 민속, 지역축제 등을 소개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문화원이 수행하는 고유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해당 지역의 문화 생산자인 문화예술인들과 일반 지역 주민들이 자주 그리고 쉽게 접촉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한 단계 수준 높은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에게는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를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이 주민들을 문화원이나 지역의 중심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문화원이 되어야 합니다.

충청남도에는 16개 문화원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문화원은 과거에 안주하거나 집착하여 정체되어서는 안 되며 시대에 빠른 적응과 미래 지향적인 유기적인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산업이나 경제와 같은 물질적인 생산력 보다는 문화나 예술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 힘은 지역 문화에서 발로합니다.

지역문화를 꽃 피우고 문화의 시대가 대두되는 시대적 요청에 있어서 문화원은 그 흐름에 걸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과 호흡하며 중흥 발전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충남문화』는 이러한 모습을 담아내고 보존하며 전승하는 다리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문화』가 좀 더 다양한 소식과 기록으로 역사를 채워 나아가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충남문화』 제12호 발간과 충남문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이완구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원고를 작성하고 수집하여 보내주신 문화원가족 여러분과 집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이 완 구
충청남도지사



충남문화 제12호의 발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책자 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로 애써주신 박웅진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문화원가족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원가족 모두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이젠 풍요가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문화와 예술적 감동을 주지 않는 물질적 풍요는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이 같은 시대와 사회 환경의 변화는 문화전략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전략의 추진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우리 도는 문학·예술지수와 대중문화 지수 전국 15위 등 전체적으로 하위권에 놓여있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도 지역 간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2007년에 마련한 충남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관 주도형 문화예술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형 문화예술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 대책으로, 지난해 우리는 문화예술 관련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도민 등이 참여하는 통합기구인 충남문화예술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포럼은 각 문화예술단체와 연구기관을 아우르면서, 도내 문화예술의 여건 파악과 발전 방안 모색 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자문과 신규시책 제언, 문화예술활동 조사와 연구, 격조 높은 문화예술 행사 등을 통해 우리 도 문화예술 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역량의 강화와 충남문화재단 설립, 도청 신도시내 문화지구의 조성, 충남문화 명품 콘텐츠 개발과 범 백제권 문화교류 확대 등을 통해 충남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충남의 가치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을 문화디자인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충남문화산업 비전 2020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백제의 역사와 충효문화, 전통문화 등 문화의 상품화가 가능한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내만 하더라도 25개의 문화산업관련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할 경우 우리 도의 문화가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고장의 보다 나은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열정 과 창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창의와 도전정신이 있을 때 우리 고장의 문화는 탐스러운 꽃을 활짝 피워갈 것입니다.

우리 도의 민선4기 후반기 도정운영 방향도 '문화의 중심, 명품 충남'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도민의 문화 향유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원가족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태 봉
충청남도회의장



문화예술의 향취를 가득담은 『충남문화 제12호』의 발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문화와 예술은 단순한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우리민족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예술을 꽃피워왔으며, 수많은 외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예술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은 고대 3대 문명중의 하나인 찬란하고 융성했던 백제문화를 간직한 고장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잘 가꾸고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훌륭한 문화예술 상품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냐가 관건이며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문화는 그국가와 지역의 큰 자산이며,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문화 강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역사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엄청난 관광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특한 전통과 창의적인 문화를 더욱 세계에 알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1,400여년 전 융성했던 백제문화를 알리기 위해 백제재현단지의 조성하고 백제문화제를 크게 확대하여 추진하는 등 역사와 문화산업의 다각화에도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들도 이러한 우리고장의 문화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자원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마케팅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은 단순한 지역경제 정책이나 지방문화 정책을 넘어서서 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군 문화원에서도 시대적 요청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구축하여 주민의 폭넓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향토문화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문화탐방 연수 - 독일 · 프랑스

-프랑스의 관광자원-

이강열 ● 서산시 문화관광과

세계인들에게 프랑스하면 낭만과 예술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수도인 파리는 세계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인들을 프랑스로 오도록 만들게 한 것은 어떤 것일까하는 물음을 안고 프랑스로 출발했습니다.



프랑스에는 토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드골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도로에서 정체는 우리나라와 같은 혼잡함이 있었고, 거리에서는 약간의 무질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에 오기 전 독일에 들어서인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의 정돈된 느낌, 프랑스의 자유분방함. 바로 옆 나라인데 이렇게 차이가 극도로 다른 것은 국민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인 다음날 프랑스의 관광자원이 어떻게 세계인들을 프랑스를 찾게 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몽마르뜨 언덕입니다. 예술가들의 성지이기도 같은 곳으로 세계의 예술인들이 선망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정상에는 대리석으로 지은 성심성당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 난 길을 통해 예술가들이 노천에서 그림을 그리는 야외 갤러리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성된 갤러리는 명성보다는 오히려 초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예술인들의 자유분방함이 있었고, 이것이 예술인들이 그토록 오고 싶어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높은 곳인 몽마르뜨언덕에서 본 파리 시가지 서울과 사뭇 달랐습니다. 우선 고층건물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 오래된 대리석건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세나 근대의 도시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개발의 논리에 밀려 좁은 면적에 좀 더 많은 층수의 건물을 지으려고 높이 올라가는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와는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시전체를 이렇게 만든 것은 분명 프랑스 국민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니 역시 선진국민의 의식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답사를 다녔습니다. 에펠탑, 개선문, 베르사유궁전을 돌아보면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에펠탑에 올라 파리를가지를 보기위해 700만명, 베르사유궁전에 800만명이 해마다 찾는다고 합니다. 관광수입이 엄청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프랑스를 알리는 간접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개선문

라에는 이것들처럼 세계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주저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개선문은 지금의 프랑스를 있게 만든 나폴레옹이 로마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기념물로 파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만든 개선문은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과거의 절대왕정의 영광을 뒤로한 채 퇴락하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은 이런 프랑스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개선문도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개선문 앞으로 난 샹젤리제거리는 낭만의 대명사로 많은 세계인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길옆의 노천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프랑스 사람들에게서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 거리는 패션을 선도하는 나라답게 많은 디자이너들의 명품샵들이 길의 양옆을 따라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이유 궁전에서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왕정시기에 루이 14세는 나라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국민들이 낸 국고를 탕진하면서까지 유럽의 최고가 되겠다고 이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궁전의 규모와 크기에 있어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분당신도시보다 크다는 말에 기가 질릴 정도였습니다. 궁전의 내부는 각종 벽화와 상들리에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고, 궁전 후원의 정원은 프랑스식 정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은 지 400년이 넘는 궁전을 잘 보존하여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프랑스를 보면서 부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베르사이유 궁전 전경



베르사이유 궁전 내 정원

다음날은 세계 3대 박물관중의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을 갔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미테랑 대통령 재임시기인 1980년대 박물관 혁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박물관안뜰에는 박물관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유리 피라미드가 만들었는데, 당시 이것으로 인해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유리피라미드는 루브르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고 하니 쓸데없는 기우였던 셈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피라미드



승리의 여신상

루브르 박물관에서 자랑하는 컬렉션을 감상했습니다.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섬의 니케상, 모나리자와 그 외에 수많은 조각상과 회화들을 말입니다.

특히 모나리자에는 그것을 보기위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봐왔던 그림을 실제로 보게 되니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림은 입체감으로 인해 살아있는 얼굴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패권주의에 의한 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이집트와 전쟁을 치러 이기면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인양패 가져간 외규장각 도서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에 나오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갔었습니다. 문학에서 다뤄지고 있는 장소는 그것으로 인해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노트르담 대성당은 중세 대표적인 고딕건축의 하나로 유명하지만, 문학작품의 소재에 사용되면서 더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성당을 찾은 한해 관광객이 무려 1,100만이라고 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중세시대 신앙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 중세인들은 하느님에 좀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뿔족첨탑에 내부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을 한 이 건물은 8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당시 절대종교에 대한 중세인들의 신앙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비록 이틀간의 짧은 일정으로 파리를 돌아봤습니다. 몽마르뜨 언덕, 에펠탑, 개선문, 베르사유궁전, 루브르박물관, 노트르담대성당 등. 수박겉핥기 식으로 둘러보긴 했지만 프랑스 국민들이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자존심이 높은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동안 지켜내고 보존해온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며, 이것들을 통해 세계 각국에 프랑스의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는 내내 부럽다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지만 우리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

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형·유형이 자산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독일의 문화를 접하고...

전병만 ● 금산문화원 과장

베를린, 뮌헨, 로텐부르크,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짧기만 한 5일간의 독일방문을 통해서, 많은 일정들 속에서 보고, 듣고, 이야기하며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독일문화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였다.

■ 독일과 독일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문화와 예술 그리고 방송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원은 귀중한 가치가 있는 독일에의 투자다” 이것이 2007년 EU의 의장국가인 독일의 문화 예술에 대한 기본인식이라나다.

사회가 혁신적이고 창조적이며 개방의 사회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을 통한 사고의 자극과 활성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 문화는 공동체의 단결을 이끌어내고 또한 문화는 독일의 존재를 위한 적절한 가치를 소개하기에 이러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을 구성하고 보호하며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대다수 국민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 독일문화의 특징들

1. 문화의 다양성

독일은 중앙정부와 독립적인 16개의 지방정부형식으로 이루어진 독일연방공화국이다. 독일 연방정부내각에 문화부가 없고 총리실 산하에 장관급의 문화방송부서가 있어 정책을 조율한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는 문화정책에 대해 권한이 없고, 문화정책은 지방정부의 소관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 배경은 다른 유럽연합의 국가들과 연관이 있다. 타 유럽연합국의 불만으로 인한 많은 문화적 분쟁들을 지방 16개 주(州)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다는 식으로 예봉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들의 문화정책은 주의 주민들의 기본성향에 따라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기에 주

마다 문화정책이 다르고 문화예술의 선호도도 다르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남쪽의 바이에른 주는 클래식과 오페라에 비중이 높고, 북쪽의 함부르크는 뮤지컬에 비중이 높다. 당연히 문화정책도 여기에 맞추어 결정되어 실행되는 것이란다.

이런 문화정책으로 인해 주에 따라 문화가 많이 다르고 관심분야와 특색이 뚜렷하다는 특징이 문화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다한다.

2. 문화의 지속성

두 번째 특징은 독일인들의 민족성에 기인한다. 독일인들은 변화를 싫어한다고 한다. 그들에게 있어 변화란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란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은 10년 이상 토론하고 확정이 되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수정이 필요 없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예로 92년 된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을 정도란다. 1930년에 히틀러가 만든 고속도로인 아우토반도 그 모습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번 시작하면 중단 안한다. 그것이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된다.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기 때문에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하는 벤치마킹이 없고 지방마다 색다른 특성을 지닌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란다.

■ 독일의 문화를 통해서

독일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의 다양한 전통문화의 발굴과 지속적인 계승, 발전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베른트 노이만(Bernd Neumann) 독일연방정부의 문화방송분야 전권담당장관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이 아니라 독일의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투자다”라고 역설했단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투자는 얼마나 성공적으로 계획되고 얼마나 실천되어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역사를 통해 본 문화 관광

● 도지회편집부



하이델베르크

유럽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독일은 843년 게르만 민족이 동프랑크 왕국을 세우면서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 했다. 중세기에는 수많은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던 2등 국가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정치, 경제적으로 유럽의 시대에 걸쳐 지어진 수많은 건축물과 박물관, 복지시설도 독일의 자랑거리이다. 분열과 통합의 쳇바퀴를 돌던 지난날의 아픈 상처는 통일 독일로 열매를 맺었다. 중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로맨틱 가도와 경제발전의 모델인 라인강의 기적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진 독일은 이제는 서유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복잡한 나라 중 하나이다.

■ 프랑크푸르트

‘뱅크푸르트(Bankfurt)’라고 불리우는 프랑크푸르트는 금융과 상업의 도시로 독일 최대공항이 있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한 도시이다. 8세기 샤를르마뉴 황제에 의해 많은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여, 12세기에 들어서 유럽 각국의 상인들이 모여들어 견본 시장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독일 역사를 풀어낸 역사적 관광지로 프랑크푸르트의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올렸으며, 장크트 파울 교회에서는 독일 제1회 국민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또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등의 작품을 남긴 세계적인 문호 괴테의 생가가 있다. 신성로마제국의 52명의 실물크기 초상화가 벽에 장식되어 있는 구시청 건물 뢰머(Römer)와 오페라하우스가 인상적이다. 매년 많은 세미나와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등 독일 최대의 회의 센터이기도한 프랑크푸르트는 유명한 도서전시회(Book Fair)가 열린다.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깊은 도시로 외환은행 등 6개의 금융기관, 대한항공, 여러 종합상사와 건설회사들의 지점이 자리하고 있으며, 교포상사들이 상업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뢰머광장

뢰머광장

뢰머광장(Römerplatz)에 위치하고 있는 시청사, 뢰머는 프랑크푸르트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다. 2차 대전이후 손상된 청사를 원형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원래 귀족의 저택이었던 것을 15세기 초에 시가 사들이는 것으로 도시의 생성과 동시에 지어진 뢰머의 2층에는 신성 로마제국의 대관식을 기념하는 축하연을 베풀던 방, 카이저자르가 있다. 유럽 최고 권력을 자랑하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대성당

뢰머 광장 동쪽에 위치해 있는 대성당은 카롤링 왕조 시대인 13-14세에 건립되었으며, 15세기 고딕식 탑으로 다각형의 박공관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선거 및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유서 깊은 성당으로 '카이저 돔'이라고도 한다.

그리스도의 무덤교회가 있으며 15세기 교회에는 신성 로마제국의 일곱제후들이 잠들어 있다.

332개의 계단을 따라 95m의 탑에 올라가면 라인강을 따라 형성된 시가지와 타우나스 산을 볼 수 있다.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베를린은 15세기 브란덴부르크 제국의 수도였으며 이후 18세기 프로이센 왕국,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의 제 2독일제국의 수도였다. 2차 세계 대전이후 폐허가 된 베를린은 프랑스의 꼬르뷔지 등의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이루어져 현대적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20세기 들어 학문 예술의 전성기를 맞아 유럽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독일 통일과 더불어 다시 독일의 수도가 된 베를린은 신생 독일의 중추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주요 산업은 기계 엔지니어링, 화학, 안경공업, 의류 등의 경공업이며 패션 중심도시 중의 하나이다. 중부 유럽의 여러 인종이 뒤섞여 있는 도시로 게르만족, 프랑스인 위그노, 폴란드인, 보헤미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내심과 희생정신, 풍부한 유머와 위트를 지니고 있는 베를린인들은 동서 통일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더욱 성숙된 시민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



베를린 장벽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

신 로마네스크 양식의 기념교회로 황제 빌헬름 1세를 기념하기 위해 1891~1895년에 세워졌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에 의해 부서져서 재건축을 하려고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의 여론에 부딪히게 됐고, 전쟁의 파괴성을 알리기 위해 파괴된 채로 보존하게 되었다. 윗부분이 부서진 탑과 새로 지어진 다각형의 교회당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내부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매우 아름다우며, 주말에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도 열린다고 한다.

브란덴부르크 문

1789년 랑한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고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입구 성문을 모방하여 만들었는데 이는 베를린이 새로운 아테네, 즉 학문과 예술의 도시가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현재의 문은 2차 세계대전 때 부서졌으나 1958년에 복원된 것이다. 이후 1973년 샤도우가 만든 '말 네 필이 끄는 고대 로마의 전차를 모는 여신상'을 다시 세웠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도시의 영광을 상징하는 승리의 표지였으나 동·서독 분단시기에는 동서분할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쿠담거리

'쿠담'이라 불리우는 거리로 카이저 빌헬름 교회와 오이로파 센터를 중심으로 뻗은 대로이다. 서울에 비교하자면 대학로에 해당하는 거리라고 할 수 있다. 시내 중심부에서 4km에 달하는 대로로 베를린의 생활중심지이다. 고급호텔, 일류 전문점, 백화점, 자동차 전시장, 레스토랑, 영화관 등의 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날씨가 좋으면 거리의 예술가들이 몰려 나와 운치 있는 거리를 만든다고 한다.

티어가르텐

베를린 중심에 자리잡은 티어가르텐은 거대한 숲의 공원으로 베를린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만들어 주는 허파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이다. 위치는 베를린 동물원 북쪽에서부터 브란덴부르크 문에 이르는 길이 약 4km, 폭 1km에 걸친 방대한 규모의 공원이다. 티어가르텐(Tiergarten)은 '동물원', '사냥터'라는 뜻으로 16세기에 프로이센 왕국의 여러 황제들과 귀족들을 위한 사냥터로 만들어졌기에 이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이었다. 그 후 18세기에 공원으로 바뀌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은 매년 6월 이곳에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모여 '러브 퍼레이드'를 벌이고, 공원에서는 시민들이 나와 산책 또는 바비큐 파티를 즐긴다고 한다.

전승기념탑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Der Himmel Ueber Berlin / Wings Of Desire, 1987)에 등장한 것으로 유명한 이 전승기념탑은 1864년에서 1873년에 걸쳐 Johann Heinrich Strack의 설계로 세워졌다. 이 탑은 프로이센이 덴마크(1864), 오스트리아(1866), 프랑스(1870/71)와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873년 9월 2일에 화합의 상징물로 완공했다. 전승기념탑은 높이가 69m로 잘 다듬어진 사각의 붉은 화강암 위에 원주가 에워싸듯이 있고 맨 꼭대기에 12m크기의 동으로 된 조형물이 있다. 원주안에는 285개의 나선형 계단이 있어 53m 높이의 플랫폼에 오를 수 있으며, 여기서는 티어가르텐(Tiergarten)과 베를린 시내가 내려다 보인다고 한다.

포츠담 광장

포츠담 광장은 150km베를린 장벽이 처음으로 철거된 역사적 장소로 유명한 곳으로 1989.11.11일 밤부터 12일에 걸쳐 수천명의 동·서베를린 시민들이 만장의 박수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이곳에서 베를린 장벽 일부를 들어내는 상징적인 철거작업이 이루어졌다. 동·서독의 통일 이후 1993년과 1998년 사이에 정부주도하에 포츠담 광장 일대를 독일 최고의 빌딩 밀집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되어 많은 현대적 건축물, 고층빌딩, 쇼핑센터, 공연장, 음식점, 극장 등이 들어서면서 포츠담 광장은 베를린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 중의 하나로 발전했다고 한다. 바로 장벽 길 건너 맞은편에는 1,700명을 수용한다는 O2경기장이 눈에 띄었다. 이제는 장벽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의 그림과 페인팅으로 도배하여 지난 동서독의 비극을 무색케 하고 있었다.

■ 한국문화원

독일의 중심에 한국문화원이라 쓴 현판이 자랑스럽게 반겼다. 입구부터 한국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사진과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국문화원장은 음악 특히 클래식이 독일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르이며 한국인 성악가나 유학생들이 특히 많다고 한다. 한국의 사물놀이는 이곳에서도 인기가 높고 특히 좋아하는데 한국의 전통이며 고유한 음악으로 열린 자세로 감상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독일인들은 동양의 신비 도자기에 관심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청자도 중국 자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충남 각문화원의 발간도서를 기증하고 한국인으로서 뿌듯함 마음을 갖고 돌아올 수 있었다.



베를린 한국문화원

베를린 도서관

베를린 구시청내 도서관 방문 기록

- 도서관 책임자 : Herr wolf 안내
- 오픈시간 : 11:00~19:30, 토요일 11:00~16:30, 일요일 휴무
- 회원자격 : 1년 10유로 납입, 전구역 도서관 이용가능
- 회 원 : 40만명
- 이 용 객 : 1일 1,500명
- 직 원 : 14명의 공무원 배치
- 소장도서 : 소설 12,000권, 100종 잡지, 9종 신문 등
- ※ 아시아 도서는 없음
- 관 리 비 : 1년 20만유로(약3억 8천)
- 대 출 : 장서, 중요도서도 대출되지만 사전류는 대출 불허
- ※ 1년에 1번 점검하여 금지도서 등 폐기

■ 뮌헨

인구 약 130만명의 뮌헨은 독일 제 3의 도시이자, 남부 독일의 중심도시이다. 12세기 이래 700년동안 독일에서 가장 화려한 궁정문화를 꽃피웠던 바이에른 왕국의 수도였으며, 16세기 이후에 번성하던 르네상스와 바로크, 로코코, 양식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남아있다. 명량한 시민의 표정 등으로 삶이 약동하는 이 도시의 명물은 역시 맥주이다. 잘알려진 대학교와 다른 고등교육기관들, 바이에른 주립도서관(600만권이상의 장서로 유럽 최대의 도서관 중 하나), 플라스마 물리학을 위한 막스플랑크 연구소, 핵 연구원 자료와 다른 많은 기관들이 있는 뮌헨은 과학과 연구의 중요한 중심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이에른 주 수상으로 봉사한 프란츠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이름을 가진 뮌헨 공항은 중요한 국제 항공 교통의 중심지이다.

■ 뉘른베르크 성

시가지 북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궁전으로 건물의 폭이 700m가량이나 되며 독일 바로크식 건물로는 가장 큰 성이다. 1664 ~ 1748년에 건축되었으며, 그 후에 정원과 연못, 분수 등이 차례로 설치되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완공되었다. 입구 홀에 있는 천장화에 그려진 님프(Nymph; 요정)를 따서 성의 이름이 지어졌다. 200ha나 되는 드넓은 정원과 궁전의 내부, 아말리엔부르크, 마차 박물관 등이 공개되고 있다.

■ 마리엔 광장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광장이다. 광장을 둘러싸고 신시청사를 비롯하여 프라우엔 교회 등 관광명소가 집중되어 있다. 차량의 통행을 금하고 있는 광장 주변에는 고급 부티크 및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어 산책과 쇼핑하는 사람이 많다. 중앙에는 시의 수호신 마리아의 탑 Mariensaule이 서 있다. 주변에는 레스토랑과 노천카페와 아기자기하게 예쁜 가게들이 즐비해 있다.

■ 프라우엔 교회

1488년에 벽돌로 지어진 고딕양식의 교회로 뮌헨을 대표하는 이 도시 최대의 대성당으로 19세기 초반 이래 남바이에른의 수도사 교구교회로서 명예를 떨치고 있는 곳이다. 교회는 마리엔광장 북서쪽에 위치하며, 구슬모양의 돔형태 첨탑이 인상적인 두 개의 탑이 있는데, 북쪽 탑은 높이가 99m, 남쪽 탑의 높이는 100m이다. 탑의 가장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오를 수 있다.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1622년의 바이에른 왕 루트비히의 묘가 있다.

신 시청사와 슈바빙 거리

예술가와 학생, 젊은이들이 모이는 뮌헨의 몽마르트로 금세기 초, 이곳에서 활약한 칸딘스키, 마리아 라이너 릴케, 토마스 만, 파울 클레 같은 예술가들의 영향으로 보헤미안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뮌헨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마리엔 광장에 있는 신 시청사는 1867~1909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건축된 것으로 네오고딕양식의 건축물이다. 시계탑은 글로켄슈필이라 하여 매일 11시(5월~10월에는 낮12시와 저녁9시)에는 사람크기만한 큰 인형들이 나와 인형극이 펼쳐진다.

■ 로텐부르크

로만틱 가도의 하이라이트로, 산 위에 성벽으로 둘러싸인 거리가 즐비하여 마치 중세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도시의 약 4할 정도가 파괴되고 소실되었으나, 완전하게 중세도시를 복원시켜놓은 곳으로 오랜 시간을 뛰어 넘어 근세에 그 가치를 인정받은 '중세의 보석'이라 칭송되는 고도이다. 특히 로텐부르크는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더욱 관광명소로서 빛을 발하는데 이곳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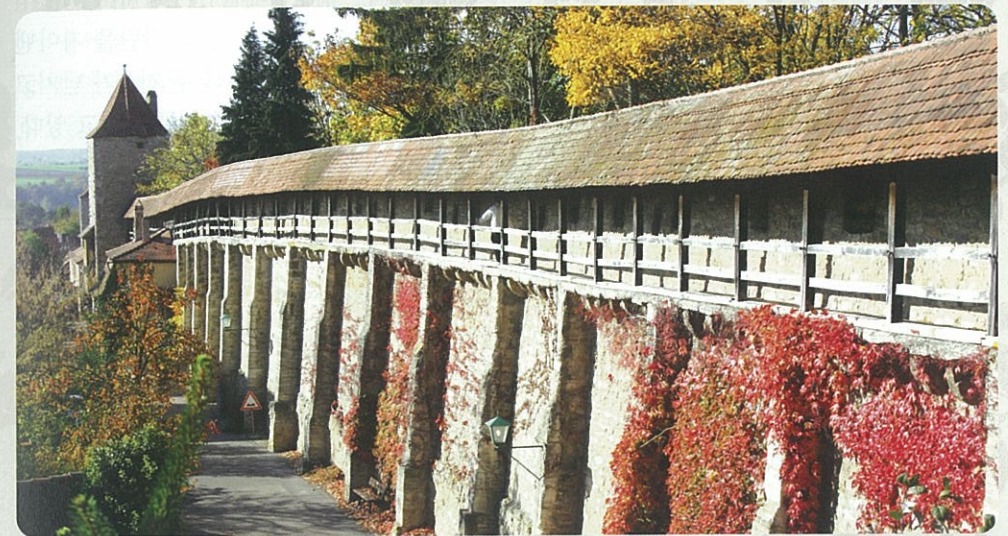
시청사 및 중세거리

시장 광장 중앙에 있는 시청은 1,250년에서 1,400년대에 지어진 고딕 양식의 건물이다. 내부에는 황제의 방이라 불리는 홀이 있고 건물 위로 60m의 탑이 높이 솟아 있다. 탑에 오르면 구시가지(Altstadt)의 그림같은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시청 건물 뒤에서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린다.

마르크트 광장

광장 가운데에는 시청사와 시의원 연회관 등의 건물이 있다. 로텐부르크 시청사는 르네상스 양식과 고딕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로, 62m 높이의 탑에 오르면 로텐부르크 주변의 평화로운 전원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녹색의 초원에 붉은색 기와지붕이 마치 동화속의 세계처럼 펼쳐진다. 광장의 명물은 시의원연회관 벽의 벽시계 인형인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계 창문이 열리면서 인형극이 공연된다. 마이스터 트룽크라고

불리는 인형은 30년전쟁 당시 에스파냐 장군으로부터 포도주 한 통을 단숨에 마시면 시민을 학살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원해서 포도주 한 통을 다 마셔 시민들을 구해 낸 시장의 이야기를 재현하고 있다고 한다.



로텐부르크 성



마르크트 광장

성 야고프 교회

시청사 뒤쪽에 위치하며 로텐부르크를 상징하는 고딕 양식의 교회이다. 1331년에 짓기 시작하여 190년이 걸려서 완공되었다.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많은 예술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 최고의 조각가라고 칭송받는 틸만 리멘슈나이더(Tilman Riemenschneider)의 성혈제단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조각으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1505년에 조각된 이 작품은 각 인물의 섬세한 묘사도 뛰어나지만, 특히 두 천사가 받치고 있는 금박의 십자가에 예수의 피가 들어갔다고 전해지는 수정이 박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겟세마네에서 예수가 기도하는 장면을 재현해 놓았는데, 거칠고 소박하면서도 정감이 가는 인물들과 예수의 시선 위쪽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프란체스코 제단 등 15세기의 여러 제단과 5500개의 파이프로 된 오르간 등을 내부에 갖추고 있다.

■ 하이델베르크

집은 녹색의 숲을 배경으로 고풍스러운 옛 성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낭만주의의 중심지 하이델베르크는 Neckar강과 라인강이 합류하는 독일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1142년 쇠나우 수도원을 세우면서 보름스 성곽을 발판으로 조그만 촌락인 하이델베르크로 발전하게 되었다. 1196년 처음으로 쇠나우 수도원의 문서에 하이델베르크라는 말이 나타났다. 1386년 제국의 7대 선제후 중의 하나였던 궁중백 루프레히트 1세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설립하기 시작하면서 하이델베르크는 젊음이 가득한 대학 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2차 세계 대전 중 폭격을 면할 수 있어서 아름다운 고성들을 고스라니 보전하고 있기에 하이델베르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낭만적인 독일의 숨결과 청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인구는 약 13만명 정도이며 이중 27,000명 이상이 대학생이다. 젊은 도시 하이델베르크의 학사주점에서는 청춘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고 푸른 하늘과 울창한 숲의 조화가 특히 매력적인 도시이다.

하우프트 거리

도시 중심의 마르크트광장에서 비스마르크광장까지 이어진 거리이다. 리멘슈나이더의 작품 '12사도제단' 등이 있는 선제후 박물관과 그 옛날 학생들이 근신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학생감옥,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문을 교류하는 대학광장 등이 있다. 왕자와 마을 처녀의 사랑을 그린 희곡 <알트 하이델베르크>의 무대인 학생술집도 자리하고 있다.

학생감옥

대학 뒷편의 아우구스티너가세에 위치하고 있는 유명한 하이델베르크의 학생감옥은 1778년부터 1914년까지 격렬한 결투, 소란, 또는 다른 싸움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가두기 위한 곳이었다. 이 시대에 대학은 대학 자체에 재판권이 있어서 법관은 학생들에게 죄에 따라 3일에서 4주 동안의 감옥행을 선고할 수 있었다. 수감된 학생들은 수감 기간 동안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는 시간을 갖으며 그 기간 동안 수업을 들을 수도 있었다. 감옥에 있었던 학생들은 감옥에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심심풀이로 감옥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새기기도 했는데 이 "예술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보호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고성

13세기에 최초 건축된 이래 거듭 증축되어 고딕, 바로크, 르네상스 등의 다양한 양식이 복합되어 있다. 지하에는 시음을 즐길 수 있는 22만 리터의 큰 와인통이 있으며 포도주를 마시면 유리로 만든 잔을 기념으로 준다. 봉건시대 말기에 건축된 약제사의 탑, 시계탑, 게스프렐터탑과 고딕, 르네상스 과도기에 건축된 도서관, 여성건물, 르네상스 시대에 건축된 거울의 방이 있는 건물, 오토하인리히 건물 등이 있다. 하이델베르크 성의 내부 관람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 거대한 술통과 독일제약 박물관 등도 볼 만하다. 수많은 인종의 관광객들이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22만리터 와인통

■ 독일문화관광 벤치마킹

고성(古城)을 그대로 보존하여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며 특히 님펜부르크성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기부문화를 통해 성을 복원하고 그 가치를 높이고 있었다. 공주 공산성, 논산 노성산성 등 백제시대 산성 관광 자원을 개발 홍보하고 특히 백제문화제 “백제성 쌓기” 프로그램 개발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슈프리강의 대운하를 통한 관광 및 물자를 운송 선박을 보면서 부여 백마강, 공주 금강 등을 개발 이용하면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 부럽지 않을 듯 싶다.

300개가 넘는 맥주 양조회사 전통과 맛을 중요하여 보존 세계적인 축제 뮌헨 맥주 페스티벌의 기간 이루었다고 하는데 지역의 전통문화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자랑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서천 소곡주 등 지역 전통 민속주를 이용한 축제개발 또는 역사 마을로 지정, 관광지화하여 지역 전통 문화도 알리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오페라극장이 전국 60개로 휴가기간만 제외하고 연중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실버 센터가 시내 중앙에 있는 이유는 오페라극장이 근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인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면을 엿 볼 수 있었다. 문화는 1,000년 대계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우리 전통 예술 문화를 전세계에 꽃피울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소재발굴 및 전문인 양성 등 많은 예산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충남의 꼭 가 봐야 할 곳



공주 - 신원사



신원사는 동학사 갑사와 함께 계룡산 3대 사찰로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에 소재한다.

이 절은 백제 의자왕 11년(651)에 보덕화상이란 고승이 창건하고, 그 뒤에 여러번의 중창을 거쳐 1876년 보련화상이 고쳐 짓고 1946년 만허화상이 보수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신원사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으로 전해지며 원래의 건물지는 신원사와 중악단 남쪽에 전개된 넓은 밭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은 금당지를 중심으로 신원사의 원전물지가 있을 것으로 믿어지나 조사의 결여로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금당지로 믿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층의 석탑이 세워져 있어 이곳이 본래의 사역이었음을 쉽게 알게 한다.

이와 같은 원금당지를 중심으로 석탑이 있는 이외의 현재의 신원사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대웅전의 우측에 독성각이 좌측에는 영원전이 있는데 이들은 최근에 신축 혹은 개수가 이루어져 있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8번지 041-840-2225 천안논산고속도로 → 정안 IC → 23번국도 → 월송교차로 → 갑사 → 계룡자수지 → 신원사

금산 - 칠백의총



임진왜란 당시 금산전투에서 적군과 싸워 장렬히 전사한 칠백의사를 위하여 만든 무덤과 사당이다.

1592년 왜군이 침입하자 의병을 일으킨 조헌선생과 영규대사는 8월 1일 청주성을 탈환한 후 다시 금산의 적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출전하였다. 8월 18일 아침 조헌선생이 거느린 아군은 금산 연근평들에서 적군과 싸우게 되었다.

이에 조헌선생을 위시한 승장 영규대사와 이광륜, 임연식, 김절, 변계온, 양응춘, 박자방, 김희철, 김환, 강중노, 강인노, 조헌 선생의 아들 완기 등 칠백의사가 모두 전사하였으며 적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해 8월 22일 조헌선생의 제자인 박연량과 전승업이 시체를 거두어 한 무덤을 만들어 칠백의총이라 하였다. 1603년에 중봉 조선생 일군순의비를 세우고 1634년 순의단을 설치하여 제향을 올려 왔다. 1647년 종용사를 건립하고 조헌선생과 영규대사 및 금산 눈벌에서 순국한 고정명선생과 금산에서 전사한 변응정 등 막해 제장과 사졸(士卒)에 이르기까지의 신위를 모셨다.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52-1번지 041-753-8701~3 대전고속도로 → 금산 IC → 37번 국도 → 금산

논산 - 계백장군묘역



논산 8경 중 4경

백제의 3충신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백제 말기의 명장 계백장군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을 계백장군의 무덤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계백의 시신을 은밀히 가매장했다는 '가장곡'이 바로 이곳이라는 점과 무덤 지역의 동남쪽이 백제와 신라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황산벌이라는 점, 그리고 계백 장군의 위패를 모신 충곡서원이 바로 뒷편에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 후반에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는 본격적인 고증작업을 하게 되었다.

묘를 발견할 당시, 봉분이 반 이상 붕괴되어 내광이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광벽까지 일부 파손되어 있었는데 부적인 사람들이 지석(支石)을 안치하고 내광회벽을 완공한 후 봉분을 복묘하였다.

봉토를 만들고 '전백제계백장군묘(傳百濟階伯將軍之墓)'라고 쓴 비석을 세웠다. 현재 비석에는 전(傳)자가 없다.

계백장군묘역 내에는 2005년 건립된 백제군사박물관과 충장사가 자리하고 있다.



충남 논산시 부석면 신풍리 산 4-2번지 경부고속도로 → 회덕분기점 → 호남고속도로 → 계룡나들목 → 연화교차로 → 4번국도 → 계백장군묘

당진 - 솔피성지



솔피는 '소나무가 우거진 산'이라는 뜻으로, 당진군 우강면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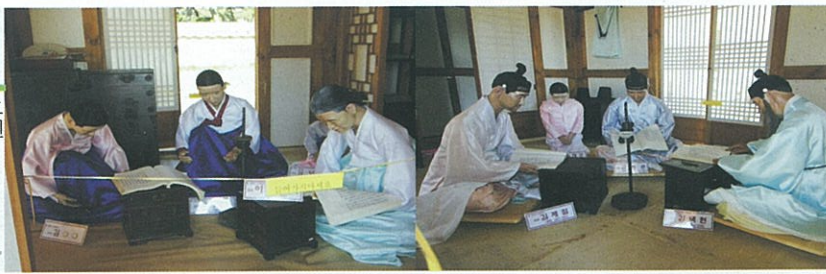
이 곳에서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났는데, 그의 가문은 증조부 김진후, 조부 김한현, 부친 김제준, 그리고 김대건 신부까지 4대가 모두 순교한 집안이다.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진후는 면천 군수로 있을 때, 내포의 사도 이존창으로부터 전교를 받은 후 벼슬도 버린 채 신앙 생활에 전념하였다.

그로 인하여 솔피 마을은 교우촌이 되었고, 그는 홍주, 전주, 공주 등의 감옥에 갇혔다가 1814년 해미에서 76세로 일생을 마감하였다.

솔피 성지에는 순교 100주년을 맞은 1946년 성역화 사업이 시작되어 기념비와 동상 등이 건립되었다.

1983년에는 솔피피정의 집이 완공되어 순례자들에게 다양한 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114번지 041-362-5021~2 서해안고속도로 → 당진IC → 32번국도 → 솔피성지

보령 - 성주사지



성주산 남쪽 기슭에 중심축이 북서서-남동동향에 가깝게 서 있는데 선종사찰로 산골에 자리하고 있으나 통일신라시대의 다른 사찰과는 달리 평지가람 방식을 택하였다.

뒤로는 성주산을 등지고 사역 앞으로는 성주천이 동북방향에서 흘러 웅천으로 들어가고 있어 택지에 주의를 기울인 듯하다. 사역의 평면은 장방형으로 돌담을 쌓아 구획하였는데, 크기는 210×140m쯤 되어 넓이는 1만여평에 이른다. 담의 너비는 1m쯤 되며 지금 남아 있는 높이는 1~1.5m 정도인데, 최근에 보수정화하였다. 1992년 사역의 앞쪽 벽에 조사한 결과 최근에 돌담이 보수된 흔적이 있어 여러 차례 손질한 것을 알 수 있다.

가람 중심부는 사역의 동쪽에 치우쳐 있는데 남에서부터 차례로 중문지, 석등, 5층석탑, 금당과 그 뒤에 동서로 나란히 서있는 동삼층석탑중앙삼층석탑서삼층석탑 그 뒤에 강당이 자리하고 있다.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번지 041-930-3225 서해안고속도로 → 대천IC → 보령 → 성주사지

부여 - 공남지



공남지(宮南池)는 부여읍 남쪽 약 1km의 위치에 있는 백제궁성의 한 별궁에 속한 원지로 알려지고 있다.

일명 마래방죽이라 불리워왔고 자연적인 연못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연구결과 백제시대에 조성된 인공연못으로 주목을 받아 공남(宮南)에 연못을 팠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근거로 공남지라고 불렀다. 본래는 약 3만여평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이었다고 하나, 1965년부터 1967년까지 실시된 복원공사시 현재의 규모로 정화되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오 무왕 35년조에 “천지어궁남(穿池於宮南), 인수이십여리(引水二十餘里), 사안식이양류(四岸植以楊柳), 수중책도서(水中策島嶼), 의방장선산(擬方丈仙山)”이라고 한 바에 따라 연못 중앙에 섬을 만들고 백제무왕의 출생 설화와 관련하여 정자의 이름을 “포룡정(胞龍亭)”이라고 명명하였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번지 041-830-2585 경부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 서논산IC → 4번국도 → 부여

서산 - 간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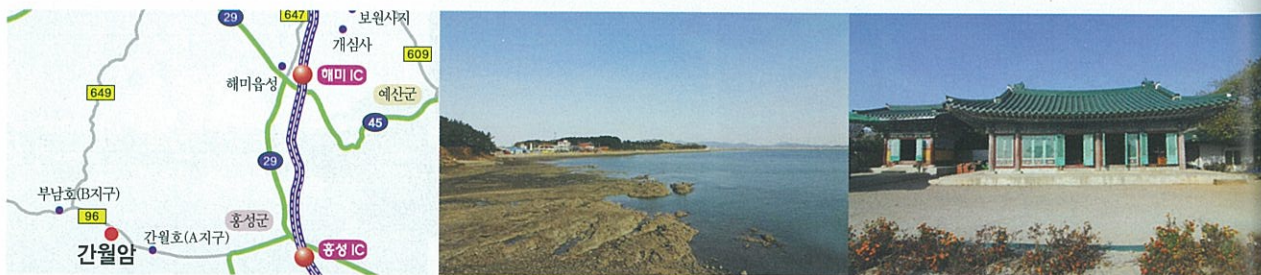
서산간척지로 유명한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의 간월암은 하루 두번씩 밀려오는 밀물때는 물이 차서 섬이 되는 곳이다. 그러나 물이 빠지면 좁은 자갈길이 드러나면서 육지와 연결된다.

간월암은 간월도, 남당이, 안면도 등 주변의 그림같은 풍치에 둘러싸여 바다에 떠있는 모습이, 마치 구름속에 피어난 연꽃 형상을 하고 있다.

조선왕조 도읍을 서울로 정한 무학대사가 고려말 이곳에 암자를 짓고 무학사라 불렀으며, 이 절이 폐사된 터에 만공대사가 중건(1914)하여 간월암(看月庵)이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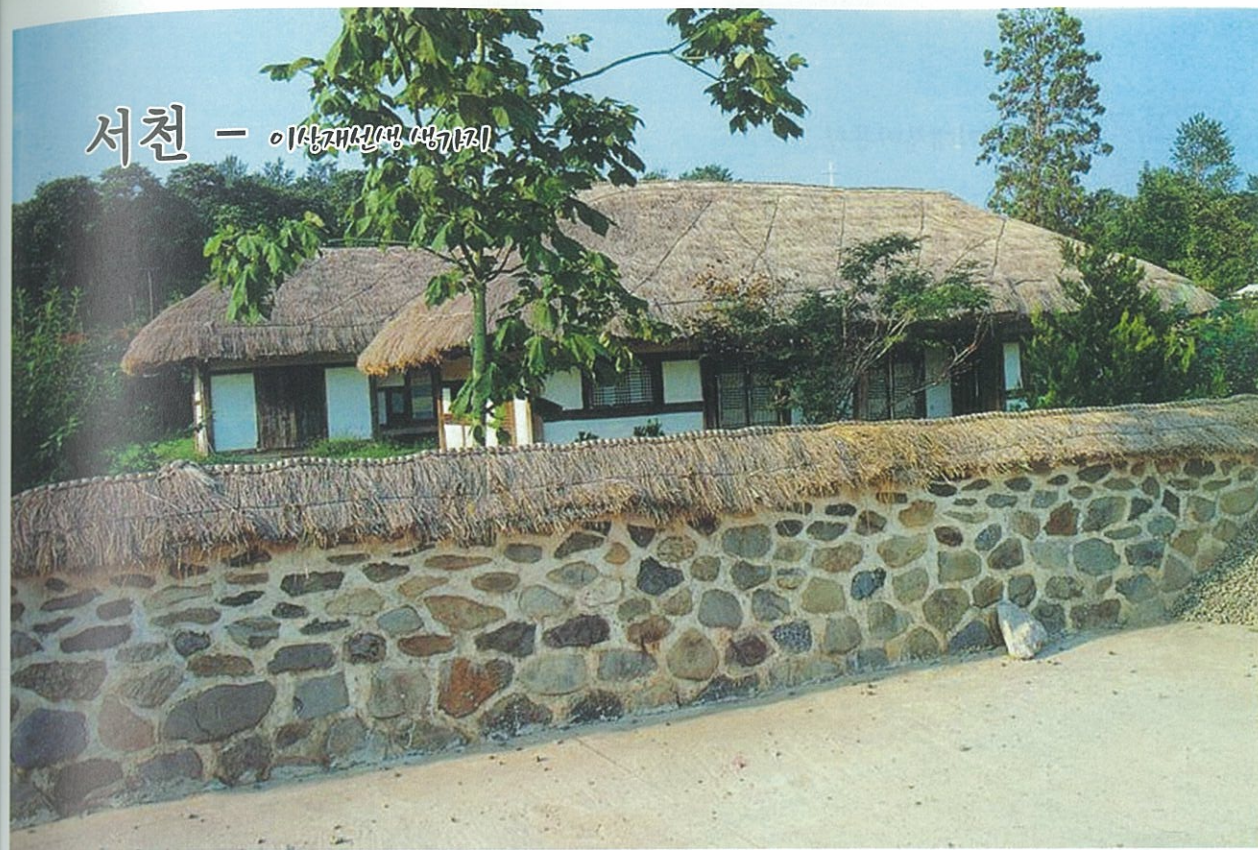
이곳에서는 일출과 일몰을 다 볼 수 있는데, 특히 안면도쪽으로 지는 일몰이 압권이다. 겨울에는 수십만마리에 이르는 가창 오리떼의 군무 속에 지는 일몰은 황홀경 그 자체가 된다.

조선조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에게 진상하였다는 어리굴젓은 이 지역 특산물이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서해안고속도로 홍성나들목 → 국도29 → 국가지원지방도96 → 간월도

서천 - 이상재선생생가



조선 후기 사회 운동가이며 독립운동가이고, 민족주의자인 이상재(1850~1927) 선생의 생가가 있던 자리이다.

선생의 생가는 안채와 사랑채가 있는 목조초가집으로 앞면 4칸옆면 2칸 규모이며 대문은 솟을대문을 두었다.

안채는 1800년경에, 사랑채는 1926년경에 지었다고 하나 원래 건물은 1955년에 없어지고 지금 있는 건물은 1972년,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복원한 것이다. 생가 옆에는 유물전시관이 있어 선생이 생전에 남긴 유물 서적 132점, 임명장 6장 등 모두 244점의 유품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이 가옥은 중부지방의 전통적 농가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전면 지붕의 길이가 후면보다 길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충남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 263외 서해안고속도로 → 서천IC → 서천

연기 - 연기대첩비공원



연기대첩비는 고북군립공원내 위치하고 있고, 연기대첩을 기리며 연기대첩비주변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연기대첩비를 건립(2,000년)했다.

연기대첩비공원에는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이다.



 충남 연기군 서면 신대리 경부고속도로 → 천안IC → 국도1번 → 조치원

예산 - 가야산과 남연군묘



홍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 이구(?~1822)의 묘로 높은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무덤 주변에서 조선시대의 기와가 많이 나왔다고 전해진다.

풍수지리설을 믿었던 대원군 이하응이 한 풍수자에게 명당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풍수가는 이 자리를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올 자리로 지목하여 경기도 연천에 있던 남연군의 묘를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이곳에는 가야사(伽倻寺)라는 절이 있었고 무덤자리에는 탑이 서 있었는데, 가야사를 불지르고 탑을 부순 후 묘를 이장하였고 인근 골짜기에 절을 지어 보덕사(報德寺)라 이름짓고 묘를 돌보게 하였다.

1866년 독일인 오페르트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일이 있었으며, 이 일로 대원군이 서양에 대한 배척을 강화하는 쇄국정책을 실시하고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산 5-28번지 경부고속도로 → 천안IC → 21번 국도 → 아산 → 예산

온양 — 맹사성고택



고려 말의 무신 최영이 지은 집으로 그의 손자사위인 맹사성의 부친 맹희도가 물려받은 후 수백년간 대를 이어 살아오며 보존되었다. 신창맹씨 종중 소유로 후손 맹홍렬이 관리하고 있다.

고택은 설화산을 등지고 있는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의 ㄷ자형 맞배지붕집이다. 뜰에는 맹사성이 심은 수령 600여 년의 은행나무 두 그루가 마주 서 있으며, 은행나무 아래서 강학(講學)했기 때문에 맹씨행단이라고도 불렸다. 이 고택과 구과정, 은행나무를 포함하여 아산맹씨행단이라 불리며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09호로 지정되었다.

고택 뒤에는 맹사성과 부친, 조부 등 맹씨 3위의 위패가 봉안된 사당 세덕사와 정각이 함께 있으며, 맹사성의 유물을 모아 전시하고 있는 유물 전시관이 세워졌다. 이곳에 고불맹사성유물일괄(중요민속자료 225)이 보관되어 있다.

맹사성은 고려 우왕 때 장원 급제하고 청렴하면서도 강직한 관직생활로 선비정신을 드높였는데 세종 때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다. 주변에 현충사, 온양온천, 외암리민속마을, 아산온천, 도고온천, 이충무공묘, 온양민속박물관, 삼교천방조제 등의 관광지가 있다.



충남 아산시 배방면 중리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21번 국도 아산(온양) 방면

천안 — 천안삼거리공원



천안삼거리는 예로부터 삼남의 사람과 문화가 만나 어우러지고 퍼져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문화의 전파로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삼남대로는 이 곳에 이르러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한길은 병천과 청주를 지나고 영동, 추풍령을 넘어 김천, 대구, 경주, 동래 등 영남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길은 공주, 논산을 지나 전주, 광주, 순천, 여수 등 호남으로 이어진다. 만남과 어울림 그리고 헤어짐의 현장인 천안삼거리에 호사스러운 관행이나 과거길가는 선비, 전국을 떠도는 장사치들의 떠들썩함은 사라졌지만, 박현수와 능소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들려주는 능수버들과 천안사람들의 맛과 흥이 녹아 있는 천안삼거리 흥타령이 우리를 반겨준다.

하늘거리는 능수버들이 멋스러운 천안삼거리는 시민들의 영원한 휴식처이며 천안 흥타령 축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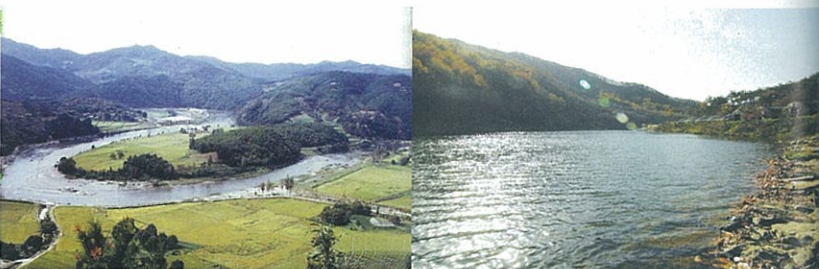
충남 천안시 삼용동 036번지 041-550-2423 경부고속도로 → 천안IC → 천안

청양 — 지천구곡



칠갑산에서 발원하여 어을하천, 작천, 지천, 금강천의 순서로 흐르는데 작천, 지천이 온직리, 구치리, 개곡리, 장곡리, 작천리, 지천리 등 협곡과 아름다운 산수경을 이루는데 흐르는 물굽이가 기묘하고 기암괴석이 아름다워 지천구곡이라 한다.

특히 까치네와 물래방앗간유원지는 물 흐름이 완만하고 깊지 않아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좋아 한여름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있다.



충남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041-940-2441 경부고속도로 천안IC → 45, 39번 국도 → 아산 → 예산 → 청양

태안 — 꽃지해수욕장



안면읍 승언리 소재지에서 서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승언리 4구 꽃지 해변이 위치한 이 해수욕장은 해안선의 길이가 삼봉해수욕장 다음 가는 약 5km에 달한다. 안면도 해변의 모래는 전부 유리 원료인 규사인데 이곳 꽃지해수욕장 역시 규사로 되어 있어 바다와 산이 온통 광물자원이다.

간만의 차가 심하나 완만한 경사 때문에 수영하기에 안전하고 물이 맑고 수온이 알맞아 늦은 여름까지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바로 옆에는 방포 포구가 있어 싱싱한 생선회를 맛볼 수 있으며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는 이 해수욕장의 수문장인 듯 슬픈 전설을 간직한 채 꽃지해수욕장을 바라보며 서있다.

꽃지해변은 포구와 넓은 해변이 함께 있어 여름 해수욕뿐만 아니라 가을 거울의 호젓한 바다산책코스로도 일품이다. 또 안면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승언리가 바로 인접해 있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도 더없이 좋아 여행의 다양한 재미거리를 모두 제공한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서해안고속도로 → 서산IC → 국도32번 → 서산 → 태안

홍성 - 홍주성지



홍주성은 백제의 주류성에 비정되고 있으나 초축년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며 고려시대까지도 홍주성 수 개축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세종실록지리지에서 홍주읍성의 둘레가 533보2척(1보는 6척), 성내에 샘이 하나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조선 초기의 문물제도의 정비와 중앙집권체제의 표현이라 할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왕실의 대행자라는 명분에 힘입어 각 관읍의 위엄도 동시에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관읍의 읍성은 새로운 규모와 격식을 갖춘 성을 새로이 쌓게 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문종 원년(1451)에 새롭게 수축한 홍주읍성의 규모는 성주 4,856척, 높이 11척, 여장이 608개, 성내에 우물이 2곳, 작은 개울 1곳, 해자는 시설하지 않았으며, 본래보다 물려 쌓았다고 한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의 서해안고속도로 → 홍성IC → 29번 국도 → 홍성



홍성문화원
'충남의 민속'



부여문화원 · 서천문화원
'충남의 전설'



공주문화원 · 온양문화원
'충남의 인물'



당진문화원 · 서산문화원 · 성환문화원
'충남의 문화재'



조치원문화원 · 홍성문화원
'충남의 문화재'



〈김종서 장군 묘 정려문〉

조선 초기의 문신·장군 김 종 서

1390(공양왕 2)~1453(단종 1).

지략이 뛰어나고 강직하였기 때문에 대호(大虎)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도총제(都總制) 추(鍾)의 아들이다.

육진개척

본관은 순천. 자는 국경(國卿), 호는 절재(節齋). 1405년(태종 5) 문과에 급제, 상서원 직장(直長), 행대감찰(行臺監察)을 거쳐, 1419년(세종 1)에 사간원우정언이 되었다. 이어 광주판관(廣州判官)·봉상판관(奉常判官)·의주삭주도(義州朔州道)의 진제경차관(賑濟敬差官)을 지냈으며, 1426년 이조 정랑, 1427년 사헌부집의·황해도경차관 등에 올랐다. 1433년(세종 15)에는 좌대언(左代言)으로서 이부지선(吏部之選)을 맡았다. 이 무렵 북쪽 변경에서 우디거[兀狄哈]족을 비롯한 여진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아, 조정에서는 대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북변 강화의 필요성을 강경하게 주장하여, 세종으로 하여금 북방 경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했다. 마침 1433년 우디거족과 오도리[斡朶里]족이 서로 다투는 등 여진족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국토 확장에 뜻을 두고 있던 조정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에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그는 같은 해 12월 함길도도관찰사, 1435년 함길도병마도절제사가 되어 7, 8년간 북쪽 변경에서 여진족을 무찌르고 비변책(備邊策)을

올리는 등 6진(六鎭: 중성·회령·경원·경흥·온성·부령)을 개척하여 국토확장에 큰 공을 세웠다. 이로써 1416~43년에 걸쳐 개척된 압록강 주변의 사군(四郡: 여연군·자성군·무창군·우예군)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토가 두만강·압록강 상류까지 넓어졌다. 1440년 서울로 돌아와 형조판서·예조판서를 지내고, 그뒤 충청·전라·경상 3도의 도순찰사를 거쳐 1446년 의정부우찬성으로 임명되고 판예조사(判禮曹事)를 겸하였다. 1449년 8월에 달달(達達: Tatar) 야선(也先)이 침입하여 요동지방이 소란해지자 평안도도절제사로 파견되었다가 이듬해 돌아왔다.

사서편찬

그는 6진을 개척한 용장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려사 高麗史〉·〈고려사절요 高麗史節要〉·〈세종실록〉의 편찬작업을 책임지는 등 학자·관료로서의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1451(문종 1) 좌찬성 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서 편찬한 〈고려사〉는 본래 1392년(태조 1) 정도전(鄭道傳) 등이 편찬한 것을 세종 때 몇 차례(1421, 1424, 1442) 개수한 끝에 완성한 것이었다. 〈고려사〉의 편찬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조선 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데다가, 정도전 등 몇몇 개인의 가문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등 공정치 못하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김종서·정인지(鄭麟趾)·이선제(李先齊)·정창손(鄭昌孫) 등이 1449년부터 개찬에 착수하여, 1451년에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표(表) 2권, 열전(列傳) 50권, 목록(目錄) 2권의 기전체(紀傳體)의 정사(正史)로 〈고려사〉가 완성되었다. 같은 해 10월 우의정으로 승진, 편년체(編年體) 고려사 편찬을 건의하여, 이듬해인 1452년(단종 즉위년) 〈고려사절요〉 편찬에 참여했다. 같은 해 〈세종실록〉 편찬의 책임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계유정난(癸酉靖難: 세조의 왕위찬탈사건)으로 위의 사서들에서 그의 이름은 모두 삭제되었다.

계유정난

그는 세종 때부터 임금의 신임을 받는 관료로서 성장했다. 문종도 죽음을 앞두고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남지(南智) 등과 함께 우의정인 그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했다. 그러나 세종의 여러 왕자들이 다투어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수양대군(首陽大君)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는 야망을 실현시키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인물로 그를 지목하고 제거하고자 하였다. 수양대군은 한명회(韓明澮)·권람(權輅) 등의 모사(謀士)를 얻은 뒤 홍달손(洪達孫)·양정(楊汀)·유수(柳湊) 등 무사들을 규합, 1453년(단종 1) 10월 13일에 거사하기로 하고, 이날 우선 서대문 밖 김종서의 집으로 가



〈김종서 장군 묘 신도배〉

서 양정·임운(林芸) 등이 김종서와 아들 승규(承珪)를 살해했다. 뒤이어 이들은 단종에게 김종서 등이 반역을 도모하였기에 대역모반죄(大逆謀叛罪)로 우선 죽였다고 아뢰고, 왕명을 빌어 대신들을 소집한 다음 홍윤성(洪允成) 등을 시켜 황보인·조극관(趙克寬)·이양(李穰) 등을 죽였으며, 정분(鄭)·조수량(趙遂良) 등은 귀양 보내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다. 1680년(숙종 6) 강화유수 이손(李巽)이 김종서의 억울함을 논하였으며, 1719년(숙종 45)부터 후손들이 다시 등용되기 시작하였다. 1746년(영조 22)에 그의 벼슬이 회복되었다. 종성의 행영사우(行營祠宇)에 제향되었다. <장백산에 기를 꽂고>·<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등의 시조가 전한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 김종서 장군 상소문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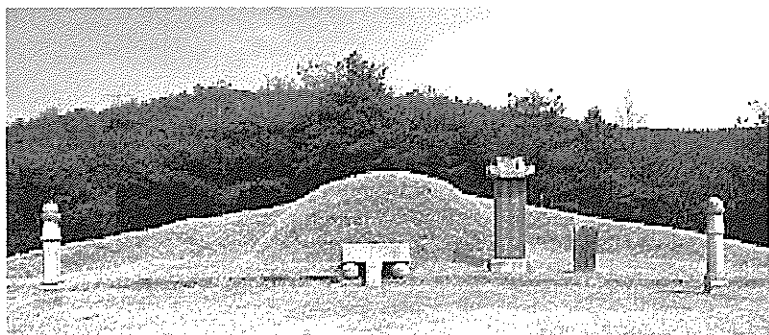
군사를 훈련시키려고 하면 어떤이는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니 할 수 없다'하고,

무기를 수리해 놓으려 하면
'백성이 가난하니 할 수 없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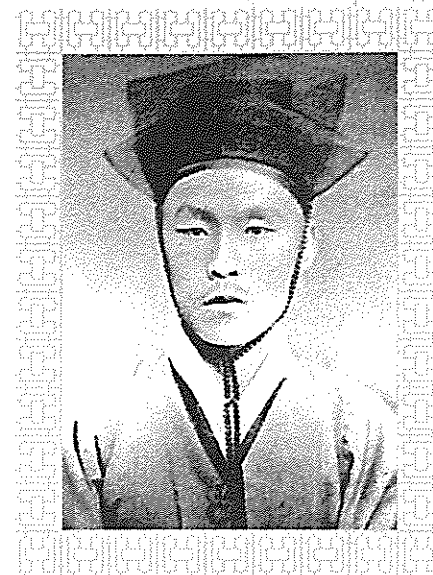
장정의 숫자를 점검해 보려고 하면
'백성이 놀라서 시끄럽게 되니 할 수 없다'하고,

군대를 출동시키려하면
'국고가 비어 있으니 안 된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굶주리고 국고가 비었다고 해서
오랑캐가 쳐들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김종서 묘, 충청남도 기념물 제 16호(공주시 정기면 대교리)〉



고균(古均) 김옥균(金玉均)

고균(古均) 김옥균(金玉均) 선생(1951~1993)
愛國的 開化運動을 전개하다 실패한 革命家이며 政治家

조선고종 때는 정치가이었던 선생의 자(字)는 백은(百溫)이요 호(號)는 고균(古均), 고우(古愚)이며 시호(詩號)는 충달(忠達),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1951년(철종 2년)에 공주군 정안면 광정리(公州郡 正安面 廣亭里)에서 태어났다.

당시 명문가인 안동 김씨 집안이었으나 부친 김병태(金炳台)씨는 낮은 관직에 머물러 있었고 어머니 송씨는 충남 가문의 출신으로 무척 정숙하고 자애로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생은 7세때 재종숙 김병기(金病基)에서 입양되어 서울에서 성장하였다. 11세 때인 1861년에 양부(養父) 김병기가 강릉부사가 되어 임지로 가자, 양부를 따라 강릉에 가서 16세까지 율곡사당(栗谷祠堂)이 있는 서당에서 율곡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부하였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서 학문뿐 아니라 문장, 시, 글씨, 그림, 음악등 예능부분에도 탁월한 소질을 발휘하였다.

당시 오경석(吳慶錫), 유흥기(劉鴻基), 박규수(朴珪壽)등에 의하여 나라의 근대적 개혁을 위한 개화사상이 형성되자 선생은 다른 청년들과 함께 1870년 전후부터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개화사상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갔다.

1872년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여 1874년 홍문관교리(弘文館校吏)에 임명된 선생은 이무렵부터 정치적 결사로서의 개화당의 형성에 전력하여 다수의 동지들을 모으고 그 지도자가 되었다.

1879년 개화승(開化僧), 이동인(李東仁)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의 근대화 실태를 알아보게 하고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파견을 주선하였으며 1881년 음력 12월에는 선생이 직접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의 진전 과정을 돌아보고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가들과 접촉하고 돌아 오



김옥균 선생의 초상

면중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에 급거 귀국하였다.

임오군란이 수습된 뒤 선생은 승정원우부승지,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 이조참의, 호조참판, 외아문협판(外衙門協辦)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나라의 자주 근대화와 개화당의 세력 확대에 진력하였다.

선생은 조선의 완전 자주독립과 자주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경장개혁(大更張改革)을 단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을 국가의 정책으로 실천하고자 하였으나 청국의 극심한 방해로 실패하였다.

당시 청국은 임오군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3천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였으나 임오군란을 진압하고 민비정권을 재수립한뒤에도 철수하지 않고 청군을 서울에 주둔시킨채, 조선을 실질적으로 속방화(屬邦化)하기 위한 적극적인 간섭정책을 자행하였다. 청국은 선생등의 자주 근대화정책이 그

들이 속방화 정책에 저항하는 것이며 조선이 청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으로 보고 개화당의 개화정책을 극도로 탄압하였으며 청국의 도움으로 재 집권한 민비 친정(親政) 사대수구파들도 이에 야합하여 박해하였다.

이에 선생은 정변(政變)의 방법으로 먼저 정권을 장악한 다음, 개화사상과 주장을 실천하여 나라를 구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청국과 프랑스가 안남(현재의 베트남) 문제로 1884년 8월 전쟁에 돌입하였으나 청국이 계속 패하게 되자 선생은 정변을 일으킬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그해 9월 개화당 동지들과 거사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884년 양력 12월 4일(음력 10월 17일)우정국 준공 축하연을 계기로 마침내 갑신정변을 단행하여 그날 밤으로 민비수구파의 거물 대신들을 처단하고 12월 5일 이재원(李載元:왕의종형)을 영의정으로 홍영식(洪英植)을 좌의정으로 하여 개화당의 신정부를 수립하였다.

선생은 호조참판을 맡아 재정권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정변과 신정부를 모두 지휘하였다.

개화당은 정권을 장악하자 12월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까지 밤을 새워가며 선생의 주도하에 혁신정강(革新政綱)을 제정하여 6일 오전 9시경 국왕의 전교(傳敎)형식으로 공포하였다.

이날 오후 3시 국왕도 이를 추인하여 대개혁정치를 천명하는 조서(詔書)를 내려서 국정전반에 걸친 대 개혁이 이루어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청군 1,500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갑신정변을 붕괴시키기 위한 무력개입을 시작하여 갑신정변을 실패하고 개화당의 집권은 "삼일천하(三日天下)"로 끝나고 말았다.

선생은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후일의 재기(再起)를 위하여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 9명

의 동지들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885년 말 망명중인 선생이 일본의 구 자유당계불평 정객 및 낭인들과 결탁하여 조선을 침공하려 한다는 소문이 떠돌자 다시 선생의 체포와 송환을 요구했던 조선 정부에서는 1886년 5월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의 주사(主事) 지운영(池運永)을 일본에 보내 선생을 암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기도는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고 이 일은 조선, 일본간에 외교분규로 발전하자 일본 정부는 지운영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한편 선생을 태평양 절해의 고도인 "오가사와라" 섬에 강제추방하였다.

이곳에서 약 2년간 유배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선생은 그후 북해도로 옮겨져 억류되었다가 189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내지귀환(內地歸還)의 허가로 동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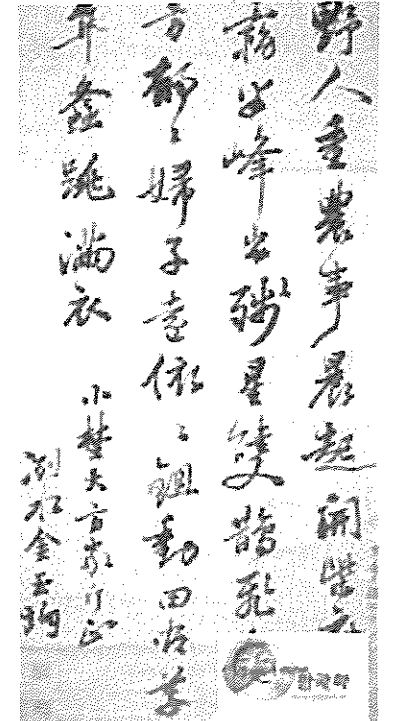
그러나 동경에서의 생활이 궁핍했던 선생은 이일직(李逸稷)의 계략에 빠져 홍종우(洪鍾宇)와 함께 1894년 3월 청국의 상해로 건너갔다.

프랑스 유학생으로 일본에 머물고 있던 홍종우는 민씨 척족정권이 일본에 잠입시킨 자객 이일직에게 포섭되어 1894년 3월 28일에 상해의 미국 조계(租界)안의 일본 여관 동화양행(東和洋行)에서 선생을 저격하였다. 선생이 암살당하자 청나라는 선생의 시체와 홍종우를 조선정부에 인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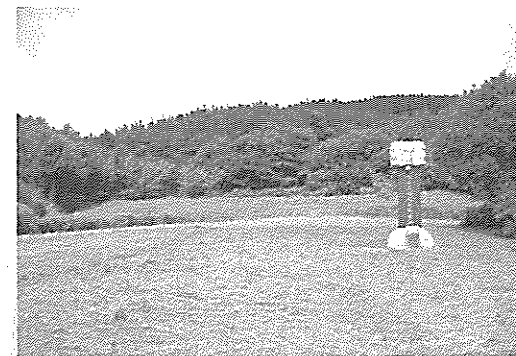
조선 정부는 홍종우를 우대하였으나 선생의 시체를 서울 양화진(楊花津)에서 능지처참하여 전국에 효시하였다.

4개월 뒤에 갑오경장으로 개혁과 정부가 수립되자 이듬해 법무대신 서광범과 총리대신 김홍집(金洪集)의 상소에 의하여 선생의 반역죄는 사면되고 1910년(隆熙 4年)에는 "정일품대신 보국숭록대부규장각대제학(正一品大臣輔國崇祿大夫奎章閣大提學)"을 추증하여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治際)하는 대우까지 받았다.

현재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선생의 생가지(生家址)가 지방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



김옥균 필적



김옥균 선생 유허지-충남 공주시 정안면 지방기념물 제 13호



청백리의 표상 고불 맹사성

- 시대 : 조선 전기
- 본관 : 신창(新昌)
- 성 : 맹(孟)
- 자 : 자명(自明)
- 호 : 고불(古佛)
- 성별 : 남
- 출생 : 1360년
- 사망 : 1438년
- 직업 : 작가, 국내 역사인물
- 경력 : 1431년 좌의정, 춘추관영사 겸임, 1427년 우의정
- 활동분야 : 문신/관료/문신-조선전기/ 문신

맹정승의 일생

고려 말 조선 초의 청백리 명재상이신 맹사성의 본관은 신창(新昌). 자는 자명(自明). 호는 고불(古佛)·동포(東浦).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아버지는 고려 수문전제학(修文殿提學) 회도(希道)이며, 최영(崔瑩)장군의 손자사위이다. 온양(溫陽) 출생으로 1386년(우왕 12)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춘추관 검열(檢閱)을 거쳐 전의승(典儀丞)·기거사인(起居舍人)·우헌납(右獻納)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한성부윤, 대사헌, 예조판서, 호조(戶曹)·공조(工曹)를 거쳐 19년(세종 1) 이조판서로 예문관 대제학을 겸하였다. 27년 우의정에 올랐다. 29년 궐장(杖)을 하사받고, 이듬해 《태종실록(太宗實錄)》을 감수, 31년 좌의정이 되고 다시 춘추관영사(春秋館領事)를 겸임,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를 찬진(撰進)하고 35년 노령으로 사임하였다. 맹사성은 조선 초기 강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명재상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유명한 황희 정승과 정치적 동반자였다. 조선태종 초에는 이조참의, 세자 시종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는 등 큰 역할을 하였다. 황희(黃喜)와 함께 조선 전기의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고, 1435년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으나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

면 반드시 그에게 자문하였다. 맹사성이 사람됨이 소탈하고 엄하지 않아 비록 벼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반드시 공복을 갖추고 대문밖에 나아가 맞아들여 윗자리에 앉히고 돌아갈 때에도 역시 공손하게 배웅하여 손님이 말을 탄 후에야 들어왔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고 청백하여 살림살이를 일삼지 않고 식량은 늘 녹미(조정에서 봉급으로 주는 쌀)로 하였고 바깥 출입을 할 때에는 소타기를 좋아해 보는 이들이 그가 재상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지혜로우면서도 청렴 결백한 맹사성의 성품은 요즘 사람들에게 더욱 귀감이 되고 있다.

맹정승 호(古佛)의 유래

또한 고불(古佛)이라는 호는 고불심(古佛心)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고불심이란 순수하고 참된 도인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써 노자가 소를 타고 속세를 떠난 것에서 유래되는데 맹사성이 소를 타고 다니는 풍류를 즐긴 까닭이다. 맹사성의 스승 권근도 '소를 타는 것은 더디고자 함이다.'하여 최고의 풍류로 예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맹사성의 소 타기는 고불심의 발로가 틀림없다. 곧, 욕심을 버리고 참된 마음을 갖고자 함을 좌우명으로 삼기 위해 그는 호를 스스로 고불(古佛)이라고 한 것이다.



맹사성 초상화

또한 맹사성은 무엇보다 효자였다. 그의 효행은 아버지의 효행과 함께 나란히 삼강행실도에 실릴 정도였다. 맹사성이 예조 판서로 있을 때 부친의 병구완을 위해 사직을 청한 적이 있는데, 태종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충청도 관찰사로 발령, 온양 가까이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간 정성으로 묘를 지켰으며 그의 효심은 효자비에 새겨져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맹정승의 성품

그의 성품을 짐작하게 하는 일화들이 많은 전해져 온다. 1408년에 대사헌으로 있을 때, 태종의 부마인 평양군 조대림을 고문한 일로 왕의 노여움을 사 처형 위기에 처한 일도 있었다. 또한 1427년 감관사로 태종실록 편찬이 완료되자 세종이 이를 보고자 요청하였으나 간곡히 거절하기도 하였다. "왕이 실록을 보고 고치면 반드시 후세에 이를 본받게 되어 사관(史官)이 두려워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반대하니 세종이 이에 따랐다. 신분에 관계없이 죄를 엄단하는 모습과

왕에게 직언하는 모습은 그가 해동명신록에 등재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의 성품은 나이가 들수록 강직해지고 자신에게도 엄격해 졌다. 사람은 늘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경향이 있다. 맹사성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의 규율과 척도에 엄격했다. 그는 1435년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으나,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왕의 지극한 애정과 신료로서의 높은 지위는 사람을 교만하게 할 만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사람됨이 소탈하고 조용했다. 비록 벼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반드시 공복(公服)을 갖추고 대문 밖에 나아가 맞아들여 뒷자리에 앉히고, 돌아갈 때에도 역시 공손하게 배웅하여 손님이 말을 탄 뒤에야 들어왔다. 정승으로 있을 때는 항상 문을 닫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여름에는 소나무 그늘아래 겨울에는 창포 방석에 앉았으나 다른 물건 하나 없이 청백하고 간결하며 단아했다고 한다.

재상의 신분에도 있었음에도 그의 집은 늘 가난하고, 청빈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그가 사는 집은 판자집처럼 작아서 비바람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한번은 병조판서가 그의 집으로 정부를 보러 집으로 갔는데, 집이 좁아 발 붙일 곳도 없었고,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니 집이 군데군데 섰다. 이를 본 병조판서는 자신을 반성하면서 돌아와 마침 새로 짓던 행랑채를 허물기까지 했다고 한다.

먹는 것도 검소하여 언제나 국가에서 나는 녹미를 식량으로 했는데, 쌀이 항상 묵어 못내가 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항상 소를 타고 다녀서 그가 재상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라고 한다. 처음 보는 사람은 그가 정승인지도 몰랐으니 말이다. 한번은 양성과 진위현에서 맹정승이 온다고 하여 현감이 마을 어귀에서 기다렸으나 온다는 정승은 아니 오고 소를 탄 늙은이가 지나갈 뿐이었다. 수령들은 하인을 시켜 소를 타고 앞을 지나가는 늙은이를 꾸짖으니, “내가 온양에 사는 맹고불이라 일러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이를 듣고 수령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 달아나다 연못에 도장을 떨어드리니 나중에 인심연(印沈淵)이라 불렀다고 한다.

맹정승의 문학의 세계 (강호사시가)

그는 시문(詩文)에도 능하여 작품으로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가 전해지고 있다. 청렴한 정치가이면서도 멋과 풍류를 아는 도인이면서 예술인이었던 맹사성은 그야말로 전인적(全人的) 가치를 지닌 최고의 멋쟁이였다.

● 춘사(春詞)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로 계변(濁羅溪邊)에 금린어(錦鱗魚)이 안주이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해롭도 역군은(亦軍恩)이샀다.

● 하사(夏詞)

강호(江湖)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난 보내 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해롭도 역군은(亦軍恩)이샀다.

● 추사(秋詞)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시러 홀니 띄어 던져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움도 역군은(亦軍恩)이샀다.

● 동사(冬詞)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해움도 역군은(亦軍恩)이샀다.

위 강호사시는 우리 나라 최초의 연시조라는 점에서 국문학사상의 의의를 가지며 작가가 만년에 벼슬을 내놓고 고향에 돌아가 한가한 세월을 보내면서 지은 노래이다.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며 유유자적하는 선비의 생활을 읊은 것으로, 이항의 <도산십이곡>과 이이의 <고산구곡가>에 영향을 주었다. 총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춘하추동 사계절의 모습을 읊고 있다.

1연에서는 강호에 봄이 찾아와 시냇가에서 싱싱한 물고기를 안주 삼아 탁주를 마시는 흥겹고 한가로운 풍류 생활을, 2연에서는 여름날 한가로운 초당에서 시원한 강 바람을 쐬며 지내는 유유자적한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3연에서는 가을 날 강에 배를 띄워 고기를 잡으며 즐기는 생활을, 4연에서는 눈 내린 겨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강촌 생활을 유유자적하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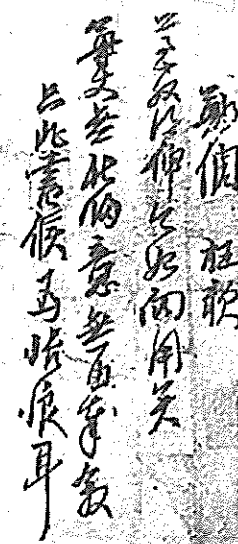
계절에 따라 봄의 흥겨움, 여름의 한가로움, 가을의 고기잡이, 겨울의 설경을 설정하여 소박한 생활을 하는 강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임금의 은혜를 예찬하는 작품이다.

각 수가 내용상으로는 먼저 자신의 생활을 얘기하고 나중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강호에로 시작해 '역군은이샀다'로 끝맺는다는 형식상의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통일성은 자연의 변함없는 조화와 임금의 끝없는 은혜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면서도 항상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은 것은 조선 시대의 유교 사상, 충의 사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조 사대부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맹정승의 음악의 세계

그가 언제부터 소를 타고 다니게 된지는 모른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온다. 지금 맹사성 묘역의 왼쪽에는 '흑기총'이라하여 맹정승이 타고 다니던 소를 묻은 무덤이 있다. 맹정승이 온양 고택에 들렀을 때 집 뒤 설화산 기슭에서 봄 경치에 취하여 즐기던 중 아이들에게 시달림을 받던 검은 짐승을 발견했다. 아이들에게 호통을 쳐서 아이들은 달아나고 검은 짐승이 정승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며 고맙다고 하며 표시하더니 이내 집까지 따라와 할 수 없이 집에서 기르게 하니 잘 따라



맹사성 필적

다고 한다. 그 후 맹정승은 온양에서 한양을 이 검은 소를 타고 왕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불이 죽자, 검은 소는 자신을 거둬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해 슬픔을 못 이겨 먹지도 않고 슬퍼했다. 슬피 울다 소가 죽자, 소의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을 만들어 주니 이를 '흑기총'이라 한다. 해마다 벌초 해주고 잔을 부어 준다고 한다.

이러한 마음은 그가 음악을 유난히도 사랑했기 때문인가 보다. 그는 음률을 알아 피리를 즐겨 불었으며, 세종대에 박연과 더불어 음악을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맹사성은 시문에 능하고 음률에도 밝아 향악을 정리하고 악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의 해박한 음악성은 조선 초기 궁중음악을 정비하는데 기여했다. 초기 세종은 혼란한 아악을 바로잡아 중국계의 아악과 전통향악을 정비해 갔다. 맹사성은 선형 향악곡 중에서 남녀의 상열지사나 음란한 노랫말을 개작하여 비속한 음악을 정화하였으며, 그는 조상들이 생존 시기에 늘 듣던 향악을 연주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는 소를 타고 다니면서 피리 한 자루를 들고 주유하였다. 멀리서도 그의 피리소리가 들리면 맹정승이 오는 것을 알았다. 지금도 그의 유품인 백옥으로 만든 대나무 모양의 피리가 남아 있다. 검은 소를 타고 하얀 피리를 불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던 재상의 풍류가 느껴진다.

고불 맹사성은 또한 음률(音律)에도 밝아 향악(鄕樂)을 정리하고 악기연주에 매우 능했다. 유명한 음악가 박연을 등용한 것도 고불인 것으로 보이며, 반대파들로부터 박연을 감싸준 것도 고불이었다. 박연이 중심음을 잡고 음악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할 때도 그 핵심은 세종-고불-박연이었다. 그는 옥저라 불리우는 피리를 참 잘 불었다 한다. 그의 옥피리는 충남 아산시 배방면 중리에 있는 맹씨 행단에 보관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맹고불이 향년 79세로 죽어서 남긴 것은 바로 옆에 놓아둔 한자루의 피리뿐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공부 이외에도 피리를 불며 소일했다. 관원들이 맹정승이 사는 마을에 들어서면서 피리 소리가 나고 안 나는 것으로 대감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관습이 되리만큼 가난하였지만 일생을 꿰뚫는 피리 가락 같은 담담한 철학이 그를 오늘날에 한결 돋보이게 한다.

출처 : 류현희 경기문화연구소 연구원

아산시청 홈페이지



맹사성 고택



수룡동 당산 풍어제

■명칭 : 당산 풍어제

■신격 : 산신, 해신

■유래

당산 풍어제의 유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곳에 마을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당집의 위치

당산 풍어제를 지내는 당집은 수룡동 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마을 바로 뒷산 봉우리 부근에 있다. 당집에 올라서 앞을 보면 멀리 천수만 앞바다까지 훤히 건너다 보인다.

■당집의 형태

당산 풍어제를 지내는 당집은 당산의 봉우리 부근에 위치해 있다. 건물은 없고 자연물로 되어있다. 평평하게 땅을 고르고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제단 주변에는 크고 작은 소나무들이 뾰뚱하게 들어서 있다.

당산 풍어제를 지내는 날은 포장으로 가건물을 설치해 놓고 행사를 치른다. 당집에서 모시는 신은 여신이다. 옛날부터 여신이라고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제의 목적

당산 풍어제의 제일 큰 목적은 뭇나뭇니 해도 뱃길에서의 안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옛날에는 소형 어선에 몸을 맡기고 바다로 고기잡이를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기원할 대상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당산 풍어제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적에서 당산 풍어제를 지낸다. 요즘은 당산 풍어제를 통해서 부락민들의 단결과 화합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도 당산 풍어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제일

당산 풍어제는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날 지낸다. 지내는 시간은 아침 10시경부터 자정 무렵까지이다.

■제의 주관자

제관은 당주 한명을 뽑는다. 지금은 당주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이장이 당주를 한다. 당산 풍어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은 무당이다. 초청된 무당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행사를 주관해 나간다. 마을 이장은 제관으로서 무당과 함께 당산 풍어제를 보조한다. 옛날에는 당주로 뽑혀서 일년동안 마을에 큰 일이 없으면, 몇 년 동안 계속 시키기도 했다.

■금기

당산 풍어제의 금기 사항은 일반적인 동신제와 비슷하다. 다만, 오전중에 당산에서 지내는 당제에는 여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당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남자이다. 여자 참석자는 제를 주관하는 무당뿐이다. 당주로 결정되면 당제를 지낼 때까지 부정한 곳에 드나들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부정한 행동을 해서도 안된다. 당주는 당제를 지내고서도 부정이 있는 곳에 1년 동안 출입을 금한다. 지금은 이런 금기사항이 많이 완화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신앙 태도

수룡동 사람들은 당산 풍어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적인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 또한 당산 풍어제를 계기로 마을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녁에 모든 행사를 끝내고 마을 회관에 모여서 남녀노소가 어울려 한바탕 노래로 화합을 다지고 있다.

황금새의 전설에 얽힌 대조사와 미륵불

백제의 수도 사비성(泗城)의 서남방을 방비하였던 지금의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옛 임천군의 진산인 성흥산성은 당나라 장수 소정방도 공격을 비할 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성흥산성(聖興山城) 안에는 백제 성왕 5년(527)부터 5년간 긴 세월을 걸쳐 창건하였다는 대찰 대조사(大鳥寺)와 석조미륵보살입상이 있다. 이 대조사의 창건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오늘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지금 대조사의 미륵불이 있는 자리에는 당시 큼직한 바위가 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한 노승이 자그마한 암자를 짓고 살고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양지 바른 이곳에서 이날도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노승은 참선 삼매에 들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날 따라 자꾸 졸리기만 하는 것이었다. 노승은 이래서야 될 말이나 하고 자책을 하면서도 뜻하지 않게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이때 노승은 꿈속에서 한 마리의 큰 새가 서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신기하게도 이 새는 황금빛 찬란한 빛을 발산하면서 지금 절 있는 곳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리고 이 신비스러운 황금빛의 새는 노승이 사는 암자 뒤 큰 바위를 향하여 계속 날개를 저었다. 그러자 햇빛에 반사된 한줄기 광명이 그곳 바위에 집중되더니 놀랍게도 그곳에 관세음보살의 상이 명멸하며 나타나는 것이었다.

“앗” 하고 놀란 노승은 꿈속에서 지른 자기 소리에 깜짝 놀라 잠이 깨었다.

“꿈은 꿈이로되 신기한 꿈도 다 꾸었구나?”

노승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모든 것은 꿈으로 돌리고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노승은 다음 날도 또 다음날도 같은 시각에 같은 꿈을 꾸는 것이었다. 노승은 그제야 일이 예사가 아니요, 하늘이 뭔가를 계시하는 현몽임을 깨달았다. 노승은 이 사실을 임천골의 성주에게 알리었다. 성주는

반신반의하며 산에 올라와 그 바위 앞에 다가서 봤다.

그러자 그 순간이었다. 큼직한 바위 전체가 황금 덩어리인양 휘황찬란하게 빛나며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소스라치게 놀란 성주는 그만 그 자리에 엎드려 합장기도 했다.

이 사실을 당시 백제 서울이었던 웅진(熊津, 공주)에서 전해들은 성왕은 적지 않게 감동했다. 그렇지 않아도 성왕은 장차 서울을 협소한 웅진으로부터 광활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소부리(所夫里, 부여)로 옮길 마음을 가졌던 터라, 그렇게 되면 성흥산성은 수도의 서남방 측 중국대륙으로부터 침공하는 외적을 막는 가장 중요한 곳이 될 것이었다. 성왕은 이때부터 그 자리에 불력으로 국가 안녕과 수호를 비는 큰 절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성왕은 많은 장인을 동원하여 드디어 성왕 5년 4월 초파일 석가여래의 탄생일 기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절의 창건불사는 국영으로 규모가 큰 공사였으므로 애당초 십년의 세월이 소요될 듯 하였으나 성왕은 사공을 주야로 투입하여 공사 진척을 서둘게 하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공사 현장은 대낮처럼 새가 날아 와 울어 주위가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리하여 사공들은 밤일을 낮일과 아무 차이 없이 그리고 피로를 씻어주는 새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으니 공사는 성왕 10년(532) 4월 초파일 석가탄생일에 준공을 볼 수가 있었다. 실로 공사 기간이 애당초 예측했던 10년의 절반인 5년으로 단축되었던 것이다.

이날의 준공법회에는 성왕도 멀리 웅진에서 찾아와 참석하였다. 성대한 법회가 끝날 무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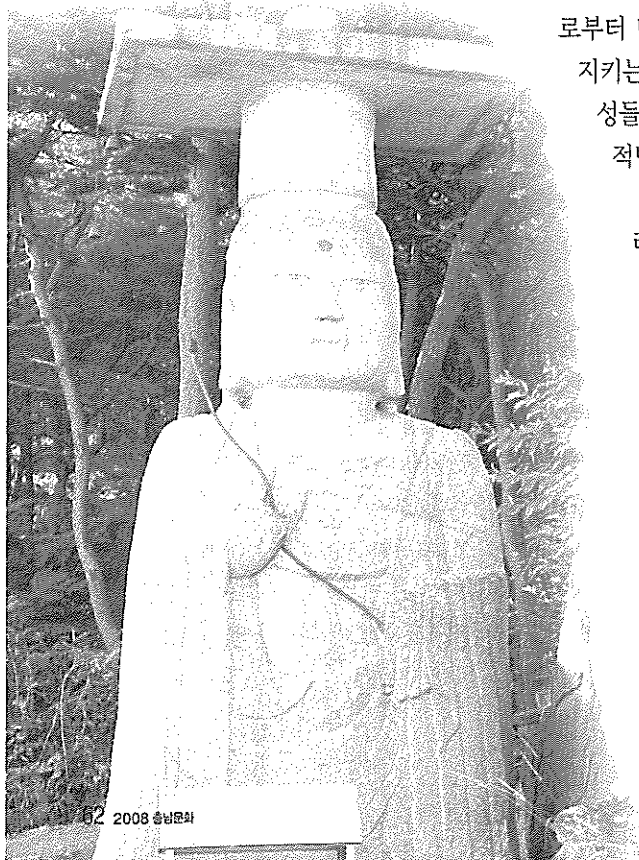
처음 황금빛의 큰 새가 내려앉아 울었던 그 자리에 세워진 탑에서 한 마리의 큰 새가 나래치며 나타나더니 서쪽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이었다.

이 신비스러운 일로 대조사(大鳥寺)란 이름을 짓게 된 이 절은 그로부터 백수 십년간 웅진으로부터 소부리로 천도한 백제 수도를 지키는 성흥산성의 영장으로서 존속하였으며, 백제의 그 많은 성들이 18만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함락되었을 때도 끝끝내 적병을 접근시키지 아니 하였던 신술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미륵보살이 비치던 거암은 후세 고려시대에 이르러 기어이 웅대한 미륵보살입불로 조각되었으니 그 키는 자그만치 55척이요, 둘레는 16척이나 되는 것이다.

흔히들 미륵불이라 하면 논산의 은진미륵을 연상하나 우리고장의 미륵은 하나의 바위로 이룩된데 비하여 은진미륵은 약간 키가 크기는 하나, 두세 개를 조각하여 합친 것으로 차이가 난다. 이를 아는 사람이 과연 그 몇이나 될까?

백제 망국의 설움이 여기에도 미치는데 대조사의 미륵은 오로지 묵묵부동으로 동쪽을 바라보며 그 옛날 사라진 황금새가 다시 찾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동자복

땅속에서 동자들의 북소리 들려와
동자가 북치는 형세여서 '동자북'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동자북' 마을에 뒷산이 있다. 동자가 북을 치는 형세라 하여 '동자북'이라 이름 지어졌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높은 산이었으나 열아홉 명의 동자가 묻힌 뒤부터 차츰 낮아진다고 한다. 지금도 비가 내리는 날에는 땅속에서 북소리가 들려온다는 마을이다.

“세상이 이상해졌다”

“아니야, 나라가 망한 게 분명해”

“어제도 원님은 행차 하던데”

“참 이상하단 말이야. 어른들은 입을 딱 다물고...”

“하여튼 싸움놀이나 끝내자”

“그래 하던 놀이는 끝내고...”

건지산 중턱에 모였던 아이들 열댓 명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산으로 올라간다.

산위에서 아이들이 숨어 있다가 나무사이로 내려오면 아래에서 올라간 아이들과 부딪히며 몽둥이를 들고 한참동안 싸우다가 다음엔 맨손으로 허리를 붙잡고 넘어지며 뒹군다.

그들이 매일 한번 씩 하는 싸움놀이이다. 치고받고 하다가 상대방이 모두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싸움놀이는 계속됐다.

싸움놀이를 끝내고 돌아오는 아이들의 얼굴은 굳어있었다.

서로가 확실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나라 안이 심상치 않아서였다.

“야... 우리는 언제나 군사로 뽑아준데?”

한 동안의 아이가 소리쳤다.

“우리들만 나가도 산성 하나는 지킬 텐데 말이야”

“글쎄 말이야 화양땅 그 나무장사도 군사가 되었는데”

“하하.. 그 군사보단 내가 훨씬 싸움을 잘 하겠다”

“우리 이왕이면 원님 앞에 가서 싸움터에 보내달라고 사정해볼까?”

“언제는 뭐 안 해 봤나 또 그 소릴 쫄”

“무예를 갈고 글을 읽고...”

“원님 목소리하고 똑같은데 하하”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서는 내일 만나기로 하고 뿔뿔이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간 아이들은 근심에 쌓여 있는 부모님들을 보고 그들도 수심에 잠기게 됐다.

오늘 아침에 사비성은 나당군에게 점령됐으며 의자왕은 도망가다가 돌아와서 항복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오늘에 와서야 처음 입을 열었다.

“백제는 이제 나라가 없어졌다. 오늘 아침에 임금님이 항복하셨단다”

이 말을 전해들은 아이들은 믿어지지 않는 듯 처음엔 머리를 가우뚱거리다가 성안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시름에 잠기게 됐다.

그들은 예전처럼 싸움놀이를 하는 시간에 산에 모였다.

아침에 모이면 한패는 산으로 올라가고 한 패는 아래에서 올라가며 부딪히는 곳에서 한바탕 싸움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며칠 산에 올라서서는 멍하니 하늘과 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성안에서는 백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궤기운동이 일어났고 아이들은 그제야 다시 싸움놀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머리를 툇 순으로 질근 동여매고 북을 두 개 구해 와 아래 위에서 북을 치며 격돌하는 싸움놀이를 했다.

“거지 당나라 놈들이다”

사비성은 떨어졌으나 그들이 사는 곳엔 도승과 왕자 그리고 좌평 한명이 살고 있어 성안 사람들은 곧잘 뭉쳐서 싸움터로 나갔고 곧 환호성을 지르며 개선하곤 했다.

아이들의 싸움놀이는 계속됐고 이곳에 머물던 왕자에게도 그들은 싸움놀이가 알려졌다.

어느 날 왕자가 직접 그들을 찾아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많은 음식을 차려줬다.

세월이 흐르고 날이 지나면서 이곳에 일어난 군사들의 사기가 시들시들해질 무렵, 역수같은 비를 맞으며 흙 범벅이 돼 싸우는 그들 앞에 다시 왕자가 찾아왔다.

초라하게 비를 맞고 있는 왕자를 보며 한 아이가 “왕자님 기운 차리세요”라고 말하자 왕자가 “나는 그대들을 믿노라. 그대들만을 믿노라”하며 손짓함으로 아이들은 왕자의 손짓대로 몽둥이를 들고 성안으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왕자를 지키는 용맹스런 부하가 됐다.

왕자의 군대는 잘 싸웠으나 서로 의견이 달라서 끝내는 왕자만 외롭게 남았다.

싸움터에 나간 사람들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며 성안은 점점 텅 비어 갔다. 성안 사람들은 성을 비우면서 몰래 피난을 갔고 마을엔 나당군이 쳐들어왔다.

왕자는 갯가로 가면서 군사를 불렀고 왕자를 지키던 아이들은 성을 지키라는 왕자의 본부대로 성벽에 올라서 싸우기 시작했다.

나당군은 무수하게 쳐들어오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성안이 적에게 포위되었음을 눈치 채고 쏠살같이 성을 빠져 나왔다.

어느덧 해가 지고 그들은 아랫녘에서 밥을 먹은 후 야습을 하기 시작했으며 지형을 잘 아는 탓에 마치 성난 호랑이와 같이 적진지로 들어가 싸울 수 있었다. 얼마동안 싸우다 후퇴한 그들은 건지산을 거쳐 동자북 뒷산을 올랐는데 그들이 산에 올랐을 때는 대부분이 죽고 부상 당해 있었다.

그들은 그곳이 자신들이 죽을 자리라고 생각하며 흙을 파고 돌아 놓아 벽을 쌓았다.

동이 트자 그들은 옷을 가볍게 동여매고 앞을 바라봤다.

적이 새벽부터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적이 가까이 오자 “북을 쳐라 적이다”하고 한 소년이 소리쳤다.

부상당한 소년들도 창칼을 들고 맞서 싸웠다.

북소리는 요란하게 울려 퍼져 곳곳에선 아우성과 신음소리가 들렸고 해가 뜨면서 북소리도 멈췄다.

마지막 남은 열아홉 명의 동자들이 북소리와 함께 모두 전사한 것이다.

싸움이 끝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역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천둥과 번개가 치자 모진 바람도 불기 시작했다.

바람과 빗소리, 천둥소리 가운데서 산의 모양이 점차 변해갔다.

열아홉 명의 시체는 자연스럽게 땅속에 묻히게 됐으며 시체가 모두 묻혔을 때 북소리와 빗소리도 멈췄다.

이렇게 해서 주류성의 어린 동자 열아홉 명은 땅에 묻혔다.

그 후 비가 내리는 날에는 땅속에서 동자들의 북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남이흥장군 묘

남이흥장군 일가 유품

- 지정번호 : 중요민속자료 제21호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273
- 지정일 : 1970년 12월 19일(1차 지정), 2004년 9월 25일(추가 지정)
- 시대 : 16세기 말 ~ 17세기 초
- 지정내용 : 복식 8점, 고문서 13점, 영정 1점, 기타 16점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는 의령남씨 충장공파 400년의 터전이다.

도이리가 남이흥 장군가의 터전이 되는 것은 장군의 증조인 참판공 남세건(南世健)이 1536년(중종 30)에 충청관찰사로 관내를 순시하다가 이곳을 자손들이 대대로 살 곳으로 점지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온다.

그 후 2자인 이요당(二樂堂) 남응룡(南應龍)이 휴양지로 삼아 자주 왕래하였고, 그 후에는 이 일대의 13개 마을이 남유, 남이흥 부자의 사패지(賜牌地)로 하사되면서 충장공의 장자 의풍군(宜豐君) 남두극(南斗極)이 귀향 정착하였다. 그리하여 당진 대호지의 의령남씨를 도리섬 남씨라 부르게 되었다.

1971년에는 의천군 남유장군과 남이흥장군 묘소를 성남사에서 대호지면 도이리 충장사 옆으로 천

묘하고, 1981년 모충관(유물관)을 건립하였으며, 1984년에는 충장공 묘역 일원이 충청남도 지정문화재(기념물 52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도이리에는 남유, 남이흥장군 양세정려(兩世旌閭)와 충장사(忠壯祠), 종택인 수종재(守宗齋), 그리고 묘소와 신도비 등의 유적이 있다.

남이흥장군의 유품은 일부가 1970년에 문화관광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전적류와 생활용품, 출토복식 등은 2004년 추가 지정되었다. 유품 가운데에는 남이흥장군이 직접 사용하던 것과 선대 및 후대에 걸친 다수의 생활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지정명칭을 '남이흥장군 유품'에서 '남이흥장군 일가 유품'으로 변경하였다.

- 1) 녹피방령포(16세기말~17세기초) : 녹피방령포는 지정당시 구의(裘衣)로 명명되어 있었다. 방령포는 사슴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길이가 길고 장수(長袖)이며 깃의 형태는 좌우대칭 대금형 이중 방령 깃이다. 이중깃과 썸 사이에는 맛깃형태로 이중의 바대가 곧게 썸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길이143cm, 화장120cm, 품53cm)
- 2) 녹피바지(16세기말~17세기초) : 녹피바지는 사복바지로 원통형의 허리부분과 좌우 마루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쪽 마루폭 사이에는 큰 사복과 작은 사복이 놓여있다. 허리통 왼쪽의 이음선은 감침질로 바느질되었고 이음선 위쪽에는 고리가 달려있다. (길이112.5cm, 허리둘레120cm)
- 3) 보문단 견답호(16세기말~17세기초) : 이팔의 난을 평정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인조(仁祖)가 입었던 곤룡포를 벗어준 것이라고 전해진다.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던 것을 보수 바탕 천을 덧대어 형태를 잡아 보존처리한 상태다. 지정당시에는 '대례복'이라고 명명하였으나, 1991년에 '답호'로 문화재명칭을 변경하였다. (길이122cm, 화장19cm, 품41.8cm)
- 4) 급제교지(及第敎旨, 1602년, 68×82cm, 1매) : 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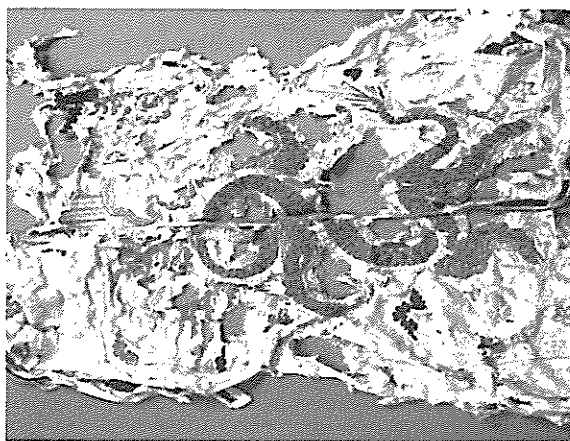


남이흥 장군 초상화

년(만력 30년) 충의위 남이흥이 무과 병과 제5인으로 급제하였음을 알려주는 급제교지

5) 교서(敎書, 1622년, 202×83cm, 1매) : 남이흥이 안주목사 겸 방어사로 재임할 때에 내려진 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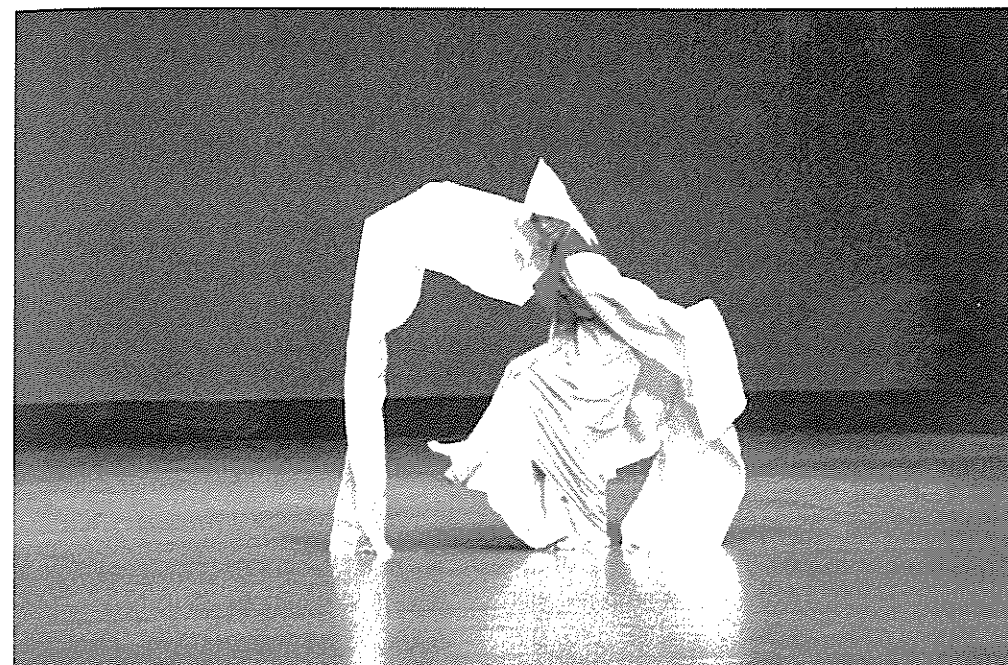
6) 진무공신교서(振武功臣敎書, 1625년, 201×35cm, 1매) :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남이흥에게 진무일등공신의 훈록이 가해진 공신교서로 남이흥은 장만, 정충신과 함께 1등에 훈록되어 있다. (2등 9명, 3등 20명).



남이흥장군 유품

7) 추증교지(追贈敎旨, 1627년, 65×101cm, 1매) : 안주에서 남이흥이 순절한 직후 내려지는 추증교지로 증직은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 영경연사 의춘부원군”이다. 교지 년기 뒤에 전몰인을 포상하라는 전교에 따른 것이라는 주기가 있다.

8) 화회문기(和會文記, 142×50cm, 1매) : 1608년의 재산 상속문서인 화회문기는 남유(남이흥의 부) 처 유씨가 친정에게 분재받은 재산을 기록한 문서로 이 문서는 1591년에 분재한 재산이 임진왜란으로 분산되자 당초의 분재문기를 모아 다시 3자매가 화회 분재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승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

1. 개설 및 전승계보

승무는 우리나라 전통무용 가운데 그의 짜임새나 예술성으로 해서 단연 으뜸으로 손꼽히는 것이다.

국가에서 지정한 승무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7호로 예능보유자는 이매방, 이매주, 정재만이 있으며, 지방문화재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살풀이 승무의 예능보유자 김복연이 있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의 예능보유자는 심화영이 인정되어 있다.

위의 다섯 사람 예능보유자 가운데 심화영이 92세로 연령도 가장 높으려니와 그의 내용으로 보아도 가장 고품의 승무를 전승하고 있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심화영의 가문은 충청남도 서산에서 세습적 예능인의 가통을 이어오고 있다. 할아버지 되는 심팔록(沈八祿) 역시 다양한 기예를 갖춘 예능인이었다 하며 그는 3남 1녀를 두었는데, 심창래(沈昌來)

와 심정순(沈正淳) 그리고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아들과 딸이 있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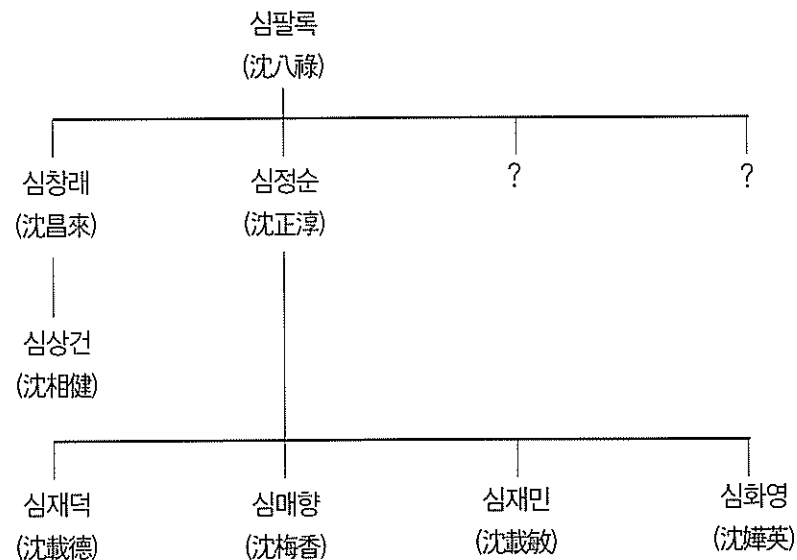
심창래의 아들 심상건(沈相健, 1889~1965)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심화영의 집에서 자라면서 가통을 이어 뒤에 가야금의 명인이 되었다. 심화영의 아버지 심정순(본명 :春禧 1873~1937)은 중고제 판소리의 명인이자 가야금 병창과 연주에 탁월했으며 39세 때 서울로 올라가 서산과 인접한 홍성출신의 한성준(韓成俊 1874~1941)과 함께 중앙 무대에서 지도적 활약을 했다.

환갑 전 중풍에 걸린 심정순은 낙향하여 큰 아들 심재덕(沈載德, 1899~1967)과 함께 낙원식당을 경영하면서 투병을 하던중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낙원식당은 이름난 많은 예능인들이 자주 들러 율방으로 널리 알려졌다 한다.

심정순은 2남 2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 심재덕은 심화영에게는 아버지같은 존재로 성장과정의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심재덕은 가야금 산조의 달인이자 그 밖의 전통악기와 춤에까지 실기와 이론에 조예가 깊어 뒤에 이화여대에 출강하기도 했다. 지금도 그를 기억하는 국악계의 원로들은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예술가적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큰 언니 심매향(沈梅香, 본명 蕙英 1907~1929)은 아버지를 따라 서울의 작은 어머니 집에서 성장하므로써 심화영과는 오랜 동안 떨어져 살았고 아버지에게 판소리를 배워 서울에서 명성을 얻으나 20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다. 현재 심화영이 간직해 온 심매향의 '승무 가사'를 조교 이애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작은 아들 심재민(沈載敏, 1909~)도 예능인으로써의 소양이 풍부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제에 강제 징용되어 남양군도 어디에선가 전사했다 한다.



심화영

여기서 다시 심화영이 가통의 물림으로, 특히 오빠인 심재덕 으로부터 이어받은 전통예인으로서의 전승계보와 함께 그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심화영은 1913년 8월 4일 탑골공원 근처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태어나 4살 되던 해에 충청남도 온양의 '황등'으로 이사를 했고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글방을 다니면서 글을 익혔는데 2살 아래인 조카딸 심태산과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광대의 딸이라 놀림을 받아 항상 둘이서만 따로 놀아야 했었다고 한다.

14세가 되던 해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가서 이화학당을 1년 정도 다녔는데 그 후 다시 1년 만에 황등으로 되돌아 오게되니 아마도 당시 집안 사정이 아주 어려웠던 것으로 심화영은 회고하고 있다.

17세 무렵 집안끼리 가까이 지내오는 한성준덕에서 머리를 삼갔다고 청이 왔으나 같은 광대집안이라 세상 팔세가 싫어서 그만 두기로 하고 '수양아버지', '수양 딸'을 맺어 양가의 친분을 유지했다 한다.

18살 무렵 고향인 서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곳에서 큰 오빠에게 본격적으로 악·가·무를 두루 익히게 되었다. 처음에 양금을 한 밤중 몰래 배우기 시작하면서 예술세계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론 풍류 한판을 모두 배웠고, 다음으로는 시조를 배웠다. 시조를 배우게 된 동기는 창을 배우기 전에 기본기처럼 익혀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큰 오빠는 율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곳을 출입했던 관속들에게도 시조를 배웠고 또 집 가까운 곳에 있었던 '뒷절'에 가서 남몰래 배우기도 했다.

큰 오빠는 생활에 도움이 될까하여 '낙원식당'을 차렸는데 전국의 이름난 예인들이 하도 많이 출입을 하여 이름 그대로 풍류객의 낙원이었다.

이 무렵 가야금, 판소리, 민요, 승무 등을 본격적으로 닦게 되었다.

승무는 한성준 선생과 동년배로 춘선생으로 이름난 '방씨'에게 한 달 정도 배웠고 마무리는 큰 오빠가 정리해 줬다. 항상 마무리는 오빠의 몫이었다 한다.

심화영의 승무는 방안이나 마당에 명석을 깔고 춘 그야말로 소박한 고향의 승무로 분류되고 있다.

반주는 통소, 거문고, 해금, 장고(심재덕)등으로 연주되었고, 북을 칠 때는 두 명의 남자가 때 맞춰 슬그머니 북을 들고 나와 서 있었다 한다. 당시 북들은 없었다 한다.

심화영이 20세가 되면서 이옥화라는 사람의 소개로 청진으로 가게되는데 청진권번에서 서도민요를 배워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다. 어디를 가든지 심화영의 장고솜씨는 인정을 받았다.

청진권번시절 품행이 남달라 손님들도 함부로 못했다 한다. 이 무렵 '수해기금모금 공연'도 있었는데 약사가 없어 승무는 못하고 심화영이 판소리 춘향전을 부르며 춘향이, 이도령, 변학도로 분장한 춤꾼이 나와 무용극을 했다

1945년 해방직전 진남포 권번의 선생으로 있었던 큰 오빠와 함께 기차를 타고 월남했는데 오빠는 서울에 정착하고 심화영은 서산으로 귀향했다. 귀향 후 33세의 나이로 동갑내기 송운석(당시 상쇠로 활동)과 결혼하여 3남 2녀를 두면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 때는 '우리 식당'을 운영하여 예능을 잠시 그만둔 적도 있다.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런 타계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져 동네 부녀들을 대상으로 소리와 춤을 가르쳐 생활에 보태기도 했다.

그러던 중 전통예술계의 학자들이 판소리 종고제의 마지막 꽃이었던 심정순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 하면서 자연히 그의 따님인 심화영을 찾게 되었고 다행히도 그가 종고제 판소리의 가냘픈 맥을 잇고 있음과 그 만의 고향 승무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쓸쓸했던 서산의 심화영덕은 방문객으로 붐비기 시작했다. 종고제 판소리에 대한 관심에서 심화영류 승무에까지 모두가 학문적으로 실기면에서 고구의 대상이 되었다.

뒤늦게나마 심화영류의 승무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로 2000년 1월 11일 지정이 되었고 그의 예능보유자로 심화영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

현재 조교 이애리를 비롯하여 한대수, 엄정자 등 10여명의 전수생에게 심화영은 노구를 무릎쓰고 열성스럽게 전수교육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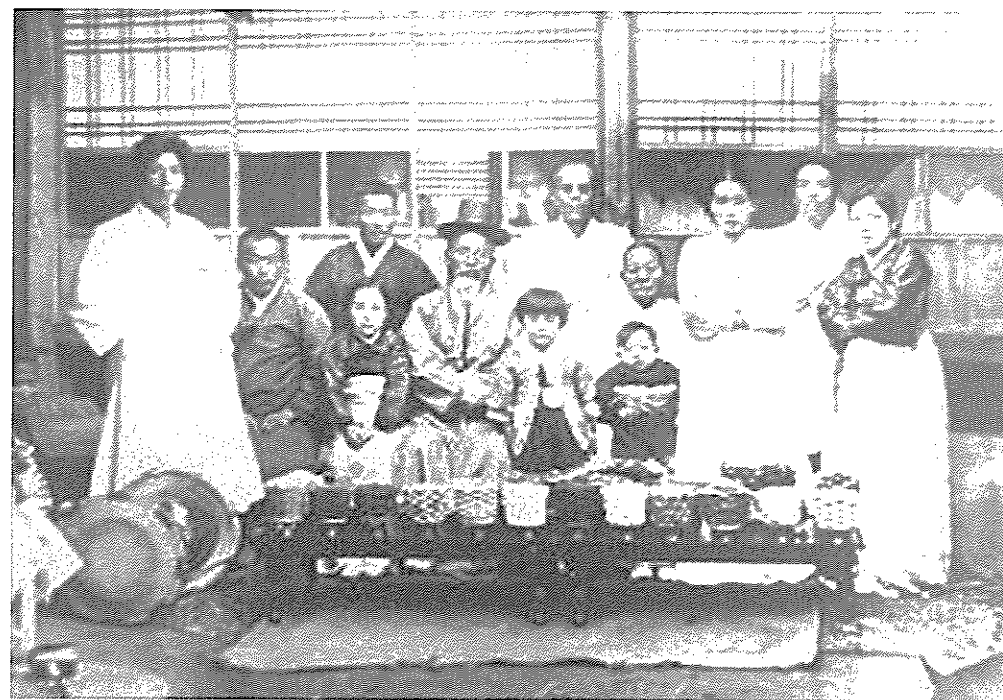
2. 심화영류 승무의 내용

(1) 특징

심화영류 승무는 요즘 일반적으로 추어지는 승무와는 달리 꾸밈없이 간결하다. 또한 춤은 몸에서 나와야 하고 손은 항상 발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발을 들어 올릴 때는 뒷꿈치를 쓸어 버선코가 살짝 보이도록 해야 하며, 팔 또한 삭신이 다 놀면서 흥을 타고 저절로 나와야 한다고 한다.

또 호흡으로 추는 춤은 제 맛을 내지 못한다. 요즘 춤을 보면 호흡으로 흔히 추는데 호흡으로 추면 자연스



심화영 일가

럽지 못하고 형식에 억매어져 제 맛을 내지 못한다.

역시 춤은 느린데서 멋이 있는 것이지 요즘처럼 빠르기만 하다보면 흥이 없다고 한다.

대개의 승무가 엷드려서 시작을 하지만 그의 승무는 서서 시작을 한다. 다른 승무들이 서구식 무대화 되어서 잔 기교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의 승무는 꾸밈없이 간결하다.

한편 빠른 동작을 절제하며 마음속의 정감이 춤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틀에 갇힌 형식을 배제한다.

심화영류의 승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스런 몸놀림에 있다. 그의 춤사위는 손과 발이 몸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그의 가르침은 우리 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추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심화영류 승무의 특징을 그 속에서 읽게 된다.

(2) 춤 옷

심화영은 남색 치마에 미색 저고리, 자주 고름을 '예복'이라 한다.

보통 흰색이나 분홍색 저고리를 입는데, 심화영은 미색 저고리를 고집한다.



장삼도 요즘엔 흰 색을 많이 입지만 예전에는 검정색을 주로 입었다고 한다. 장삼의 길어도 지금은 예전보다 길어 졌다며 예전 것과 같은 짧은 것으로 입고 있다.

검은 장삼에 흰 고깔, 홍띠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남색 치마를 입도록 오라버니(삼재덕)께 배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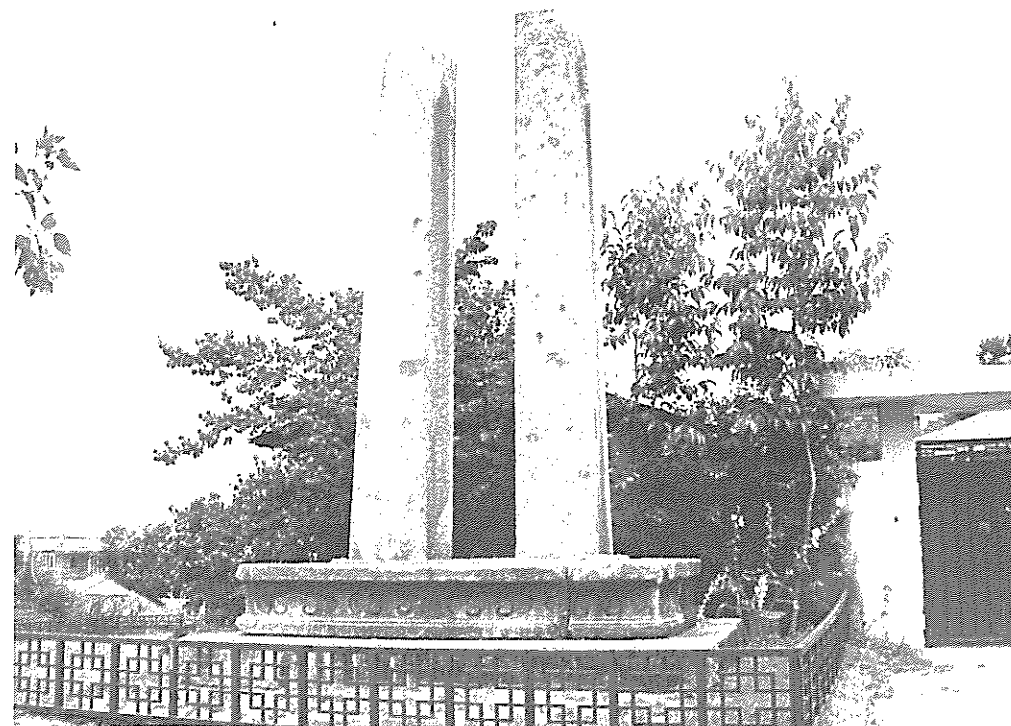
(3) 춤 음악

심화영류 승무의 장단은 염불, 자진 염불, 타령, 자진 타령, 굿거리, 북치는 가락, 굿거리의 순서로 짜여진다.

반주악기는 옛날에는 통소, 거문고, 해금, 장고가 동원되었었다 하나 지금은 피리, 대금, 해금, 장고(삼현육각)로 편성되고 있다.

(4) 북놀이

북놀이에서 북치는 법은 원박으로 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장단과 장단 사이에 무수한 엇박을 친다.



천흥사지당간지주(天興寺址幢竿支柱)

- 지정번호 : 보물제99호
- 지정일자 : 1963.1.21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234
- 수 량 : 1기(基)
- 소 유 자 : 국유
- 규 모 : 전체높이 500cm
- 재 료 : 화강암
- 시 대 : 고려시대

성거산 천흥리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천흥사지 오층석탑과 한동네에 있다.

이 일대에서 천흥사명(天興寺銘)의 외편(瓦片)이 출토되어 이 일대가 천흥사지임을 알게 하고 있다.

이 지주는 당시의 유물이며 원위치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간지주(幢竿支柱)는 60cm의 간격으로 두 개의 지주가 동서로 상면해 있고 원래 2층기단(基壇) 위에 당간과 지주를 받고 있었으나 기단은 파괴되어 흩어지고 간대석(竿臺石)도 흩어져 있다.
 기단전후 측면에 안상(眼象)이 새겨 있는데 그 수법이 정교하다.
 기단의 구성석재가 몇매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4매 이상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두 개 지주의 아래는 하단에서 70cm까지가 기단부에 묻히는 부분으로 생각되며 치석(治石)은 하였으나 연마하지 않은 선이 나타나 있고 상면은 평평하며 아무런 조식(彫飾)이 없고 각 측면은 위 아래의 굽이 각출되어 그 사이에는 안상(眼象)이 음각되어 있다.
 두 개 지주의 안쪽면은 소각(素刻)이며 상단에 간(竿)을 장치했던 장방형의 간구(竿溝)가 있고 간단하게 상단에서 하부까지 중앙에 일조종선(一條縱線)을 양각하였다.
 이 종선문(縱線紋)의 단면은 호형(弧形)이고 양측에는 보조종선(補助縱線)이 세각(細刻)되어 있다.
 두 지주는 앞뒤에서 보면 지주의 상부가 약간 꺾여 나가서 좁아진 돌기(突起)같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식을 종합해보면 통일신라시대에 조성한 금산사 당간지주(金山寺幢竿支柱)나 갑사의 철당간지주(鐵幢竿支柱)의 기단부 양식에서 보듯이 양식수법이 통일신라시대로 보여지기는 하나 어느정도 시대가 흐른 퇴화된 수법으로 고려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천흥사지오층석탑(天興寺址五層石塔)

- 지정번호 : 보물제354호
- 지정일자 : 1963.1.21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190
- 수 량 : 17(基)
- 소 유 자 : 국유
- 규 모 : 전체높이 527cm
- 재 료 : 화강암
- 시 대 : 고려시대

성거산 천흥리 마을 한 가운데에는 당간지주(幢竿支柱)가 보물 제99호로 지정되어 있고 300m 거리에 인가가 없는 경지에 이 석탑만이 남아있다.

이 석탑은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양식을 보이는 5층석탑으로 신라식 석탑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

어진 것 같다.

지대석(地臺石) 위에 4매로 구성된 하층기단(下層基壇)이 있고 하중대석(下中臺石)갑석(甲石)이 모두 한돌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하층기단은 매우 얇고 중석(中石)에는 한면에 7좌(座)식의 작은 안상(眼象)을 촘촘히 조각하고 밑에 하대는 낮고 좁으며 위의 갑석(甲石)도 두출(斗出)이 약하고 상면에는 완만한 경사를 둔 가운데 각형(角形)과 호형(弧形)의 낮은 괴임이 있어 상부를 받고 있다.

상층기단 중석(中石)은 각면에 1매씩 4매 구성으로 4우주(隅柱)가 있을 뿐이다.

갑석(甲石)은 2매 판석으로 밑에는 소로형의 받침이 각출되고 상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나 우각(隅角)에서 극히 미세한 반전(反轉)을 보이고 있다.

옥개(屋蓋) 받침은 매우 낮으며 낙수면(落水面)은 정상에서 경사(傾斜)가 있어 전각(轉角)의 반전(反轉)이 큰 편이고 상륜부(相輪部)는 없다.

이 탑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단에 안상(眼象)이 조각된 점이라든지 상대갑석(上臺甲石)의 모양과 옥신(屋身)괴임이 배려된 점 옥개(屋蓋)의 낙수면(落水面)이 단축된 점 전각(轉角)의 곡선율이 크며 추녀받침이 알개 조각된 점 등이라고 할 것이다.

이 석탑은 하층 기단부에서 약식화된 구조를 볼 수 있으나 이 이외에는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966년 해체복원시 부근에서 5층 옥개석(屋蓋石)이 발견되어 복원하였다.

초층옥신(初層屋身)속을 갑석을 채운다음 한 변 41cm 높이 22.7cm의 방형석(方形石)을 그 상면에 놓아 상부가 옥개석에 밀착되도록 하였고 상면에 일변15cm 깊이12cm의 방형사리공(方形舍利孔)이 있었으나 내용물은 도실(盜失)되었다.

한편 이곳에서 국보 제280호인 「성거산천흥사동중」이 출토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보관되고 있다.



비암사에서 출토된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

- 지정별 : 국보 제 106호
- 시 대 : 673년(통일신라)
- 크 기 : 총 높이 40.3cm
- 소재지 : 원재 - 전의면 다방리 비암사
현재 - 국립 청주박물관

1960년 비암사(碑岩寺)에서 발견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불상은 국보 제106호로 지정되어 있다. 앞면 하단에서 측면, 뒷면에 이르기까지 비상을 조성하고 연대를 비롯하여 발원

자 등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 통일신라시대 초기 불상양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앞면은 윗부분에 비해 아랫부분의 너비가 약간 넓은데, 가장자리를 따라서 감실형의 테두리를 새기고 그 안을 한 단 낮게 하여 상단에는 커다란 이중의 주형광배(周形光背)를 조각하였다. 광배 좌우에는 각가주악천(奏樂天)을 배치하였으며, 가운데 아미타불삼존상과 그 권속들을 조각하였다. 본존은 복련(復蓮)의 연화좌 위의 방형 대좌에 결가부좌하였고, 협시보살과 인왕(仁王)·나한(羅漢)들이 협시하고 있다. 얼굴부분은 마멸되어 확실치 않으나, 머리 위에 육계가 높이 솟아 전체적으로 가름한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신체는 건장하며 안정된 자세를 이루고 있는데, 시무외인(施無畏印)·여원인(與願印)을 짓고 있는 두 손은 비교적 크게 표현되어 삼국시대 이래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슴 부근에서 여러 겹의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흘러내리고 있는 통견의 법의는 무릎 아래에서 이중의 ㄱ형의 주름을 이루며 방형대좌를 거의 덮어 내렸는데, 옷 주름이 두꺼워 신체의 굴곡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두광은 원형으로 세 줄의 동심원 안에 연꽃을 배치하고 가장자리를 화문(花紋)과 연주문(蓮珠紋)으로 장식하였다.

협시보살상은 본존 쪽으로 몸을 약간 튼 자세로 연화좌 위에서 있는데 삼국시대의 엄격한 정면 직립의 자세에서는 벗어났으나 아직 통일신라시대의 삼곡(三曲) 자세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형태이다. 머리에는 연꽃을 돌린 간단한 원형 광배를 두르고 있으며, 마멸이 심하여 자세하지는 않으나 보관(寶冠)을 쓰고 있는 듯 하다. 목에는 기다란 영락(瓔珞)을 두르고 있고 천의는 무릎부근에서 X자형으로 교차되었다. 한 손은 들어올려 가슴 근처에서 보주를 들고 있으며, 다른 한 손은 내려 정병(淨瓶)을 잡고 있다. 이 협시보살상 아래에는 견고 있는 형태의 사자 두 마리가 조각되어 있다. 보살상 좌우에있는 인왕상 또한 본존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있는데 왼쪽의 인왕상은 왼손에 긴 창을 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인왕상은 당시의 인왕표현과는 달리 갑옷을 입은 모습이며, 허리에는 X자형으로 교차되는 영락 또한 특이하다. 나한상은 모두 4구로서 상체부분만 조금 보이고 있어 보살상이나 인왕상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음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불상위로는 거대한 이중의 주형광배가 조각되어 있다. 화염형(火焰形)의 연주문으로 광배를 2분하였는데, 내부에는 연화좌에 결가부좌한 화불 5구를 조각하고, 보존의 두광 바로 위에 커다랗게 보주를 새겨 놓았다. 외부에는 좌우 각 4구의 비천(飛天)을 새기고, 중앙에는 머리 위로 궁전형을 받들고 있는 좌상 1구를 배치하였다. 광배 밖, 즉 비상의 최상부 좌우에는 천궁(天宮)을 받들고 비약하는 천인을 조각하였다. 옆면은 주악천과 용이 새겨져 있는데, 주악상은 악기를 연주하는 동작이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되었고, 용은 비록 상체만 남아 있으나 용솟음치는 세부동작이 충실히 묘사되었다. 뒷면은 4단으로 구획하여 각 단마다 연화좌에 결가부좌한 불상을 5구씩 병렬하여 조각하였는데, 각 불상 사이사이에 이 비상을 발원한 인명과 관등을 새겼다.



광경사지당간지주 (廣景寺址幢竿支住)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 지정사항 : 보물 제 538호
- 시대 : 고려
- 유적내용

광경사지(廣景寺址) 당간지주(幢竿支住)는 현재 홍성읍 오관리 과수원에조합에서 북동쪽으로 약 30m의 거리에 홍성천 제방 옆에 위치한다. 78cm의 간격을 두고 동서 양쪽에 마주선 지주(支住)와 별석(別石)의 간대(竿臺)가 남아있다.

재질은 화강암으로 정교하게 다듬었다. 지주는 밑변 70cm x 높이 480cm로 정남향을 하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바깥쪽이 좁아져 고형(孤形)을 이룬다. 지주의 안쪽은 맨 위에 간구(杆溝)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장식이 없다. 그러나 바깥면은 중앙에 2줄의 종대(從帶 : 세로줄)가 돌을 새김으로 되어 있으며, 양 측면은 ㄷ자형이 되도록 바깥 부분을 세로로 약간 양각하였다. 1매로 된 간대석(竿臺石)은 정면 60cm, 측면 100cm의 크기로, 중앙에는 지름 30cm, 깊이 6cm의 간공(竿孔)이 시설되어 있어 당간(幢竿)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당당하고 함차 보이는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홍성여중 안으로 옮겨진 3층석탑과 함께 광경사의 옛모습을 짐작케 해 준다.

- 참고문헌 : <문화유적총람>, 사찰, 충청남도편.



제28회 금산인삼축제

□ 행사개요

- 축제명 : 제28회 금산인삼축제
- 기간 : 2008년 8월 29일(금) ~ 9월 7일(일) 10일간
- 장소 :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 주제 :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
- 슬로건 : 파워풀 인삼, 뷰티풀 금산
- 주최 : 금산인삼선양위원회
- 주관 : 금산인삼축제집행위원회
- 주요내용 : 체험, 전시, 경연, 공연 등 42개 종목



The 28th Geumsan

Insam Festival



□ 총 평

- 제28회 금산인삼축제는 관광객 총97만6천명, 경제적파급 효과 801억원, 100억원 상당의 홍보효과를 창출해낸 성 공적인 축제로 평가되었음
- 인삼약초, 건강, 문화가 어우러진 국내최대의 건강문화 축제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음
 - 금산인삼관, 인삼캐기여행, 건강체험, 인삼민속촌, 인삼 족욕, 인삼병만들어가기, 인삼약초요리만들어먹기 등 철저한 인삼 테마반영으로 타 축제와 차별화를 이뤄냈음
 - 건강체험관운영, 장금이 금산수라간, 인삼캐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신설 및 강화로 관광객 만족도를 상승시켰음
- 다각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축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국제교류 및 국제 홍보프로그램 강화로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유치하였음
 - 홍보전문가영입, 기업홍보마케팅, 지역타겟별매체홍보 등
 - 외국인 축구동호인대회, 세계다큐채널 디스커버리 취재, 외신기자단 방문, LA교포단 방문
- 전문바이어 초청 국제인삼교역전 개최로 인삼약초 수출 촉진 및 산업형 문화관광축제 역할 강화하였음
- 지역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였음
 - 자원봉사자들의 사전전문교육과 기존에 축척된 노하우로 안내서비스 업그레이드

- 읍면의날행사, 금산전통민속공연, 금산인삼문화예술제등 지역민 주체 공연
- 어린이,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강화로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하는 계기마련
- 인삼포럼 부스, 주제관, 종합안내소, 대형인삼상징물 등 축제시설물의 고품격화가 이루어졌음
-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과 노점상 및 외지상인들의 서비스 질 저하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임

□ 축제 참가 현황(관광객)

(단위 : 명)

계	내국인	외국인	비고
976,700	969,500	7,200	

□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천원)

계	특산품 판매	기타 경제효과	비고
80,134	64,481	15,653	

※ 관광객 1인 1일 소비액 : 74,570 원 추정

□ 항목별 분석

① 주민참여

○ 잘 된 점



- 축제기간(10일) 중 읍·면의 날 행사시 거리퍼레이드와 자체공연, 전통민속공연, 금산인삼문화 예술제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 자원봉사자(31개 단체 2,500여명) 사전전문교육 및 축척된 노하우로 안내서비스 업그레이드
- 개선할 점
- 시장상인들의 자발적인 축제 참여와 고객위주의 서비스 위한 인식전환 필요
- ② 홍보 및 안내
- 잘 된 점
- 버스랩핑홍보, 대도시 전광판홍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 개발, 농협, BC카드, 선양소주, (주)농심 등 기업과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축제노출 극대화, 광고금액 환산시 100억원 이상의 홍보효과 거양
- 개선할 점
- 단계별 홍보전략 조기수립으로 홍보시기 앞당겨 추진
- ③ 운영·행사 진행
- 잘 된 점
- 주무대와 거리공연 등 시간대별 지속적인 공연으로 축제 흥미성 제고
- 대형인삼조형물부터 인삼파워존까지 안정된 동선 구성 축제 집중도 강화
- 개선할 점
- 주차공간부족으로 관광객 불편 초래

- 외지상인부스가 축제진입로에 위치해있어 축제이미지 저하

- 관광객 휴게 공간 부족

④ 축제 프로그램

○ 잘 된 점

- 건강체험관, 인삼캐기체험 등 체험프로그램 강화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장금이 금산수라간, 인삼민속촌, 금산전통민속공연 등 전통 프로그램 강화

- 야간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체류 및 볼거리 제공

○ 개선할 점

- 행사 공연시간이 겹치는 사례 발생, 원활한 사전조율

⑤ 음식 및 특산물 판매

○ 잘 된 점

- 국제인삼교역전을 통한 우수인삼약초제품 구입

- 인삼·약초 특색음식을 인삼축제장에 오시는 손님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개선할 점

- 어린이, 외국인을 위한 음식 메뉴 부족

체험 현장



⑥ 관광객 수용 태세(외국인 포함)

○ 잘 된 점

- 안내홍보물 및 안내표지판등 설치가 잘 되어 정보제공 용이

- 자원봉사자 및 문화관광해설사, 통역요원들의 체계적 배치로 안내서비스 질 향상

- 국제스포츠경기, USO, SIWA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 문제점(총괄)

○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 초래

○ 중장년층 선호음식 대부분 어린이·청소년 위한 메뉴 부족

○ 햇빛을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 부족

○ 축제진입로에 외지상인부스 축제 이미지 저하

□ 대 책

○ 사유지 임차등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 확보 방안 강구

○ 어린이 청소년층을 겨냥한 다양한 음식메뉴 개발

○ 소형 및 대형 휴게 공간 마련으로 행사장 체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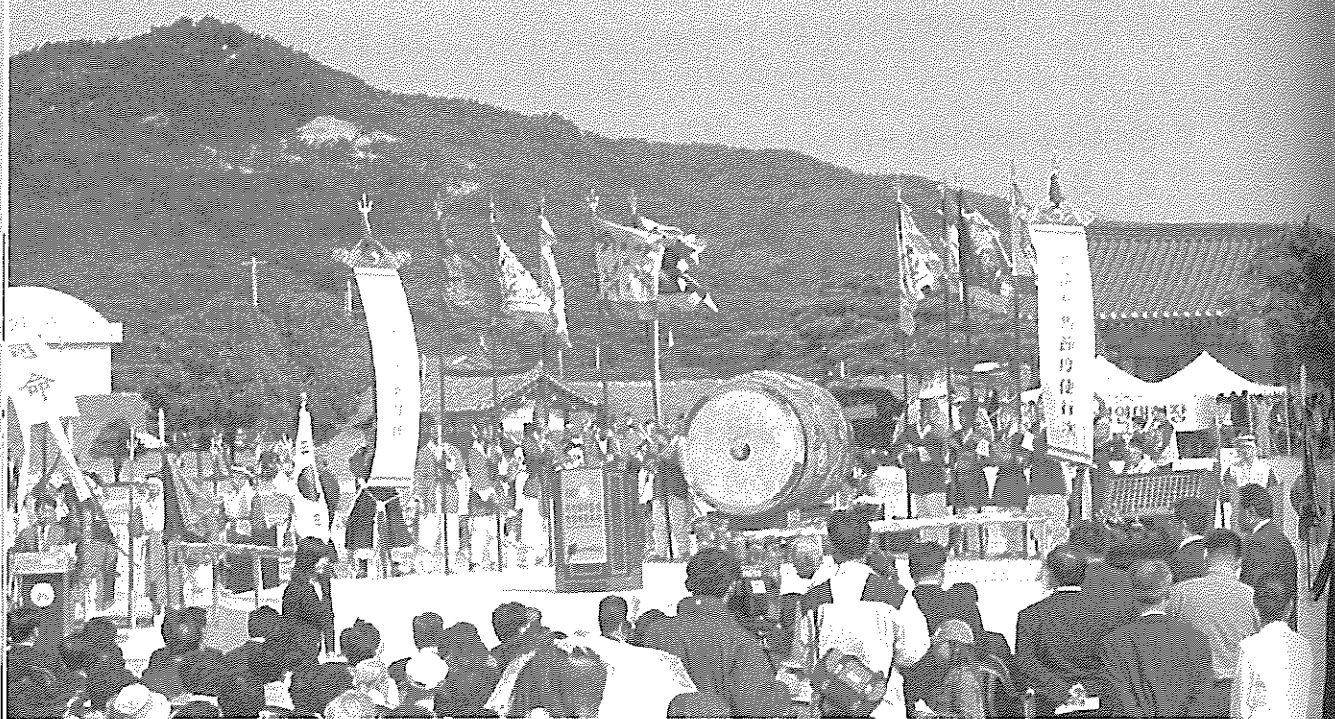
○ 사유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를 거쳐 주차장 또는 행사부스로 활용

□ 수범사례

○ 금산군 문화관광해설사로 근무했던 김지희씨가 미국LA 어학연수 중 현지 아웃바운드여행사와 함께 금산인삼축제상품을 구성하는데 교각역할을 하여 LA해외동포 100여명이 추석을 앞두고 금산인삼축제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해외홍보마케팅이 적중하는 사례를 보였음

○ 금산군 자원봉사 31개 단체, 2,500여명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자원봉사의 힘을 보여줬음. 청소, 안내, 급수, 교통, 행사지원 등 전 분야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운동을 기반으로 철저한 사전교육 및 28회를 이어온 노하우와 역량으로 인삼축제를 성공축제로 이뤄내는 데 큰 힘을 발휘했음

○ 세계적 다큐멘터리제작채널 '디스커버리'가 금산인삼축제를 3일간 촬영하였다. 인삼과 인삼을 활용한 음식을 집중 조명한 이번 촬영분은 09년 4월 전 세계170개국 디스커버리채널로 방영하게 되어 축제와 인삼의 세계화에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



제2회 온양온천문화예술제

- 축제명칭 : 제2회 온양온천 문화예술제
- 행사기간 : 2008.10.2(목)~10.4(토)
- 행 사 장 : 신정호국민관광단지
- 주 최 : 온양문화원, 한국예총아산지부
- 행사개요

온양온천문화예술제는 매년 10월에 개최하던 전통문화축제인 맹정승축제, 온궁행렬과 순수예술제인 설화예술제를 통합하여 축제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기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민 및 관광객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제이다. 축제 관계자는 "올 예술제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안정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의미를 두고 개최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시민참여형 예술제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행사 일정
- 10월 2일(목) : [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



- 나무곤충, 천연비누만들기, 천연염색, 페이스페인팅
- 풍선아트, 다도, 짚풀공예, 선물포장, 맹정승어묵싸주기 등
- [맹정승 "골든벨을 울려라"]
- [온궁행렬 거리 퍼레이드]
- [식전행사]
- 시립합창단공연, 맹정승판소리, 경기민요, 맹정승퍼포먼스
- [개막식]
- [연예인 초청 축하공연]
- [온궁의상 패션쇼]
- [맹사성 창극]
- [불꽃놀이]

- 10월 3일(금) : [학생음악콩크르]
- [풍물경연대회, 미술경연대회]
- [설화문학 출판기념회, 시민백일장]
- [사진협회 회원전]
- [청소년 페스티벌]
- [설화국악 한마당]
- [설화무용제]
- [온천연못 판타지 및 인물퍼포먼스]
- [타악퍼포먼스]

- 10월 4일(토) : [사진협회 회원전]
- [연예협회 축하공연 및 아산시민 가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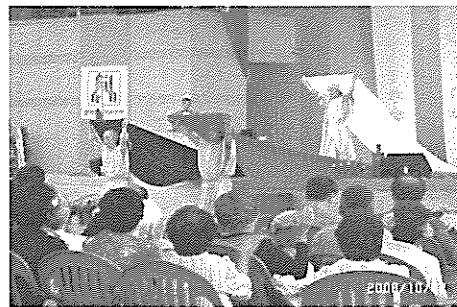
[마임이스트 공연]
[설화예술제기념공연]
-아산시교향악단 공연 등
[폐막식]
-불꽃놀이
[록페스티벌]

· 행사 설명
□ 맹정승축제

청백리로 유명한 아산 출신의 맹정승인 맹사성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고 청백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맹사시어 추모일인 10월 11일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온양온천문화예술제에서는 관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맹정승 골든벨을 올려라가 많은 호응속에 열린다. 식전행사로 맹정승 퍼포먼스가 서막을 알리고 개막식에서는 맹사성축제의 백미인 청백리 및 어린이 맹사성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본 행사에 앞서 온양문화원에서는 9월 20일(토) 청백리 및 어린이 맹사성선발대회를 실시해 아산의 인물을 선정한 바 있다. 예술제를 축하하는 이벤트공연으로는 궁중의상패션쇼와 맹사성을 주제로 하는 '맹사성 창극'이 볼거리를 제공한다.



맹정승 골든벨을 올려라



맹정승 퍼포먼스

□ 온궁행렬재연

온양온천은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백제, 통일 신라시대부터 그 역사가 1300년이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온수군이라 불리었다. 조선시대 최고의 온천욕장으로 각광 받았던 곳은 온양이었다. 온양온천의 뛰어난 치료 효능과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은 이곳에 태조대왕때부터 온행궁을 짓게 하고 일부 정사를 보게 하여 온양행궁은 일종의 여름 궁전이 되었다. 특히 세종대왕은 만성안질로 4~5년이나 고생하였는데 신유년(1441년)정월부터는 왼쪽눈이 거의 실명될 위기에 이르러 점점 두 눈이 흐릿하고 아파서 어두운곳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걸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위태로운 세종대왕의 안질이 온양온천의 효험으로 조금씩 회복하였다. 대왕은 너무 기쁜 나머지 종 6품 현감이 다스리는 "온수현"을 종 4품 군수가 다스리던 "온양

군"으로 격상시켰다. 이 때가 세종 23년(1441년) 4월 17일이었다. 이날이 "온양"이라는 지명을 처음으로 얻게 된 역사적인 기념일이다. 그 후 현종, 숙종, 영조, 사도세자 등 여러 임금과 왕실가족들이 휴양이나 병의 치료차 머물고 돌아간 사례가 많아 다수의 관련 유적들이 남아 있으며 흥선대원군도 이곳에 욕실을 설치하였던 일이 있다.

온궁행렬재연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융성하고 찬란했던 온궁행차를 재연함으로써 온양온천의 역사적 가치를 조망하고 잊혀져 가던 역사적 자원을 복원하고자 마련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온궁행렬은 조선왕조시대 여섯 임금이 열네 차례나 온양온천에 행차하셨던 모습을 실제 아산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행렬에 참가함으로써 과거로의 역사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퍼레이드이다.

온궁행렬은 오후3시 아산시청을 출발하여 아고 오거리-온양온천역-온양관광호텔-시민생활관-신정호 행사장으로 이어지는 약4.5km 구간에서 4백여 명의 시민이 행렬에 참여한다.



온궁행렬



온궁행렬

□ 설화예술제

설화예술제는 1989년 10월 15일 처음 시작하여 한국예총 아산시지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문화행사이다. 한국예총아산시지부 산하 예술단체인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 연예협회, 연극협회 등의 문화예술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순수 예술행사로 문집발간, 무용, 연극, 음악공연과 미술, 서예, 사진전시회 등의 순수예술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예술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고급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전시



체험부스-나무곤충만들기

도원문화제 (Dowon Cultural Festival)

도원문화제는 지역특산물인 복숭아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향토축제입니다.

(가) 도원문화제의 유래

문헌상 신라시대부터 복숭아 재배가 전래된 이후 우리 군은 1908년부터 복숭아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토질이 황토질로 복숭아 재배에 적합하여 당도가 높은 우수 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다. 도원문화제는 관내 문인들이 복숭아꽃이 만발한 아홉거리에서 시와 소설을 주제로 한 아유희 형식의 모임을 계기로 지역특산물인 복숭아의 꽃을 테마로 한 도원문화제가 탄생하여 매년 복숭아꽃이 만개한 4월에 향토축제로 자리하게 됐다.

(나) 년도별 추진상황

- ° 1985년 4월 : 제1회 도원문화제 개최(21년의 전통)
- ° 1986년 10월 : 도원문화제, 군민의 날 기념행사, 군민체육대회 병행 개최

- ° 1993년 4월 : 도원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병행 개최
- ° 2004년도 도원문화제(4. 17 ~ 4. 21 5일간)
- ° 2005년도 도원문화제(4. 15 ~ 4. 17 3일간)
- ° 2006년도 도원문화제(10.13 ~ 10.14 2일간)
 - 경축 및 문화·예술행사로 가을예술제와 병행 실시
- ° 2007년도 제23회 도원문화제 (4. 20(금) 1일간)
 - 전 군민과 함께 다양하고 내실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 ° 2008년도 제24회 도원문화제 (4. 18(금) ~ 19(토) 2일간)
 - 도원문화제 및 제 왕의 물 축제 병행 개최

(다) 행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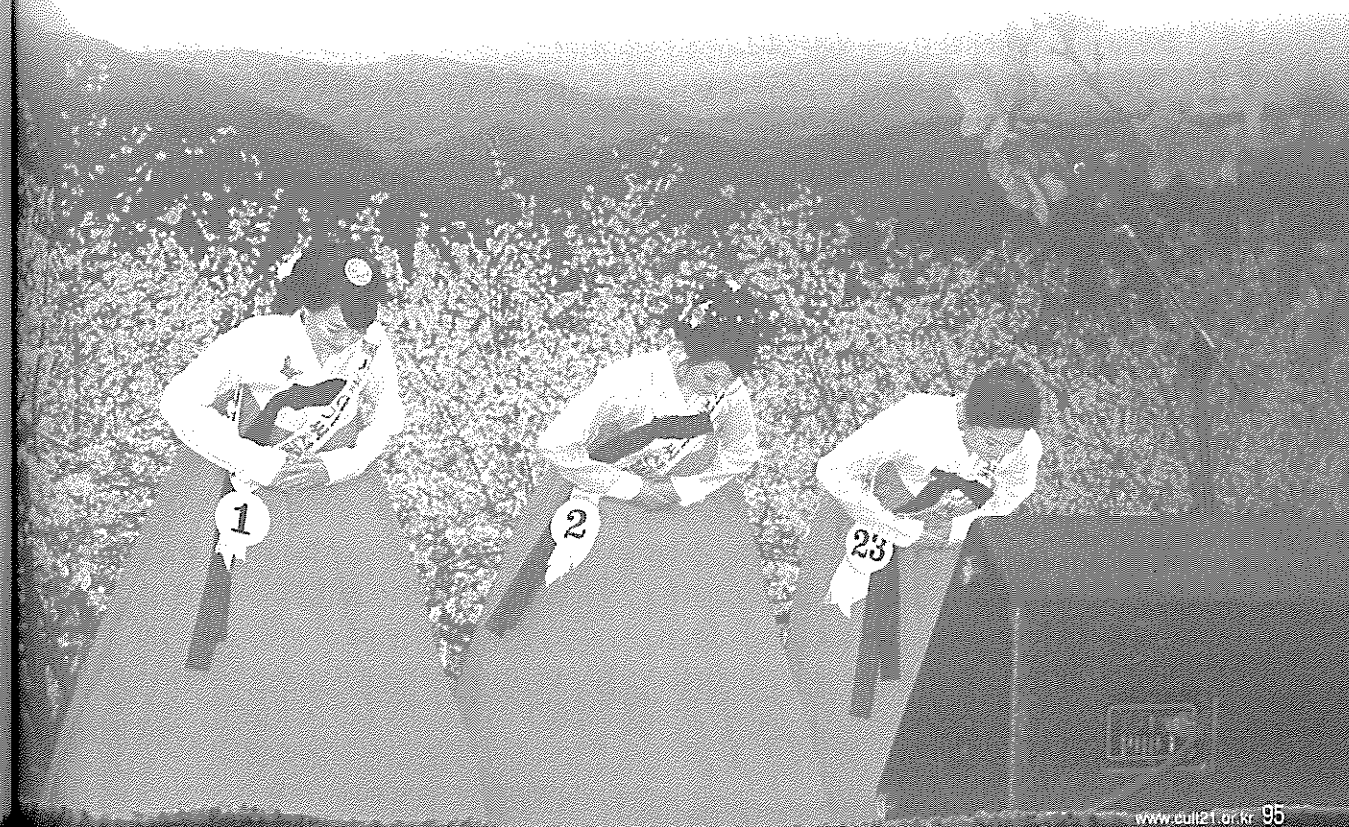
문화제 태동에서 비암사의 백제대제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기에 백제를 시작으로 개막전날 전야제를 개최한다. 다음날 행사로는 복사꽃아가씨 선발대회가 개최된다. 군내에서 거주하는 여성들로 18세 이상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진, 선, 미, 정, 숙, 현, 인기, 포토제닉을 뽑는다. 이들은 일년 동안 연기군 미의 사절단으로 연기복숭아를 홍보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한다. 다음날에는 백수문학 주관 사생, 글짓기 대회가 아홉거리를 중심으로 복숭아밭에서 개최되고 각종 전시회가 군민회관과 문예회관에서 개최된다. 또 초청공연이나 국악공연이 개최되고 원조회 주관으로 걷기대회도 개최된다. 행사기간 중 일요일을 선택하여 아침 9시에 조치원역 광장에 각 읍면 상징조형물과 체육대회 참가 선수들이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한다. 또한 10시에 운동장에 도착하면 개회사에 이어 체육대회, 민속경기, 농악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로 하루 종일 축제를 연다.

- 1) 일 시 : 복사꽃이 만개한 4월 중순
- 2) 장 소 : 연기군 일원



행사내용	종 목	주 관	비고
제례	□ 백제대제 -제례	조치원문화원, 비암사	4. 15
경축행사	□ “복사꽃길”함께 걷기 대회 □ “복사꽃” 한마음 축제 - 길놀이 - 뽕에르 마임쇼 - 품바 공연 - 전통민속놀이 체험 - 먹거리 장터 - 풍선공예 - 혼성댄스그룹 공연 - 도전 골든 벨 □ 불꽃놀이원	원조희 JCI Korea-연기	
문예행사 (체험행사)	□ 대전MBC 축하공연 및 읍면경연대회 - 대전MBC 축하공연 - 읍·면별 1팀씩 출전 경연 □ 으뜸숨씨경연대회 - 관내 거주 어르신 취미 동아리 장기경연대회 □ 백일장 및 사생대회 - 초·중·고등학생 참여 □ 도원배 군민바둑대회 - 아마바둑의 정상급 대회 □ 제2회 군민 사진촬영 대회 - 복사꽃 및 도원문화제행사	조치원 문화원 조치원문화원 문인협회, 연기사랑스케치회 조치원바둑교실 연기사진작가협회	

문예행사 (체험행사)	□ 열린문화 체험한마당 -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체험 - 재활용 공예, 리본공예 -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	(사)한국청소년마을 연기군지회	
	□ 전통 결혼 한마당 - 민속 고유의 전통문화 시연 - 금혼식, 은혼식	연기사랑청년회	
	□ 길 놀 이 - 축제의 흥겨움을 알리고자 길놀이 개최	조치원문화원	
	□ 영어야 놀자 동요경연대회 - 어린이 동요경연대회 (영어로 권장) - 중창이상연기 교육청	연기교육청	





제10회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칠갑산 봄꽃과 장승이 어우러져, 해마다 관광객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칠갑산 장승문화축제가 4월 26일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칠갑산 장승문화축제선양위원회(위원장:정재권)주최로 개최되었으며 김시환 청양군수를 비롯한 강석호 청양군 의회의장, 각급기관단체장, 관광객, 주민등이 행사장을 찾았다. 특히 이날 충청향우회 김용래 총재께서 참석하시어 행사가 더욱 빛을 바랬다. 오전 10시30분 본행사 개막식으로 화려한 막이 올랐으며 오전 11시10분 칠갑산 장승대제를 지내며 국태민안과 청양 발전을 기원했다. 이와 함께 장승공원 주변에서는 정산면 용두리를 비롯한 7개 마을에서 마을장승제를 시연하고 전국 전통장승조각가를 초청 장승짜기 시연을 하였으며, 석장승 제막식 행사에는 공자님 말씀의 장승(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禮가 아니면 듣지 말고 禮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3기가 세워졌다.

또,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전통민속놀이 읍.면대항경기로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이 펼쳐졌다.

부대행사로는 국악인 초청공연, 두레풍물단공연, 구봉예술단공연, 각설이공연, 윤금선무용단 초청공연 등 다양한 공연 행사가 있었으며 이밖에도 학생그리기대회, 가족허수아비 창작공모전, 나만의 우표만들기, 가훈씨주기, 소달구지타기체험, 공예품전시, 소원성취기원문달기, 소지올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줬다.

한편 청양문화원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장승을 보존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장승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행사로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홍성내포사랑큰축제

2008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한 '2008홍성내포사랑큰축제'는 홍성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서,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된 홍성내포축제는 1984년부터 시작된 홍주문화제(洪州文化祭)를 지난 2004년 충청남도 도청 유치의 일환으로 충남서부해안 지자체를 아우르는 축제로 발전시켜 개최해왔으며, 2008년도에는 충청남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면서 그 명성에 날개를 달았다.

특히 금년에는 축제전문가를 영입하여 홍성문화원에 축제팀을 만들어 실질적인 축제업무를 맡아 진행하였다.

충절의 고장 홍성, 내포의 중심에서 충남의 중심으로 거듭나

옛 부터 충절의 고장이라고 불린 홍성은 지형적 영향인지 유난히 역사적 위인이 많이 배출한 고장으로서 '홍성내포사랑큰축제'에서도 홍성의 위인들은 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퍼포먼스와 퍼레이드 등 축제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홍성의 대표적 위인으로 최영, 성삼문, 김좌진, 한용운 등이 축제를 통해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홍성의 대표적인 4대 위인들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최영장군의 무과체험장, 성삼문의 조선시대 옥사 및 고문체험, 한용운 일제 강점기 옥사 및 고문체험, 김좌진 장군의 만주 독립군 숙영지를 조성하는 한편, 각 위인들의 대표적 역사적 사건을 극화하여 퍼포먼스를 펼쳐 역사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고 관람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구한말 대표적인 항일의병지인 홍성, 이곳 홍주성을 중심으로 벌어진 홍주의병을 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적인 효과는 물론이며, 지역의 역사적 재현을 지역시민사회단체인 로타리클럽 회원 및 가족, 유가족이 주체적으로 참여시키고 지역의 전문배우들이 홍주성의 조양문을 활용하여 스펙타클하고 실감나는 재현을 연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이어지는 홍주의병 전투승전 축하행렬을 이끄는 수십여 개의 햇불과 수십

명의 풍물패의 풍물가락과 어울려 홍주성 주 행사장으로 이동하여 홍주의병전투와 승리를 표현한 대형 퓨전공연인 홍주의병 전투승전 축하의 밤으로 이어지는 연계행사를 통해 역사적의미를 담아 감동을 배가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외세에 맞서 홍주성을 지키던 의병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홍주성의병수비대/줄타기체험과 홍주성을 약 10대 1로 축소하여 만든 홍주성모형쌓기체험을 구성하여 홍주의병전투와 홍주성복원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다.

홍주목사의 부임행차를 소재로 한 홍주목사행차 및 거리퍼레이드를 홍성역에서 조양문을 거쳐 홍성군청으로 이어지는 약 3km의 거리에서 약 2천여 명이 참여한 대형 행렬을 구성하여 흥겨운 공연과 퍼포먼스를 연출하였으며, 홍주목사 행차가 군청 느티나무에서 내포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태평기원제를 재현한 후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태평소원문걸기, 그리고 개막식을 성황리에 펼쳤다.

또한 2007년부터는 진정한 내포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내포권 7개 지자체의 민속무형문화재 공연을 선보이는 한편, 금년에는 각 지자체 민속무형문화재 중 기능부문 전시 및 체험과 수도권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각 지자체 대표축제홍보 및 특산물을 전시판매를 통해 내포지자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내포의 맛과 멋, 저탄소 녹색축제로 만들어 나가

홍성한우, 홍성 남당항 대하, 광천토굴새우젓, 조선김, 그리고 친환경 특산물들은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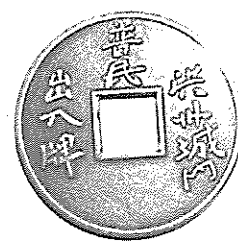
금년 축제에서는 홍성을 비롯한 내포지역의 '맛과 멋'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직은 홍성을 제외한 서산, 태안, 당진, 예산, 보령, 서천의 모든 맛과 멋을 알리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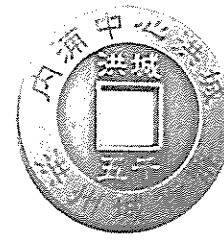
같은 문화생활권의 관광과 특산물을 홍보하고자 했던 시도는 큰 의미가 있었다.

홍성한우로 만든 5천여 개의 한우꼬치는 이를 만에 모두 팔렸고, 대하와 새우젓·조선김은 각각 서부면 남당항과 광천읍 젓갈시장으로의 연계방문지로 홍보하고 유도하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하의 경우는 대하축제장에서의 대하잡기를 통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체험프로그램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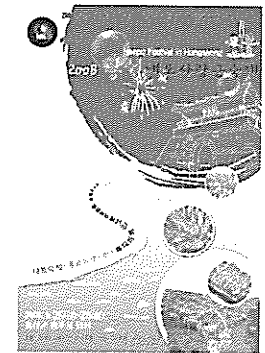
〈축제화폐로 사용된 홍주성화폐 모습〉



앞면



뒷면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홍성내포사랑큰축제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 중심의 가족체험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인 즐거운 만들기 체험은 내포지역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친환경재료와 동·식물의 이미지와 주제를 형상화 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하였고, 체험 비용은 조선시대 홍주성 출입패를 활용한 축제화폐인 홍주성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와 체험의 즐거움을 높이는 만족도를 얻을 수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이제 5회를 치른 '홍성내포사랑큰축제'가 걸음마 단계를 겨우 벗어난 초보 단계의 축제지만, 향후 충분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축제인 만큼 군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며, 금년부터 홍성문화원에 축제전문 인력으로 축제팀을 구성한 만큼 축제 기획과 운영을 상시체제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축제의 민간 이양 부분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축제의 성공을 위해 더욱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회째를 맞는 최영장군 영신굿은 홍성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내포문화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토속적인 굿의 문화유산을 찾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최영장군 영신굿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의 민속신앙과 그 전승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 화 원 단 신



❖ 충남문화예술제 개막



제1회 충남 문화예술제가 당진 문예의 전당 일원에서 '충남문화예술의 꽃은 피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주제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와 한국예총 충청남도지

회가 주관하고 당진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문화 예술의 품격 향상과 충남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개최하였다.

11월 8일 당진문예의 전당에서는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민중기 당진군수를 비롯한 도민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과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표창, 이완구 도지사와의 간담회, 식후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 야외공연장에서는 고전무용 한량무·부채춤, 창작탈 놀이 '천년을 넘어서', 서산 예술단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9일 농촌마당극과 창작극 '황칠이와 뽕파'가 공연되었고 전시실에서는 제2회 서해미술대전 입상작품과 충남현대미술 작가협의회 회원작품이 전시되었다.

이와 함께 야외공간에서는 해외 5개국 작가와 충남예술인 150명의 작품이 전시된 충남 국제 ART SHOW, 당진 문인협회 시화전, 가훈씨주기, 짚풀전시체험과 천연비누 만들기 등 부대행사가 풍성하게 개최되었다.

❖ 예산문화원 김시운 원장 취임



전 한국농촌공사 김시운(60) 예산지사가 제15대 예산문화원장에 취임하였다. 김시운 신임 예산문화원장은 지난 11월 11일 예산문화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 예산문화원을 시대적 감각에 뒤지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가지고 채색해 갔던 그림으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문화원 회원 확충과 문화원 예산확보는 물론 기존 문화 행사 계승발전 및 문화인 영입확대, 민속발굴사업 및 향토사 조사 연구수집, 문화 관광자료 제작 및 체계적 보존, 청소년 문화 활동 개최 등 문화원의 주요 역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향토논문공모전 공주 이결재씨 대상 수상



한국문화원연합회충청남도지회(지회장 박응진)가 주최한 향토사연구 활성화사업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2월 11일 홍성문화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공주문화원 이결재씨가 "공주시의 사

투리, 민속 생활용어 채록 보고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계룡사 폐사 수석사에 대한 찰고"를 통해 조종헌 논산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이 수상하였으며 장려상에는 명수남 태안문화원장이 "태안 도요지 유적 지표조사"를 연구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중수)주최 제23회 전국 향토문화 공모전에서도 이결재 공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충남문화예술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식



총회 및 기념식에서 초대 회장으로서 선출되었으며 서산문화원 이준호 원장과 황선익 홍성예총지부장이 감사로 선임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홍신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좌교수

지난 12월 17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충남문화예술포럼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박응진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지회장이 선출되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 문화예술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충남 문화예술 포럼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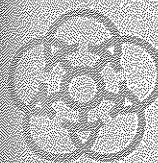
의 "예술과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다. 행사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정관승인, 임원선출, 2부에서는 이해준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충남교향악단 단원들의 연주와 소프라노 한혜진씨와의 협연이 이날 행사의 축하공연으로 열려 힘찬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행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충남문화예술포럼 박응진 초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충남문화예술 포럼은 충남의 창조 문화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문화비전을 정립하고 문화 다양성 및 창의성 구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충남 지역의 문화예술 여건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충남 문화예술의 발전의 think tank로서 정책적 제언과 이를 제도화하는데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충남문화원 활동상황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2008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1. 충남문화 제12호 발간

- 기 간 : 2008년 1월 ~ 12월
- 대 상 : 도내 문화원
- 내 용 : 충남도지회가 출간하는 『충남문화』제12호는 본 지회 및 도내 16개 문화원의 활동상황,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발굴·연구상황, 문화행사 등을 수록 간행하여 회원과 각지회 및 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필요기관에 배포하여 충남도내 문화 관련 행사를 대내외에 알림

2. 제2회 충남시낭송회

- 기 간 : 2008년 11월 7일 17:00
- 장 소 : 서천문화원
- 내 용 : 도내 지역 주민이 시낭송을 통해 정서 함양은 물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원이 주관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감하는 자리매김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위상 및 이미지 제고의 효과 얻음
- 주요내용 : 개회사(박응진 도지회장), 환영사(나소열 서천군수), 축사(조병진 서천군의회위원장), 축사(최재수 서천군교육장), 플러트(김용하), 시낭송(논산, 계룡, 당진 시낭송가)바이올린연주, 시퍼포먼스 등

3.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워크숍 개최

- 기 간 : 2008년 6월 23일 ~ 24일
- 장 소 : 태안 오션캐슬
- 참 석 : 도내문화원가족, 도·시·군 담당공무원 50여명
- 내 용
 - 1일 : ▶ 14:00 ~ 14:30 등록접수
 - ▶ 14:30 ~ 15:00 개회식-개회사(박응진 도지회장) - 격려사(이완구 충청남도지사)- 환영사(진태구 태안군수)
 - ▶ 15:00 ~ 15:30 도(道)문화정책 설명(양창엽 도문화예술과장)
 - ▶ 15:30 ~ 16:30 특 강(엄정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주제 "문화와 자아인식"
 - ▶ 16:30 ~ 17:30 특 강(김승중 건양대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주제 "행복한 인간관계"
 - ▶ 17:30 ~ 18:00 공 연(서산문화원 지역문화학교)
 - ▶ 18:00 ~ 19:00 만찬
 - ▶ 19:00 ~ 21:00 분임토의(주제: "지방문화원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원장/ 국장/ 간사/ 담당공무원)
 - ▶ 21:00 ~ 자유시간 및 취침
 - 2일 : ▶ 08:00 ~ 09:00 기상 및 조찬
 - ▶ 09:00 ~ 10:00 분임토의 결과 발표(조장) 및 토론
 - ▶ 10:00 ~ 13:30 태안마애삼존불, 백합축제관람, 중식
 - ▶ 14:00 ~ 오션캐슬 도착 후 해산

2008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4. 2008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 선정

- 사업명 : 2008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
- 사업대상 : 8개 문화원 13개사업
- 선정결과 : 대천문화원 "도서지역주민 문화유적답사", 서산문화원 "어촌계와 함께하는 만문 화체험, 서산의 옛날옛적에 창작연극", 논산문화원 "예학의 고장 논산의 뿌리를 찾아서", 금산문화원 "개똥벌레와 함께하는 용강풍류전", 조치원문화원 "연기문 화해설사 및 네트워크를 이용한 문화알리기", 서천문화원 "작은영화관 운영 등 5건", 태안문화원 "꿈과 희망을 안고 바다로 간 미술관", 당진문화원 "예술의 향 기를 찾아서"

5. I LOVE KOREA 청소년 역사문화 대장정 '찬란한 백제문화탐방'

- 사업기간 : 2008년 8월 12일 ~ 8월 15일
- 참가인원 : 청소년 71명, 진행요원 5명, 자원봉사 1명 총77명
- 내용 :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 통합의 주역인 청소년의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에 도 움을 주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익혀 충효 및 개척정신과 애향 심을 함양토록 하고자 실시 함
- 탐방일정 :
 - 8월 12일 13:30~21:00(논산, 부여) : 논산문화원(출정식)출발 ~ 백제군사박물관 ~ 자연체험학교 토감(백제토기만들기, 백제의 빛그리기) ~ 부여유스호스텔
 - 8월 13일 07:00~19:30(부여, 공주) : 역사재현단지(역사문화관) ~ 한국인삼공사제조창 ~ 공주 무령왕릉 ~ 공주국립박물관 ~ 공주갑사유스호스텔(백제의소리공연 관람)
 - 8월 14일 07:00~19:30(예산, 용산) : 수덕사 ~ 서산 삼존마애불 ~ 국립중앙박물관 ~ 성남 새마을연수원
 - 8월 15일 07:00~17:30(서울) : 건국6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대행진 참가(경복궁, 청계 광장) ~ 천안 중식 후 해산

6. 『향토사 연구 활성화』 사업 논문 심사결과

- 심사일 : 2008년 11월 3일(월) 14:00~
- 심사장 : 논산문화원
- 심사위원 : 이철성 건양대학교양학부교수(문학박사), 신상찬 국사편찬위원회(전 서산문화원장)
- 심사결과 : 최우수상 : 이걸재 "공주시의 「사투리·민속·생활용어」채록보고서" 공주
우 수 상 : 조종현 "계룡산 폐사 수석사에 대한 고찰" 논산
장 려 상 : 명수남 "태안 청자 도요지 조사" 태안

2008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7. 도내문화원 종사자 교육

- 기 간 : 2008년 12월 4일 10:30~17:00
- 장 소 : 논산 건양대학교
- 내 용 : 도내 문화원 종사자로서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특강과 회계 전산화 관리 프 로 그램 구축과 관련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문화원 직원간의 상호 협조 및 원만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함
- 주요내용 :
 - ▶ 10:00 ~ 10:30 등 록
 - ▶ 10:30 ~ 10:50 개회식
 - ▶ 10:50 ~ 12:00 특 강(이춘아 유성문화원 사무국장) "지역문화 인력의 파트 너쉽과 네트워크"
 - ▶ 12:00 ~ 13:00 중 식
 - ▶ 13:00 ~ 15:30 문화원 회계 전산 관리 프로그램 'AMS2009' 교육 (건양대 학교 공학관 전산실습실)
 - ▶ 15:30 ~ 16:50 백제군사박물관 관람
 - ▶ 16:50 ~ 탐정호(석식후 해산)

8. 충남문화예술 포럼 개최

- 기 간 : 2008. 12. 17(水) 13:30 ~ 16:30
- 장 소 : 충남도청 대강당(대전시 중구 선화동)
- 참석인원 : 300여명
- 내 용 : 1부 창립총회(13:30 ~ 14:00)
창립총회
i) 개 회
ii) 국민의례
iii) 경과보고
iv) 정관승인
v) 임원선출(회장, 감사2명)
2부 : 주제발표 및 특강(14:00 ~ 15:30)
i) 이해준 교수(공주대 사학과)
주제 - 지방문화의 발전방안
ii) 김홍신 교수(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주제 - 예술과 인생
iii) 질의응답
※ 충남교향악단 공연(15:40 ~ 16:00)
3부 : 기념식(16:00 ~ 16:30)
i) 국민의례
ii) 개회사(박응진 회장)
iii) 격려사(이완구 도지사)
iv) 축 사(강태봉 도의장)

2008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9. 2008 『해외문화 탐방 및 우수축제 연구』사업

- 기 간 : 2008년 10월 14일 ~ 21일 (7박 8일)
- 방 문 국 : 독일, 프랑스
- 참 가 자 : 총 23명 (도내문화원장 및 이사 12명, 문화원직원 2명, 도·시·군 문화및축제 담당공무원 8명, 도지회직원 1명)
- 내 용 : 도내문화원장과 도시군 문화예술담당 공무원은 독일과 프랑스 7박 8일 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관광 자원 및 상품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선진국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여 충남지역 문화 발전에 응용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독일 베를린 도서관 견학과 한국 문화원을 방문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도내문화원 발간 도서를 기증 함
- 기 간 :
 - ▶ 10월 14일(인천~베를린도착)
 - ▶ 10월 15일(베를린견학, 한국문화원방문, 빛의축제관람)
 - ▶ 10월 16일(웨헨 도착, 웨헨 님펜부르크성, 마리엔 광장, 신구시청사, 슈바빙거리)
 - ▶ 10월 17일(로텐부르크이동, 마르크트광장, 시청사와중세거리, 하이델 베르크이동)
 - ▶ 10월 18일(비스마르크광장, 하이델베르크성, 프랑크푸르트이동, 뢰머 광장, 구시청사, 파라이동)
 - ▶ 10월 19일(몽마르뜨언덕, 에펠탑, 상제리제, 개선문, 베르사유궁전)
 - ▶ 10월 20일(루브르박물관, 드골공항~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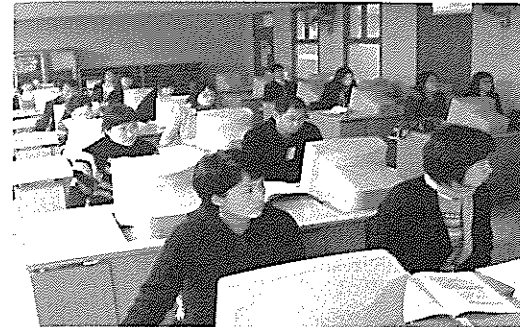
10. 문화원 회계 전산관리 프로그램 보급

- 활동내용 : 도내 문화원은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치며 그 활동범위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운영실태 파악을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발전적 사업 추진을 기하고자 전산화 프로그램을 건양대 컴퓨터공학과(교수 김병수)에 제작 의뢰 도내 문화원에 보급

11. 운영위원회 및 월례회

- 기 간 : 수 시
- 대 상 : 도내문화원장
- 내 용 : 도내 문화원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정보 교류, 충남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토의, 주요현안 사항에 관한 공동의 목표추진 등을 위한 정례회의

2008년 충청남도지회 활동상황



도내문화원 종사자 교육



청소년 역사문화대장정 백제문화탐방



지방문화 운영 활성화 워크숍



충남문화예술포럼



월례회의



제2회 충남시낭송회

2008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2008 무자년 신년교례회	· 일시 : 2008년 1월 3 일 (10: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400명	관내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장 기업체장 유지 신년하례 인사 교류 및 축하연	
2	반향 공주문화 소식지 발간	· 기간 : 1월 - 12월 · 4×6배판 68쪽 · 격월 발간 3,000부	공주의 어제와 오늘, 웅진칼럼, 아름다운공주가꾸 기, 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 땅이름이야기, 공주사람 이야기, 전통마을 찾아서 등	
3	지역문화학교 닥종이 수강생 작품전시	· 일시 : 1/3-1/10 · 장소 : 문화원 제2전시실	지역문화 닥종이 전시 수강생 및 강사들의 작품전시	
4	공주문화원 2008 이사회	· 일시 : 2/12, 18: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2007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세입세출결산 지방문화원 표준정관개정에 의한 변경사항	
5	공주문화원 2008 정기총회	· 일시 : 2/19, 18:0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2007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세입세출결산 지방문화원 표준정관개정에 의한 변경사항	
6	공주문화원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 일시 : 2/18 - 7월 (주1회~2회)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전시실 · 참석인원 : 250명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심성개발과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련을 통하여 계층 간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 을 제공 ①국선도반 ②풍물반-초급 ③풍물반-중급 ④댄스스포츠반 ⑤요가반 ⑥가곡반 ⑦서예사군자반 ⑧일본어반 ⑨닥종이종이접기 ⑩오카리나반 ⑪생활중국어 ⑫다도반	
7	예인촌 정기공연 "충남연정국악원과 함께하는 제회 토요 국악상설무대 만남"	· 일시 : 5/31 19:30 · 장소 : 충남연정국악원 (선화당) 잔디마당 · 참석인원 : 3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연주회	

2008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8	제13회 "효"사상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 일시 : 6/13 14:00 · 장소 : 공산성 쌍수정 광장 · 참석인원 : 800명	효의 본고장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 사상을 선양 고취시키고 문학의 저변확대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학생	
9	예인촌 정기공연 "김혜식의 사진과 함께하는 공주소리꾼 이걸재의 아라리謠"	· 일시 : 6/19 19: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300명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주회	
10	제13회 "효"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학생 백일장 시상식	· 일시 : 6/26 15: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100명	- 백일장 시상식 -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학생	
11	공주문화원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 일시 : 7/1 - 10-31 (주1회~2회)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전시실 · 참석인원 : 250명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심성개발과 정 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련을 통하여 계층간 문 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 ①국선도 ②풍물반-초급 ③풍물반-중급 ④댄스스포츠반 ⑤요가반 ⑥가곡반 ⑦서예반 ⑧생활일본어 ⑨닥종이종이접기 ⑩오카리나 ⑪ 중국어 ⑫ 다도반	
12	실버전통 예술단 논두렁 발두렁발표회 "녹두장군 오셨네"	· 일시 : 7/26 18:00 · 장소 : 서울국립극장 · 참석인원 : 300명	녹두장군과 수많은 무명 농민군들! 그 숭고한 투쟁정신과 순결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연	
13	공주문화원 초대기획전 "비상 展"	· 일시 : 8/1~8/7 · 장소 : 문화원 제2전 시실	- 공주문화원 초대 - "비상전 초대전"	
14	2008 공주문화원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국립중앙박물관, 수원화성"	· 일시 : 8/23(토),8/24(일) 8/30(토),8/31(일) 9/6(토)	향토문화유적 순례답사를 통하여 공주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 유적에 대한 애호의식을 일깨워 주고 지식을 함양,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유적답사	

2008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5	에인촌 정기공연 "Pianist 강나영의 열린 콘서트 뉴턴 현대음악앙상블 초청연주회"	· 일시 : 9/3(수) 19:30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 참석인원 : 270명	에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주회	
16	제22회 전국남녀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	· 일시 : 10/6~10/7 ·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민족 고유의 전통가락으로 민족의 알과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문화를 승화시키 는 계기를 마련함	
17	공주문화원초대전 "추공 권영대"	· 일시 : 10/13~10/20 · 장소 : 문화원 제1,2전시실	- 공주문화원 초대 - "추공 권영대"	
18	2008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발표회 및 수료식	· 일시 : 10/27 19:00 · 장소 : 문화원 강당	지역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발표회 및 수료식수여	
19	지역문화학교 서예 수강생 작품전시	· 일시 : 10/27~10/29 · 장소 : 문화원 제1전시실	지역문화 서예반 전시 수강생 및 강사들의 작품전시	
20	지역문화학교 닥종이 수강생 작품전시	· 일시 : 11/11~11/16 · 장소 : 문화원 제2전시실	지역문화 닥종이반 전시 수강생 및 강사들의 작품전시	
21	공주문화원초대전 "향토작가 이문하 풍경전"	· 일시 : 12/13~12/20 · 장소 : 문화원 제1전시실	- 공주문화원 향토작가초대 - "향토작가 이문하 풍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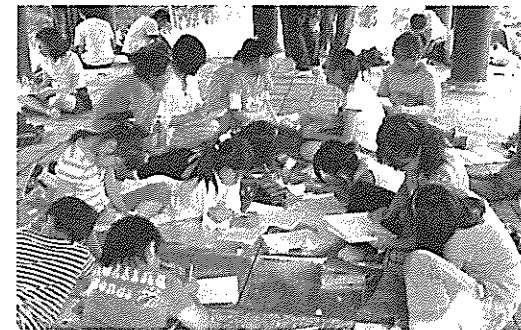
2008년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신년교례회



유적답사탐방



초·중·고 학생 백일장



에인촌공연-열린콘서트



서예수강생 작품전시



시조경창대회

2008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금산의 민속발굴	· 「유등천 유역의 구비문화」 발간 · 조사지역 : 금산의 전지역	- 금산의 민속자료 조사활동	
		· 금산역사문화발간 · 민속놀이발간	- 금산역사문화 발간 - 민속놀이발간	
2	문화학교운영	· 일시 : 3월~8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강좌수 : 4개 강좌	- 문예창작, 서예강좌(기초) 한국화(기초), 판소리(기초)강좌를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3	금곡서회	· 일시 : 1월~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서예동호인단체, 금곡서회회원 · 참석인원 : 45명	-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원들 로 구성된 고급과정 서예 전시회 개최	
4	창현회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한국화 동호인 단체, 창현회원 · 참여인원 : 20명	-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원들로 구성된 고급과정 - 한국화 전시회 개최	
5	풍각쟁이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판소리, 민요, 동호인 단체 · 참여인원 : 20명	- 금산문화예술제 노래모임 풍각쟁이 의 국악공연	
6	장동달맞이축제	· 일시 : 2월 20~21일 (2일간) · 장소 : 금산을 양지리 장동마을 · 참여인원 : 20,000명	- 달과 불 그리고 풍물을 주로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축제로 육성 - 인삼, 약초와 연계 겨울 관광문화 축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7	비단골산꽃축제	· 일시 : 4. 19 ~ 20일 (2일간) · 장소 : 군북면 산안리 · 참여인원 : 50,000명	- 100여만평의 산벚꽃자생단지에서 꽃길여행, 민속공연 등 자연친화 적인 축제 구성	
8	금강민속축제	· 일시 : 7. 26 ~ 27일 · 장소 : 부리면 평촌리(금강놀이마당) · 참여인원 : 30,000명	- 금산농악판국, 물떼기농요, 농바우고 시기 등 공연 금산의 민속체험마당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만들기 마당	
9	금산풍물축제	· 일시 : 12월 31일 · 장소 : 금산군 신대리 (진택스광장) · 주관 : 금산농악보존회 · 참여인원 : 15,000명	- 금산농악 매굿과 큰기울리기, 제야의 종소리, 촛불켜기, 불꽃 놀이, 초청공연 등	
10	삼꽃문화마당	· 일시 : 3월 ~ 12월 · 장소 : 금산군 일원 · 참여인원 : 200명	-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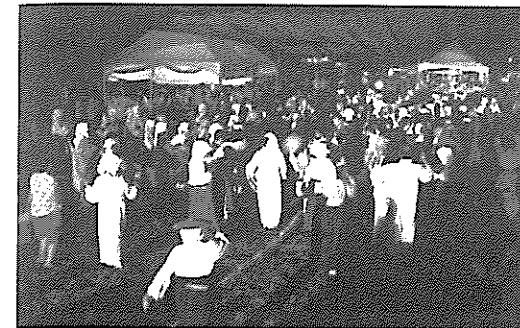
2008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1	금산민속연보존회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장동달맞이축제 기타 축제 의 현장, 금산문화를 홍보하는 장소 · 참여인원 : 30명	- 연 띄우기, 연만들기 체험교실운영 연 전시회 등 연의 축제	
12	금산문화예술축제	· 일시 : 11. 8 ~ 24일 · 장소 : 금산다락원생명의집(대공연장) 청산아트홀 · 참여인원 : 800명	- 문화예술의 달을 기념하는 금산문 화예술제로 미술, 서예전시회 개최	
13	금산인삼굴합창단	· 일시 : 11. 8월 · 장소 : 금산다락원생명의집(대공연장) · 참여인원 : 800명	- 정기연주회 개최 - 군민의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	
14	금산역사문화발굴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역사, 민속, 상태자료조사	- 금산역사문화연구 보고서 발행	
15	금산주부풍물 보급사업	· 주부들의 여가문화 창출	- 나아내주부풍물단 공연	
16	농바우고시기보존	· 일시 : 1월 ~ 12월 · 대상 : 농바우고시기보존회	- 농바우고시기보존회 공연	
17	물떼기농요보존	· 일시 : 1월 ~ 12월 · 대상 : 물떼기농요보존회	- 물떼기농요보존회 공연	
18	산꽃시동인지 발간사업	· 산꽃시동인지 작품 및 특집수록	- 산꽃시동인지 발간사업	
19	좌도시동인지 발간사업	· 좌도시동인지 작품 및 특집 수록	- 좌도동인지 발간사업	
20	실용음악 보급사업	· 실용음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가 문화 창출	- 그룹사운드 「파랑새」	
21	금산주부풍물 보급사업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동호인단체 나아내풍물단 · 참여인원 : 45명	- 각종축제 금산풍물굿공연 - 금산문화원학교 초급과정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 고급반 과정	
22	시물놀이 보급사업	· 시물놀이 기능 전수와 여가문화 창출	- 시물놀이 토리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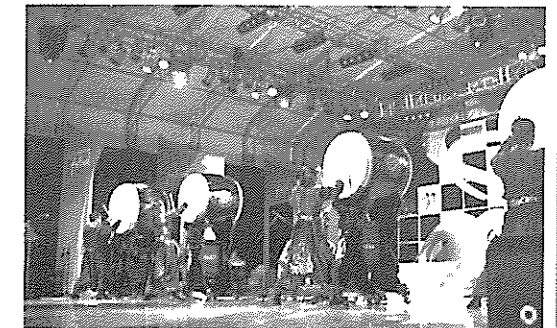
2008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3	청소년토리동물단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참여 : 50명	- 매주 오후 문화원을 개방 토리페 동 물단 운영 및 지도	
24	문화소모임 (동아리)활동	· 일시 : 3월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참여인원 : 150명	- 군민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통하여 문화향수권신장	
25	전시회	· 일시 : 11. 8 ~ 11일 · 장소 : 청산아트홀 전시장	- 금동인(미술), 금목회(서예)전시회	
26	전국평생학습축제	· 일시 : 10. 17 ~ 20일 · 장소 : 순천만, 동천, 낙안읍성, 일원 · 참여인원 : 50명	- 평생학습의 성과 축하 및 공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평생학습 사회 실현도모	
27	소규모아외가설공연 무대설치	· 각종 축제 행사에 원활한 진행 관광객에게 편의 및 참여기회 제공	- 각종 축제 및 체험행사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	
28	해외문화탐방	· 해외문화탐방 및 우수축제연수	- 해외문화탐방 및 우수축제	
29	개똥벌레와 함께하는 용강풍류전	· 자연과 문화 마을 사람이 중심이 되는 21세기형 생태문화관광축제	- 금강풍류전, 개똥벌레와 함께하는 풍류여행,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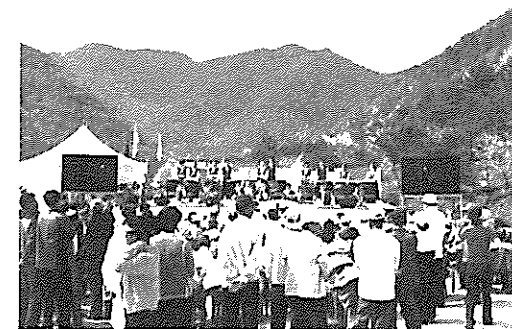
2008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금강민속축제



금산인삼축제



비단골산꽃축제



장동달맞이축제

2008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2008 신년교례회	· 일시 : 2008년 1월 2일 14:00~ ·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석인원 : 200여명	논산시 기관, 단체장과 시민이 참석하 여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고, 다 과회 및 선물 추첨 함	
2	예학의 고장 논산 의 뿌리를 찾아서	· 기간 : 2008년 1월 ~12월 · 답사장소 : 돈암서원, 논산명제고택, 종학원 등 · 참가인원 : 연인원800명	시민을 주대상으로 우리 고장에 아름 답고 유서깊은 문화유적지를 답사하여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이 고취 됨	
3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	· 일시 : 2008년 2월 16일 14:00~ · 장소 : 논산천 둔치 · 참가인원 : 700명	읍면동 줄다리기 및 제기차기대회, 연 날리기대회로 가족 단위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팽이치기, 제기차기, 투호, 웃놀이 등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소원 빌기, 가훈씨주기, 고구마와 가래떡을 구어먹기 등 다양한 부대로 행사로 고 유한 전통민속을 계승하는 계기가 됨	
4	한일문화교류사업	· 일시 : 기간 : 3월 ~ 10월 · 장소 : 논산관내, 센다이 · 참석인원 : 50여명	논산딸기축제 및 강경발효젓갈축제 기 간에 일본 아소시장 외 시민교류단이 논산시 방문 및 일본센다이 우에스키 축제 참관 벤치마킹	
5	제2회 논산시 가족백일장	· 일시 : 2008년 4월 19일 · 장소 :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정 · 참사인원 : 약200명	봄을 맞이하여 논산여상 교정에서 사전 접수한 가족 백일장 참가자들이 문화예 술공연 관람에 이어 원고작성 후 심사, 시상 함	
6	논산시읍·면·동 노인장기대회	· 일시 : 2008년 6월 26일 08:30 ~ · 장소 : 놀미새마을금고 4층 강당 · 참석인원 : 100명	대한노인회논산지회 주관으로 노인 회에 참가 접수한 각 읍면동 선수들이 당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입 상자는 시상 함	

2008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7	백제의 후에 실버도예가 양성 및 전시회개최	· 일시 : 2008년 4월 ~ 12월 · 장소 : 문화원, 문화예술회관대전시실 등 · 수강인원 : 20명	5~9월까지 도예교육, 전주실버문화사 랑축제 및 평생학습축제참가, 아트월작 품제작, 수료식 및 전시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후원 공모사업	
8	제3회 청소년문화제	· 기간 : 2008년 7월 14일 ~ 19일 · 장소 :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 참여인원 : 1,500명	논산시 문화재 글짓기, 그림 입상작 전 시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청소년 을 위한푸른음악회,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하는 무대로 '내마음의 푸른꿈' 등 개최 함	
9	독서의달 행사	· 기간 : 2008년 8월 ~ 10월 · 참여인원 : 100명	독서의 달 9월을 맞이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하여 심사, 시 상 함	
10	제19회 논산 서예회화대회	· 일시 : 2008년 9월 27일 10: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참여인원 : 약 150명	논산시서예협회 주관으로 학생, 일반 인이 참가하여 서예의 기량을 발휘하 고 서예작품 전시 및 시상 함	
11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자리	· 일시 : 2008년 10월 31일 18:00~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여인원 : 약200명	논산시낭송인회 주관으로 시낭송과, 바이올린연주, 퓨전음악 그룹 이리스 출연 등 가을밤 시와 음악이 어우러져 의미 있는 행사가 됨	

2008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2	계간지 논산문화	* 봄 호 발 행 일 : 2008년 4월 1일 참여인원 : 약 50명 * 여름호 발 행 일 : 2008년 7월 1일 참여인원 : 약 50명 * 가을호 발 행 일 : 2008년 10월 1일 참여인원 : 약 50명 * 겨울호 발 행 일 : 2009년 1월 1일 참여인원 : 약 50명	기존의 내고장 소식지를 혁신하여 2003년 봄호부터 새롭게 창간된 논산문화는 논산의 문화를 그대로 담아내며 연4회 계간으로 발간, 기관 및 단체, 각급학교, 도서관, 전국문화원, 문화원회원 등 배포하고 있음	
13	논산문예 제16집	· 발 행 일 : 2008년 · 발행부수 : 500부	제23회 청소년 백일장 공모전의 입상작을 엮어 발간 배포 함	
14	논산지역의 현판	· 발 행 일 : 2008년 · 발행부수 : 500부	논산의 서원, 정려, 사당, 사찰 등 현판과 현액, 주련의 원문을 해석하고 사진과 함께 수록 함	
15	읍·면·동지 논산(부창·취암, 강경, 연무)	· 참여인원 : 50명 · 발행부수 : 4곳×500부	2005년~2006년에 걸쳐 15개 읍면동을 자료수집 및 사진촬영 등 조사를 모두 마치고 2008년 부창, 취암, 연무, 강경부터 각각 500부씩 인쇄 배포 함	

2008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신년교례회



노인장기대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축제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자리



가족백일장



논산문화가을호

2008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강북·당진문화원간의 자매결연	· 일시 : 2008. 1. 31 ~ 2. 1 · 장소 : 당진문화예의전당 · 참여인원 : 1,000명	문화분야 교류 활성화와 양 문화원간의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강북 · 당진문화원 자매결연식 및 문화교류 공연	
2	대보름민속놀이 행사	· 일시 : 2008. 2. 19 · 장소 : 문화원 · 참여인원 : 300명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민 속놀이를 재현함으로써 지역민이 화합 의 장 마련	
3	해외문화탐방	· 일시 : 2008. 2. 22 ~ 2. 29 · 장소 : 터키 · 참여인원 : 30명	이스탄불, 앙카라, 갑파도키아 등 터키 의 문화를 탐방함	
4	제1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8. 3. 27 · 장소 : 강원도 영월 · 참여인원 : 45명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향토유적탐방 (장릉, 김삿갓문화관, 조선민화박물관)	
5	제2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8. 4. 14 · 장소 : 강원도 영월 · 참여인원 : 45명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향토유적탐방(장 릉, 김삿갓문화관, 조선민화박물관)	
6	제3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8. 5. 20 · 장소 : 경북 영주 · 참여인원 : 80명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향토유적탐방 (소수서원, 부석사)	
7	제4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8. 10. 10 · 장소 : 전주시, 서천시 · 참여인원 : 45명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향토유적탐방 (전주객사, 풍남문, 전동성당, 실버축제 참가, 동백정)	
8	제5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 일시 : 2008. 11. 5 · 장소 : 전남 장성 · 참여인원 : 80명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향토유적탐방 (홍길동생가, 백양사, 장성공원)	
9	남이홍 장군 문화제 기념 학생 백일장	· 일시 : 2008. 9. 28 · 장소 : 충장사 · 참여인원 : 2,000명	남이홍 장군의 애국 애족과 살신위국 을 본받을 수 있도록 매년 학생백일장 개최, 30명 시상	
10	당진문화 발간 (29/30호)	· 일시 : 2008. 8월 / 12월 · 발행부수 : 각2,000부	문화원 소식 및 지역문화소식과 정보 를 수록하여 연 2회 발행	
11	문화예술의향연	· 일시 : 2006. 12. 13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300여명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및 발 표무대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12	당진 근현대 신문자료집 발간	· 일시 : 2008. 12. 30 · 발행부수 : 1,000부	189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당진지 역 관련 신문기사를 발췌하여 자료집 으로 발간	

2008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3	당진의 농요·두레 재현	· 일시 : 2008. 1월 ~ 12월 · 장소 : 전국쌀사랑축제장 · 참여인원 : 1,000명	당진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행하였던 농 및 두레 재현, 6월 현장촬영 및 10월 발표회를 통해 영상으로 제작 보급	
14	여성주의작가 초대 전시회	· 일시 : 2008. 7. 1 ~ 13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500명	문화학교 수강생 및 지역주민 역량강 화를 위해 여성주의 작가 박영숙(사 진), 정정엽(회화), 윤석남(조각) 3인의 특별 초대전 개최	
15	철학강좌	· 일시 : 2008. 3 ~ 50 · 대상 : 지역민 · 참여인원 : 700명	엄정식 교수와 함께 '철학의 현실화, 현실의 철학화'라는 주제로 12주 강의 함	
16	시창작교실	· 일시 : 2008. 9 ~ 12 · 대상 : 지역민 · 참여인원 : 360명	이근배 시인과 함께 생활 속의 글쓰기 를 실현하는 시 창작을 강의함(12회)	
17	명사초청특강	· 일시 : 2008. 8. 21 / 9. 3 · 장소 : 문화원 · 참여인원 : 100명	명사를 초청하여 특강 실시 전영선-미국생활문화의 이해 박효신-자연에 순응하는 삶, 적은 돈 으로 행복짓기	
18	문화학교	· 일시 : 연중 · 참여인원 : 연 2만명	수채화, 문인화, 연필인물화, 유화, 일 본어, 생활영어, 오카리나, 종이접기, 단전호흡, 건강택견, 민요장구, 노인건 강댄스, 고전무용, 시낭송, 색소폰, 덴 스스포츠, 풍수지리, 민속놀이 등	
19	교류사업 '아주 특별한 만남	· 일시 : 2008. 11. 26 · 장소 : 삼각산문화예술회관 · 참여인원 : 600여명	강북·당진문화원 간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합동공연을 통해 만남과 나눔의 장을 마련.	
20	남이홍장군 학술토론회	· 일시 : 2008. 12. 16 · 장소 : 당진문화예의전당 · 참여인원 : 300여명	남이홍 장군의 업적과 유적의 발전방 안 마련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21	'예술가의 향기를 찾아서'	· 일시 : 2008. 10월 ~ 12월 · 장소 : 당진관내(8회) · 참여인원 : 120여명	지역작가들의 작업실 탐방을 통해 다 양한 장르의 예술세계를 경험하고 예 술가와 지역주민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마련한 체험프로그램	
22	명사 시 낭송회	· 일시 : 2008. 12. 9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120여명	지역의 명사들을 초청하여 시낭송을 매개로 주민과 명사와의 만남과 나 눔의 장을 마련함. 명사애송시 20여편, 시인 애송시 30편 수록 책자발간	
23	겨울문화기행	· 일시 : 2008. 12. 21 ~ 28 · 장소 : 서울시 · 참여인원 : 100여명	고려경 공연문화를 관람하는 문화기행 실시 21일 알레그리아 관람, 28일 지붕위의 바이올린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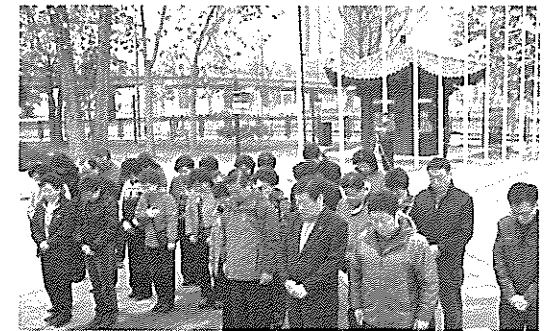
2008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2008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4	다문화예술단 어울림 활동	· 일시 : 2008. 1 ~ 12 · 대상 :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구성된 다문화예술단 '어울림' 활동을 통해 자국의 문화예술을 보급 전파, 공연활동 및 학교 연계 교육활동	
25	다문화예술단 어울림 발표회	· 일시 : 2008. 9. 8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200명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예술단 '어울림'의 발표회를 마련	
26	쌀사랑음식축제 '음식부스' 운영	· 일시 : 2008. 10. 2 ~ 5 · 장소 : 쌀사랑음식축제장 · 참여인원 : 100명	쌀사랑음식축제에 참여하여 각 나라의 음식체험과 전통의상 입기 체험을 실시	
27	가요교육	· 기간 : 2008. 3월 ~ 12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대상 :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요교육을 실시함으로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을 줌	
28	생활문화교육	· 기간 : 2008. 3월 ~ 12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대상 :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바느질 교육을 실시함으로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을 줌	
29	다문화 체험	· 일시 : 2008. 9. 23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참여인원 : 30명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의 음식 체험, 도자기 체험을 실시	
30	추억의 영화상영	· 일시 : 2008. 7 ~ 9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대상 : 실버계층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1950~1960년대의 영화를 상영 (12회)	
31	지역문화체험	· 일시 : 2007. 10. 30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참여인원 : 30명	결혼이민자들에게 지역의 문화를 체험 시키고자 합덕수리박물관과 전력홍보관 탐방	
32	회원노인대학 운영	· 일시 : 2008. 1 ~ 12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연 3,000여명	당진지역 60세 이상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강연, 체험 등을 노인대학 운영(주 1회) (2008년도 당진문화원 활동 실적)	



강북-당진 문화원 결연식



해외문화유적탐방



철학강좌



여성주의작가 3인 초대전



예술가의 향기를 찾아서



명사 시낭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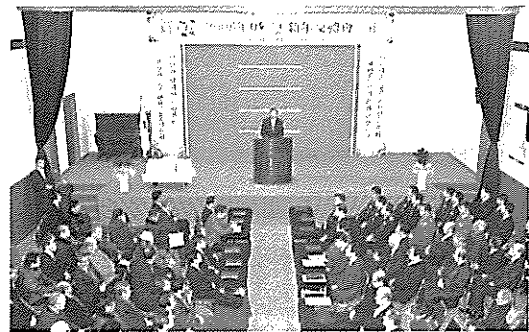
2008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해맞이행사	· 일시 : 2008. 1. 1 07:00 · 장소 : 성주산 일출전망대 · 참석 : 유관기관 단체장 및 보령시민 2,000명	보령시민 안녕과 화합기원	
2	신년교례회 행사	· 일시 : 2008. 1. 2 11:00 ·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 참석 : 유관기관 단체장 및 문화회원 300명	유관기관단체, 시민, 신년하례 인사 및 화합	
3	정기총회	· 일시 : 2008. 2. 27 ·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과년도 결산 및 신년 예산안 승인	
4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매주 목요일 10:00~12:00 · 장소 : 대천문화원 3층 국악교실	국악교실	
5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매주 화요일 10:00~12:00 · 장소 : 대천문화원 3층 가야금교실	가야금 병창	
6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매주 화요일 10:00~12:00 · 장소 : 대천문화원 3층 서예교실	서예교실	
7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매주 목요일 10:00~12:00 · 장소 : 대천문화원 3층 한국화교실	한국화교실	
8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매주 화요일 19:00~21:00 · 장소 : 성주 맥방 문화학교 서각교실	서각교실	
9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매주 월요일 19:30~20:30 · 장소 : 현장 실습	사진교실	
10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매주 화요일 13:00~15:00 · 장소 : 대천문화원 1층 문화강좌실	일본어교실	
11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매주 월요일 10:00~12:00 · 장소 : 대천문화원 2층 문화강좌실	한자교실	
12	실버문화학교 운영	· 일시 : 매주 금요일 15:00~17:00 · 장소 : 대천문화원 2층 문화강좌실		
13	우리지역 바로알기 교양강좌	·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 7:30 ·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보령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을 바로 알고 보령사랑 애郷심을 고 취하고자 실시	
14	우리지역 바로알기 교 양강좌 현지답사	· 일시 : 2008. 9. 27 · 장소 : 보령시 외연도	교양강좌가 실시된 지역을 위주로 현 지답사	
15	3.1독립만세 재현 항일애국지사 추모식	· 일시 : 2008. 3. 16 10:30 · 장소 : 주산면사무소 광장 · 참석 : 기관·단체장, 유족, 지역주민, 학생 등 500명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높였던 우리고장 항일 애국지사의 거 룩한 화성과 위업을 기리고, 3·1 독 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기념식을 거행	

2008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6	명사 초청 문화강좌 개최	· 일시 : 2008. 5. 21 14:00 ·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이어령박사 초청 문화강좌 개최로 지 역문화발전 도모	
17	보령시장배 바둑왕 선발대회	· 일시 : 2008. 5. 27 ·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바둑을 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18	문화가족 문화유적 답사	· 일시 : 2008. 6. 11 · 장소 : 전주·익산지역 문화유적지	문화원 회원, 문화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 하고 우리고장 문화와 역사성을 바로 알 려 향토문화 가꾸기의 장으로 발전시키 고자 함	
19	고유명절 우리 전통 민속 행사 개최	· 일시 : 2008. 9. 5 · 장소 : 대천체육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급변하는 시대변화로 잊혀져가는 전통 제례예절 및 민속놀이 행사 개최	
20	한내돌다리밟기 민속축제	· 일시 : 2008. 9. 30 · 장소 : 대천천 한내돌다리 현장 · 참석 : 유관기관단체 및 시민, 문화원 회원(2,000명)	우리고장에 내려오는 전통민속 다리밟 기 재현, 전통민속행사 재연 1부 시가행진 2부 개식행사 3부 다리제 및 다리밟기 재현 4부 민속공연 및 다과	
21	백야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 행사	· 일시 : 2008. 10. 22 10:00 · 장소 : 청소면 재정리 장군 묘역 · 참석 : 유관기관 단체장 및 보령시민 500명	장군의 애국 충절 정신을 후손들이 길이 받들고 추모하고자 함 1부 추모제향 행사 2부 추모의식행사, 오찬	
22	도만호 김성우 장군 추모제향 행사	· 일시 : 2008. 11. 1 11:00 · 장소 : 청라면 라원리 장군 묘역 · 참석 : 유관기관 단체장 및보령시민 300명	장군의 애국 충절 정신을 후손들이 길이 받들고 추모하고자 함 1부 추모제향 행사 2부 추모의식행사, 오찬	
23	도서산간 오지지역 주민 우리문화 탐방	· 일시 : 2008. 10. 6	보령관내 도서 및 산간 오지지역 주민에 게 우리고장 문화유적 탐방으로 지역을 바로 알 기회제공	
24	문화학교 회원 작품전시회	· 일시 : 2008. 12. 12 ~ 13 · 장소 : 대천문화원 2층 소강당	문화원 문화학교 회원들의 자기기량 발 휘 기회제공 및 문화학교 수강생 사기양 양과 시민에게 볼거리 기회를 제공	
25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탐방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우리고장 향토문화 유산의 귀중함을 알리는 계기 부여를 통해 우리지역 향토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	
26	애郷지 12집 발간		보령지역의 향토사학 자료 및 미발굴 향토 사료 등 자료 수집 기록 보존하고 문화예 술행사 등을 수록한 애郷지 발간 배포로 우리고장을 바로 알고 새로운 이해 도모	
27	제33회 청소년 미술·서예·백일장 공모전	· 일시 : 2008. 11. 17(월) ~ 11. 28(금)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예술적 감성과 미적 체험을 진작시키 며 전래의 미풍양속인 충효사상을 일깨우는 지역 미술·백일장으로 재능있는 청소년들 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 하고자 실시	

2008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신년교례회



추석맞이 우리민속 체험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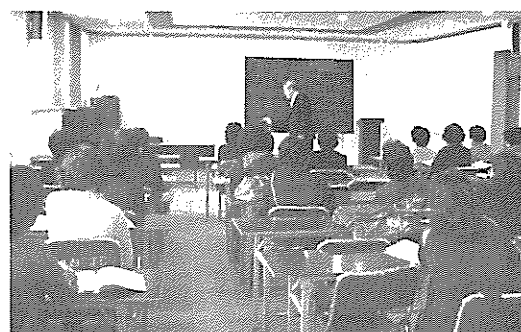
해맞이행사



3.1독립만세 재현 하일애국지사 추모회



한내 돌다리 밟기



문화학교

2008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전국 백제토기 물레경연대회	· 기간 : 2008. 10. 11 ~ 10. 12 · 장소 : 구드래광장 · 참여인원 : 100여명	전국 도자(도예)관련 전공 대학생 백제 토기 물레경연대회 실시	
2	어린이 역사교실	· 기간 : 2008. 4. 20 ~ 12. 27 · 장소 : 전국 주요 유적지 · 참여인원 : 100여명	군내 초등학교 5 ~ 6학년 대상 월1 회 사적 답사 및 영화감상 실시	
3	교사를 위한 문화유산순례강좌	· 기간 : 2009. 1. 9 ~ 1. 10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40여명	군내 초·중·고 교사의 향토사 연구 를 위한 문화유적 현장 답사	
4	제5회 시인 신동엽 추 모 백 일 장	· 기간 : 2008. 6. 19 · 장소 : 구드래 조각공원 · 참여인원 : 400 여명	우리고장 출신인 신동엽시인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는 충남도내 청소년 대상 백일장	
5	문화현장탐방교육	· 기간 : 2008. 6. 17 ~ 12. 31 · 장소 : 전국문화현장 · 참여인원 : 320명	문화원 회원의 교양증진을 위한 전북 내소사, 채석강, 새만금방조제, 남도담 사·대흥사, 녹우당, 목포해양박물관 등 답사	
6	제6회 공남지 연 꽃 축 제	· 일시 : 2008. 7. 18 ~ 8. 3 · 장소 : 공남지(사적135호) · 참여인원 : 50만여명	서동탄생설화가 있는 공남지에 연꽃 축제를 개최함으로 관광객을증진하고 연꽃 부채만들기 등 19종목의 체험장 과 8종목의 전시회, 6종목의 경연대 회, 축하공연 등을 다채롭게 운영함	
7	제6회 홍산대첩 문 화 제	· 기간 : 2008. 10. 21 ~ 10. 22 · 장소 : 홍산면 태봉산성 · 참여인원 : 2만 여명	고려시대 왜적격퇴의 3대 승리인 홍산 대첩 관련행사, 최영장군 관련행사, 전 통문화행사, 보부상관련행사 등	
8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한아름교실 (우리는 문화가족)	· 기간 : 2008. 10. 25 ~ 11. 16 ·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 참여인원 : 160여명	가족단위 사적답사, 자연체험, 전통민 속놀이, 각종 공연 등 문화체험 활동 전개	
9	출향인사 초청 향토문화탐방	· 기간 : 2008. 10. 15 · 장소 : 부여군 문화유적 · 참여인원 : 50여명	우리고장 출신인 중앙부처 공무원과 우리군과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관내 문화유적 답사	
10	향토민속발굴사업	· 기간 : 2008. 7. 1 ~ 12. 31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1만여명	은산면 내지리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단잡기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간	

2008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1	2008 문화학교	· 일시 : 2008. 6. 1 ~ 12. 30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100명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한국화, 일본어, 목공예강좌, 금속공예교실 운영	
12	제9회 성흥산 해맞이축제	· 기간 : 2008. 1. 1 · 장소 : 임천면 성흥산성 · 참여인원 : 4,000명	새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촛불기원, 새해소망 기원제, 소원지 풍선날리기, 새해운수보기 등 실시	
13	2008 주민자치 & 평생학습 발표회	· 기간 : 2008. 11. 3. ~ 11. 4 · 장소 : 부여군청소년수련원 · 참여인원 : 2,000명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를 발표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습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14	부여서동연꽃축제 활성화위한 심포지움	· 기간 : 2008. 1. 25 · 장소 : 여성문화회관 대강당 · 참여인원 : 150명	축제·관광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포지움을 개최 '부여 서동·연꽃 축제' 활성화를 모색코자 함	
15	2008 부여투어 버스 운 행	· 기간 : 2008. 4. 6 ~ 11. 30 · 장소 : 부여·공주 문화유적지 · 참여인원 : 1,680명	매주 일요일 짝수 토요일에 정례적으로 투어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백제왕도 이미지를 부각함	
16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우리문화 한아름 교실	· 기간 : 2008. 3. 21 ~ 12. 12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60명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언어문제, 생활습관 및 문화적 이질감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교실, 문화유산체험 등의 교육 실시	
17	신 년 교 려 회	· 기간 : 2008. 1. 2 · 장소 : 청소년수련관 · 참여인원 : 500여명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세배, 축하행사, 신년교례회 명부등 발간	
18	제3회 부여문화재사랑 도보순례	· 기간 : 2008. 10. 22 · 장소 : 부여군내 유적지 · 참여인원 : 100명	관내 주요 문화유산을 전문가와 함께 탐방하여 문화재적가치인식과 자긍심을 갖게하여 문화재 사랑의 계기를 만들고자 함	
19	뽕뽕뽕! 실버문화학교	· 기간 : 2008. 6. 24 ~ 12. 26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27명	노년세대들의 전통민속놀이를 자라나는 청소년과 관광객에게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전통민속놀이 지도사를 양성함	
20	관광정보센터운영	· 기간 : 2006. 1. 1 ~ 12. 31 · 장소 : 부여문화원 · 참여인원 : 7,000여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에게 관광정보 제공, 유적지 현장설명 등 실시	

2008년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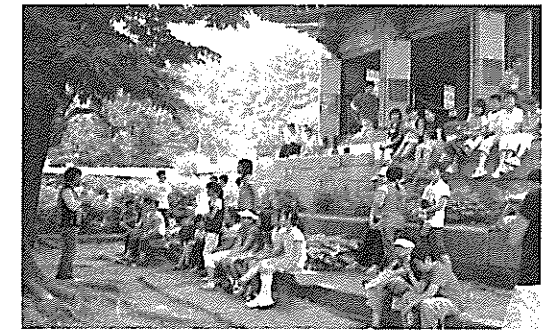
신년교례회



전국 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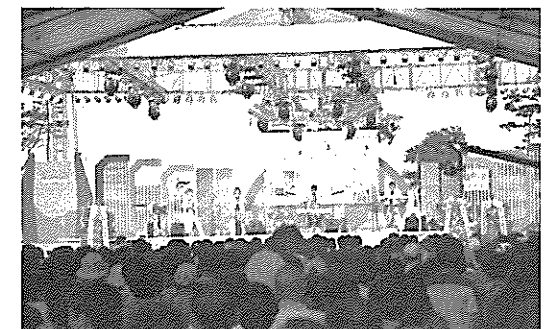
제3회 부여문화재사랑 도보순례



어린이 역사교실



우리는 문화가족



제6회 부여·서동 연꽃축제

2008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서산의 민속신앙과 마을제 영상자료제작	· 일시 : 2월 ~ 4월 · 장소 : 해당장소 · 수량 : 6종	서산의 민속신앙과 마을제가 총 22종이 있으나 예산에 맞춰 연차사업으로 추진 코저 금년에는 6종의 자료를 제작함	
2	직암문집 번역 발간	· 일시 : 1월~11월	사계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문집을 번 역 발간하여 학계, 박물관, 향토사가, 지역민들에게 배부함	
3	문화의식 강좌	· 일시 : 7월 30, 31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15개 분원 · 참석인원 : 400명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 겨 생활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의 식을 제고하는 문화의식 강좌를 실시 하고 이를 통하여 분원을 더욱 활성화 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도모함	
4	문화유적 현장학습	· 일시 : 7월 3 ~ 8일 · 장소 : 중국 · 대상 : 대의원 및 직원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현장을 답사 하며 체험하고 이를 바탕 으로 문화재 보호의식과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5	서산문화대상 시상	· 일시 : 12월 2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수상자 : 정계훈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이 고장의 명예 와 후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함	
6	청소년 문화상 시상	· 일시 : 12월 2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초·중·고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 예행, 선행 3 개 부문의 청소년 문화상을 시상함으 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 장할 수 있도록 함	
7	서산의 문화인물 기념행사	· 일시 : 10월 29일 · 장소 : 안경기념관, 경복궁 중앙국립박물관 · 문화인물 : 안견	서산을 연고로 하는 역사적 인물을 선 정하여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 념행사 또는 세미나를 개최함	
8	정보자료실 운영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정보자료실	각종 신간도서, 영상물, CD, 자료등을 보관하여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제공 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	
9	사이버 문화원 운영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사이버 문화원 · hrrt://seosan.cul21.or.kr	문화원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지역정 보 홍보와 각종 향토자료 관리	
10	초대전 "제6회 내포바람전"	· 일시 : 11월 27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미술교사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향 수의 기회를 제공, 지역적 특색을 바탕 으로 한 전시회 개최	

2008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1	지역문화학교 운영	· 일시 : 3월 ~ 11월 · 장소 : 서산문화원 · 강좌수 : 50강좌	지역주민의 문화감수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요 가, 도예, 해금 등 50강좌를 운영	
12	성년례	· 일시 : 5월 19일 · 장소 : 시청앞 공원 · 대상 : 1789부대	우리나라의 통과의례의 하나이며 세계의 모든 민족이 사회의식으로 행해지는 성 년례를 실시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13	명사초청 강연회	· 일시 : 4월 16일 · 장소 : 서산시 문화회관 · 강사 : 김미경	지역주민들의 문화제고를 위해 문화특 강을 개최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 고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길러 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마 련함	
14	스산의 숨결	· 일시 : 1월 ~ 12월 · 발간부수 : 36면 / 2,500부 · 대상 : 회원, 출향인사등	문화원의 소식지인 스산의 숨결을 36 면 2,500부를 발간하여 회원 및 출향 인사 전국문화원등에 보급하여 향토문 화교향지, 향토사료지로 발전시킴	
15	향토사료관 운영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서산문화원	향토사료관의 상시 운영으로 지역 향토사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많은 내방객이 방문하는 지역의 산 교육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토 사료관을 연중 운영 함	
16	문화교육지원 사업	· 일시 : 1월 ~ 9월 · 대상 : 1명	지역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 램의 활성화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 해 보조요원 인건비를 지원 함	
17	민속자료연구·수집	· 일시 : 7월 ~ 12월 · 대상 : 오청취당	서산지역의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하여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이음으로써, 지 역문화의 경쟁력을 확보 함	
18	청소년 문학제	· 일시 : 4월 12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초, 중, 고 700명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문학적 정서를 함양하기위한 백일장을 개최와 이를 통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높여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함	

2008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2008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9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 일시 : 5월 16일 · 장소 : 금산 인삼엑스포 · 종목 : 줄넘기, 씨름 등 6종목	전통민속문화의 계승발전 및 도민화합 의 한마당 경기를 통해 선의 경쟁으로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 함	
20	노인일자리 사업	· 일시 : 3월 ~ 10월 · 대상 : 60세이상 노인 · 강좌 : 서예, 한문, 장구등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보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 환 경을 만들기 위함	
21	새터민 프로그램	· 일시 : 5월 25일 · 장소 : 서산관광농원 · 대상 : 새터민	새터민들의 결혼식을 통해 그들을 축 하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새터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화합하는 문 화 한마당을 펼침	
22	찾아가는 다도교실	· 일시 : 7월 ~ 8월 · 장소 : 1789부대, 부성초, 꿈이있는교실	문화적 혜택이 적은 지역아동센터, 초 등학교, 군부대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 가 다도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전통차 보급 및 우리차문화를 널리 알림	
23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	· 일시 : 8월 ~ 11월 · 장소 : 해당장소	서산의 갯벌을 활용한 갯벌추억만들기 프로그램과 역사적 인물을 극화한 창 작뮤지컬 공연을 개최 함	
24	해외문화교류	· 일시 : 10월 14일 ~ 21일 · 장소 : 독일, 프랑스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아 문화교 류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선진문화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지 역문화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 함	
25	제3회 서산시 평생학습축제 문해백일장	· 일시 : 9월 22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대상 : 각 읍면동 문해 교육대상자 100명	경필과 장문 부문으로 나누어 문해 백 일장을 개최하고 심사함	
26	향토사 대중화사업	· 일시 : 1월 ~ 12월 · 대상 : 오청취당	오청취당의 일대기를 만화로 제작하고 조선후기의 여류시인이었던 오청취당 의 문집을 번역 발간함	



지방문화학교



청소년 문학제



노인일자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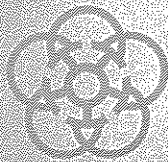
새터민 결혼식



지방문화원특성화사업(갯벌추억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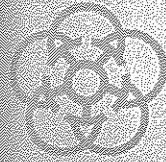


성년례



2008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문화교육프로그램	· 일시 : 2008. 1월 ~ 12월 · 장소 : 문화원 다목적실 · 참석인원 : 매회20여명	문화프로그램으로 문화향수를 조금이나마 해소할수 있도록 기초한문(천자문, 논어, 맹자, 대학, 중용)교실,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2	제10회 기벌포 대보름제	· 일시 : 2008. 2. 16 · 장소 :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 2,000여명	장승세우기(장승제), 길놀이, 창작연 날리기대회, 전통놀이 한마당, 윷놀이대회, 대보름 전통 체험프로그램(부럼, 액막이체험, 연만들기) 투호 및 인절미 떡치기, 보름음식나누기,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함	
3	노회두열사 추모제	· 일시 : 2008. 4. 19 · 장소 : 한산초등학교 · 참석인원 : 100여명	4.19의거때 희생되었던 서천지역의 열사 노회두씨를 추모하는 추모제로 서천초등학교 교정 위령비 앞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노회두 열사의 회생을 감사하고 제를 지내 드렸음	
4	상반기 문화가족유적답사	· 일시 : 2008. 5. 6 · 장소 : 경북 문경 · 참석인원 : 40여명	서천군민과 회원가족들을 대상으로 경북 문경세계 태조 왕건 촬영지의 흔적을 찾아 그지역의 역사와 유적지, 옛 선인들의 생활상들을 돌아봄으로 선인들의 발자취를 느낄수 있었음	
5	제9회 학생 문화 유적 답사	· 일시 : 2008. 5. 26 ~ 27 · 장소 : 충남 일원 · 참석인원 : 40여명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충남 일대 1박2일로 성주사지 - 남연군묘 - 남은들상여 - 덕산읍성 - 예덕상무 - 김정희고택 - 건축박물관(1일), 현충사 - 외암민속마을(2일) 옛 문화향기의 흔적을 찾아서 선인들의 생활상을 살펴봄	
6	학술대회 진포구대첩 발간	· 일시 : 2008. 6월~2008년 12월 · 내용 : 진포구대첩 논문 및 자료	서천의 역사 진포구대첩의 역사적인 의의와 당시의 상황을 옛 문헌의 자료를 통하여 학술대회를 열어 재해석하고 재조명하고 자료집으로 발간함	
7	제35회 청소년문예백일장 및 제8회 신석초백일장	· 일시 : 2008. 9. 4 · 장소 : 신석초시비일대 · 참석인원 : 200여명	신석초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35회 서천문화원 청소년문예백일장과 제8회 신석초백일장을 연계하여 초등부, 중·고등부 글짓기, 그리기, 붓글씨 등 3부문으로 개최하여 심사후 추후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	



2008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8	하반기 문화가족유적답사	· 일시 : 2008. 10. 18 · 장소 : 경기도 수원 · 참석인원 : 80여명	수원 화성은 옛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빼어난 경관과 수려한 풍광을 이용하여 정조때 인공적으로 화성을 건설하였으며 거중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곳으로 그 위상을 감상하며 옛 유적지를 돌아보았음	
9	작은영화관운영	· 일시 : 2008년 6월 ~ · 장소 : 서천문화원 · 상영 : 매주 금 오후6시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며 서천군내의 문화시설이 전무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서천문화원에서는 작은 영화관이나마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음. 가족영화를 우선으로 선별하여 상영하고 있음	
10	목은 이색선생 추모 한시백일장	· 일시 : 2008. 10. 28 · 장소 : 서천문화원 · 참여인원 : 50여명	목은 이색선생 추모 제1회 한시백일장을 개최하여 목은 이색선생을 기리며 한시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후세에 전하여 남기고자 함	
11	제8회 기벌포예술제	· 일시 : 2008. 10. 24 ~ 11. 14 · 장소 : 서천문화원, 문예의전당 · 참석인원 : 3,000여명	제8회기벌포예술제를 개막식, 전시(회화, 사진, 조각, 한지공예, 서예), 공연행사(서림국악원, 서천국악문화센터, 동백국악원, 색소폰동호회, 타무락, 심화영판소리 등), 개별행사(서의회, 서림문학회, 서천주부독서회, 서음캠퍼오케스트라, 서천관현악동호회, 서림국악원, 서천문화원) 등 주제로별 개최되었음	
12	제2회 충남시낭송회	· 일시 : 2008. 11. 7 · 장소 :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 150여명	우리지역 작가 신석초 시인의 시를 주제로 한 시극과 충남도내 시낭송가를 초대하여 1시간 30여분 동안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며 시극의 새로운 몸짓과 마음으로 전하여 지는 감동을 느끼며 여운을 갖게 하는 행사였음	
13	초대전 삼랑 구기순 한글서예전	· 일시 : 2008. 11. 1 ~ 10 · 장소 :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 1,000여명	서천문화원에서 전시사업을 서천출신인 작가를 공모하여 삼랑 구기순 한글서예전을 펼쳐 다양한 서체의 한글서에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음	
14	진명 권현 학술대회	· 일시 : 2008. 11. 14 · 장소 : 서천문화원 · 참석인원 : 100여명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기초강연(진명 권현의 회화관과 전시론), 이지양(성균관대 진명 권현의 우화시에 나타난 인정세태), 정경훈(충남대 진명 권현의 문학적 연구), 이소영(한국화가 인물화에 내재된 '사의성' 연구) 와 이소영 작가 특별전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2008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5	장애인 음악교실	· 일시 : 2008. 10월 ~ · 장소 : 시각장애인센터 · 참석인원 : 10여명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와 사회인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16	금석문 발간사업	· 일시 : '07. 1월 ~ '08년 12월 · 장소 : 서천군일대 · 선별 : 108기중33기 탁본	서천군 13개 읍·면의 전체의 금석문을 조사하여 108기를 선별, 30여개를 탁본, 금석문 입력, 번역작업으로 발간할 계획임	
17	향토민속발굴사업 "서천의 민속음악"	· 일시 : 2008. 5월 ~ 09. 2월 · 용역 : 한국문화정책연구소 · 부수 : 500부	점차 사라져가는 서천의 민속음악에 대한 연구 및 고찰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서천의 특색있는 민속음악의 특성, 즉 지역적 변별성을 확인하고 민속음악을 통한 서천 지역문화의 독창성과 애향심을 함양코자 함	
18	서천 현인집 발간	· 일시 : 2008. 9월 ~ 12월 · 용역 : 이관성 · 부수 : 200부	서천의 인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옛 문헌과 자료를 기본으로 인물에 대한 구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좀더 자료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간할 계획임	
19	들풍장 기초자료조사	· 일시 : 2008. 10월 ~ 09. 2월 · 장소 : 서천군 일대 · 용역 : 한국문화정책연구소 · 부수 : 200부	서천군 일대의 사라져가는 들풍장을 발굴하여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악보로 보급하고자 하여 들풍장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자료로 남기고자 함	
20	문화역사마을기꾸기 사업	· 일시 : 2006년 ~ 2008년 · 장소 : 한산동자북마을 · 참석인원 : 60여명	동자북 마을을 거점으로 하는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한산 소곡주'의 고유성 의미를 재해석하고 나아가 유·무형의 현대적 가치 생산을 통해 문화역사마을의 고유성을 활용한 지역거점마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2008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순국 제48주년 노획두열사 추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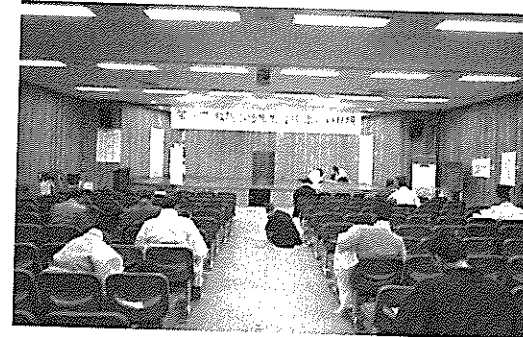
문화가족답사 화성



제2회 충남시낭송회



진명 권헌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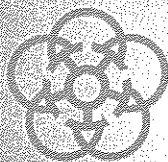
제1회 목은이색선생 추모 한시백일장

2008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세시풍속웃놀이	· 일시 : 2008. 2. 22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00명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 단결 및 민속놀이 계승	년1회
2	컴퓨터교실 「1, 2, 3」	· 일시 : 1화-2008. 8. 11 ~ 9. 1 2화-2008. 9. 17 ~ 10. 8 3화-2008. 10. 13 ~ 10. 31 (매주 월 ~ 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60명	컴퓨터 기초활용을 위한 윈도우 운영 및 인터넷 정보활용 방법 교육	년45회 문화활동
3	서예교실(1)	· 일시 : 2008. 7. 24 ~ 8. 13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30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 공체지도	년15회 문화활동
4	여성취미교실 「1,2」 (꽃꽂이 강습)	· 일시 : 1화-2008. 5. 27 ~ 7. 8 2화-2008. 11. 11 ~ 12. 30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40명	생활꽃꽂이 지도	년15 문화활동
5	청소년음악회	· 일시 : 2008. 12. 15 ~ 12. 19 · 장소 : 관내중, 고교 · 참석인원 : 1200명	청소년 대상으로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정서함양 기회마련	년3회 문화활동
6	제26회 내고장자랑 글짓기	· 일시 : 2008. 10. 25 · 장소 : 남서울대학교 · 참석인원 : 350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내고장자랑에 관한 글짓기 공모, 시상	시상은 11월 24일
7	제19회 애환의식 고취 그림그리기	· 일시 : 2008. 10. 25 · 장소 : 남서울대학교 · 참석인원 : 450명	관내 초·중·고교생대상으로 그림그리기 공모, 시상	시상은 11월 24일
8	제11회 경로효친 회화대회	· 일시 : 2008. 10. 25 · 장소 : 남서울대학교 · 참석인원 : 50명	관내 초·중·고교생대상으로 경로효친에 관한 서예공모, 시상	시상은 11월 24일
9	입상작품집 발간	· 발행 : 2008. 11. 22 · 발행부수 : 500부 260작품(국판컬라)	글짓기, 그림, 회화, 대회입상작품집 발간	500부

2008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제18회 내고장 문화유적답사	· 일시 : 2008. 6. 27 ~ 12. 11 · 장소 : 백제문화권 · 참석인원 : 270명	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문화에 대한 긍지와 애郷심을 함양시킴	년3회 문화활동
11	사이버향토 문화원관리	· 일시 : 연 중 · http://sunghwan.cult21.or.kr	각종 지역 정보 및 지역 문화 활동	매일
12	노인교양강좌	· 일시 : 2008. 5. 7 ~ 7. 16 · 장소 : 성환노인학교 · 참석인원 : 60명	건강한 노인생활 및 레이크션 강좌	년20회 문화활동
13	제9회 향토작가 초대전	· 일시 : 2008. 10. 23 ~ 10. 28 · 장소 : 문화회관성환분관 · 참석인원 : 600명	내고장 출신의 미술작가의 작품을 전시 (35작품)	년1회 문화활동
14	천안의문학사 자료1 발간	· 발행 : 2008. 12. 26 · 발행부수 : 1,000부 (국판)	천안지방의 문학사 자료를 발굴, 조사, 연구, 정리 우리고장의 문학사를 알 수 있도록 책지발간함	1,000부
15	봉선홍경사지 학술발표회	· 일시 : 2008. 12. 29 · 장소 : 문화회관성환분관 소공연장 · 참석인원 : 100명	성환읍에 있는 국보7호 봉선홍경사 사적갈비라는 문화재가 갖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내용을 학계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발표회 개최	년1회 문화활동
16	청소년문화강연회	· 일시 : 2008. 12. 20 ~ 30 · 장소 : 관내 중, 고교 · 참석인원 : 1,000명	관내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에 관한 강의	년3회 문화활동
17	문화사랑방 「문화사랑-천안」 발간	· 발행 : 2008. 11. 24 · 발행부수 : 500부 (국판컬라)	일반문화자료, 각종통계, 문화시설, 향토사자료, 천안소개 등 천안지역의 문화와 예술 안내 및 지역홍보, 학습보조자료의 역할을 담당할 자료집을 발간	500부
18	향토민속발굴사업 「천안의 민담-성환읍편」 발간	· 발행 : 2008. 12. 30 · 발행부수 : 1,000부 (4*6배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소멸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전통문화중 전설, 설화의 조사, 보존으로 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기여	1,000부



2008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세시풍속웃놀이



여성취미교실(꽃꽂이 강습)



우리고장 문화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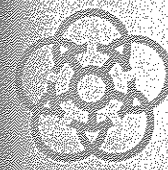
청소년 문화강연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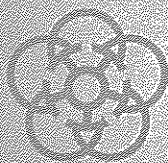


노인 교양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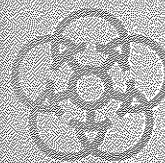
2008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구정마을 전통문화행사	· 일시 : 2008. 2월 20일 · 장소 : 천안시 광덕면 구정마을 · 참석인원 : 약 300여명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정월대보름에 행해졌던 줄다리기행사와 마을의 안녕 을 비는 산신제와 장승제를 진행하여 민족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함	
2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 일시 : 2008. 5월 ~ 11월 · 장소 : 아우내도서관 노인대학실 · 참석인원 : 25명	실버시대를 지향하며 어른신 25분께 서 오카리나를 배우고 각 행사에 초청 공연을 함	
3	결혼이주민 참여프로그램	· 일시 : 2008. 6월 ~ 11월 · 장소 : 아우내문화원 1층회의실 · 참석인원 : 25명	다문화가족인 결혼이주여성들을 대 상으로 문화,예절등을 배우고 참여 함	
4	제24회 단오절민속놀이	· 일시 : 2008. 6월 5일 · 장소 : 병천면 아우내장터 · 참석인원 : 3000여명	단오절을 맞이하여 8개읍면동의 주민 들이화합하고 참여하여 전통 민속놀이 를 계승발전을 목표로 함	
5	제34회 백일장및사생대회	· 일시 : 2008. 9월 28일 · 장소 : 유관순열사 사우 내 · 참석인원 : 400여명	천안시 지역 118개 초등학교학생들이 참 석하여 유관순열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의 정신을 배움	
6	청소년 문화유적답사	· 일시 : 2008. 10월 15, 24, 29일 · 장소 : 부여, 공주 유적지 · 참석인원 : 350여명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주, 부여박 물관 및 유적지를 답사하여 문화 교육 을 실시 함	



2008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7	전입주민문화 유적답사	· 일시 : 2008. 10월 15일 · 장소 : 속리산국립공원 · 참석인원 : 45명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전입해온 주민 들을 대상으로 문화답사를 실시 함	
8	아우내문화원 문화학교	· 일시 : 2008. 10월 26 · 장소 : 아우내 문화원 앞 광장 · 참석인원 : 400여명	아우내 문화원 앞 광장에서 남사당패 의 공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목표로 함	
9	문화가족을위한 유적답사	· 일시 : 2008. 11월 25일 · 장소 : 전주박물관 진주성 · 참석인원 : 40여명	아우내문화원 문화가족을대상으로 병 천의 인물인 충무공 김시민장군의 업 적을 배우러 유적답사를 함	
10	외국인 한국어프로그램	· 일시 : 2008. 12월 ~ 내년 3까지 · 장소 : 아우내문화원1층회의실 · 참석인원 : 20여명	지역 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의 배움을 주어 내년도 한국어능력시 험을 대비 함	
11	정연오카리나 프로그램	· 일시 : 2008. 11월 ~ 내년3월까지 · 장소 : 아우내문화원 · 참석인원 : 25명	실버오카리나 공연팀의 사업을 지속적 으로 운영함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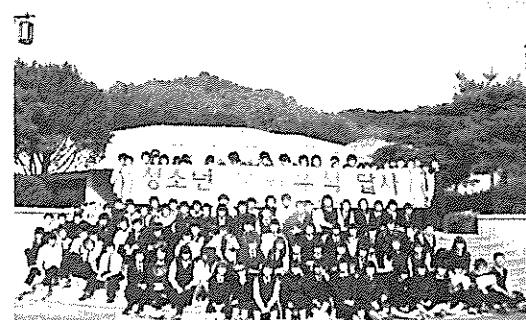
2008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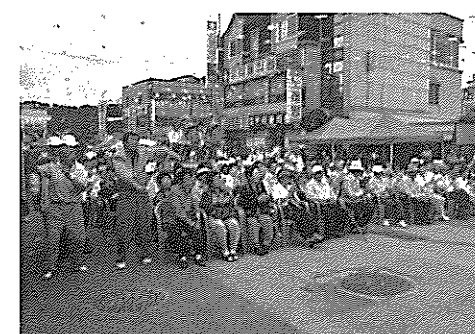
남사당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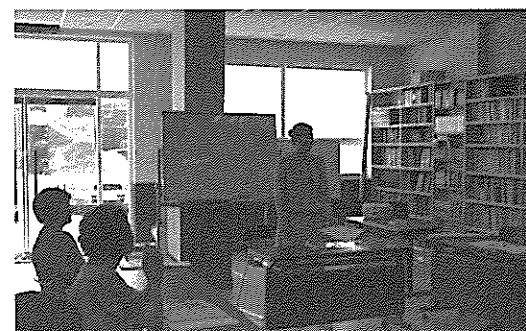
문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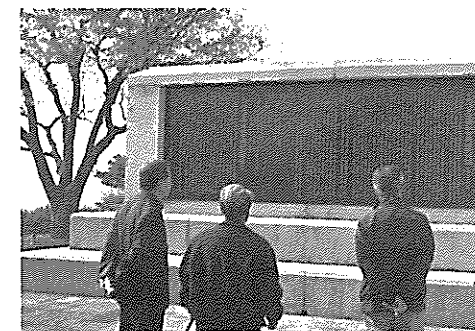
청소년 문화유적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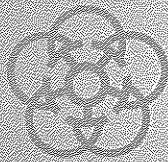
단오절 민속놀이



외국인 한국어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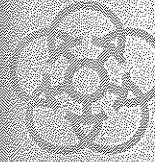
문화가족을 위한 유적답사



2008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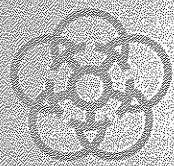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2008년도 신년교례회	· 일시 : 1월 6일 11시 · 장소 : 한일프라자 · 참석인원 : 300명	- 예산군내 각 기관 단체 임직원 참석 - 신년인사로 거행	
2	갈신리장승제	· 일시 : 음력 정월 5일 · 장소 : 대흥면 갈신리 · 참석인원 : 100명	- 민속제례거행 -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	
3	조곡리산신제	· 일시 : 음력 정월 보름 · 장소 : 신암면 조곡리 · 참석인원 : 90명	- 민속제례거행 -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	
4	교촌리행당제	· 일시 : 음력 정월 7일 · 장소 : 대흥면 교촌리 · 참석인원 : 200명	- 민속제례거행 -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	
5	문화가족문화탐방	· 일시 : 12월 3일 · 장소 : 고궁박물관/민속박물관 · 참석인원 : 100명	- 예산문화원 문화가족 친목 및 문화 유적 탐방행사	
6	예당호반영화제	· 일시 : 7월 1일 ~ 8월 31일 · 장소 : 예당호반무대 · 참석인원 : 2,300명	- 다양한 영화와 지역의 예술단체들의 공연으로 진행	
7	청소년하계 수련활동	· 일시 : 7월 26일 ~ 7월 27일 · 장소 : 영월 동강 · 참석인원 : 80명	-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활기찬 2 학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수련프로 그램	
8	추사선생추모제	· 일시 : 10월 11일 · 장소 : 추사묘일원 · 참석인원 : 200명	-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소재 추사 김정희선생묘소에서 시행	
9	추사김정희선생 추모전국회대회	· 일시 : 10월 12일 · 장소 : 예산공설운동장 특설과장 · 참석인원 : 700명	- 전국의 서예인들의 서예 경연 당일 회호 후 심사 및 시상 장원 국무 총리상 수여	
10	추사제전국회대회	· 일시 : 10월 12일 · 장소 : 예산공설운동장 특설과장 · 참석인원 : 200명	- 추사제의 선양을 위하여 2006년 부터 시행	
11	청소년전국회대회	· 일시 : 10월 11일 · 장소 : 추사고택 특설과장 · 참석인원 : 200명	- 전국청소년 응모작품 중 특선이상확 보학생 초청 시필 후 문화관광부 장관상 시상	



2008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2	예담사진전	· 일시 : 12월 18일 · 장소 : 예산문화원 전시실 · 참석인원 : 1000명	- 문화원 사진동호회 정기 사진전	
13	여섯줄안에서 정기공연	· 일시 : 12월 18일 · 장소 : 예산군문예회관 · 참석인원 : 500명	- 문화원 직장인밴드 동호회 불우 이웃돕기 정기공연	
14	수석전시회	· 일시 : 10월 11일 ~ 12일 · 장소 : 예산공설운동장 1층 · 참석인원 : 600명	- 예산수석회 회원과 초대전으로 시행	
15	전국회대회 수상작품 순회전	· 일시 : 12월 1일 ~ 20일 · 장소 : 예산문화원전시실 천안충청남도학생회관 · 참석인원 : 500명	-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회대회 수상작품	
16	월요서예강좌	· 일시 : 매주 월요일 · 장소 : 문화원 서예실 · 참석인원 : 연인원 150명	-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17	한국화강좌	· 일시 : 매주 화요일 · 장소 : 문화원 서예실 · 참석인원 : 연인원 90명	-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18	수요서예강좌	· 일시 : 매주 수요일 · 장소 : 문화원 서예실 · 참석인원 : 연인원 140명	-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19	한학강좌	· 일시 : 매주 수요일 · 장소 : 문화원 회의실 · 참석인원 : 연인원 100명	-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20	주부노래교실	· 일시 : 매주 목요일 · 장소 : 문화원 공연장 · 참석인원 : 연인원 500명	-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21	어린이발레스쿨	· 일시 : 매주 화·목요일 · 장소 : 문화원 다목적실 · 참석인원 : 연인원 250명	-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22	디지털카메라강좌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 장소 : 문화원 회의실 · 참석인원 : 연인원 100명	-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서 시행	



2008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2008 예산문화원 문화탐방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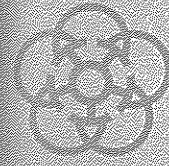
교촌리 행당제



예담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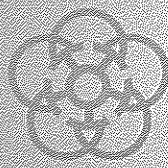


청소년 하계 수련활동



2008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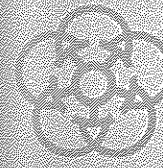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신년교례회	· 일시 : 2008. 1. 2. 11:00 · 장소 : 그랜드호텔 갤러리홀 · 참석인원 : 600여명	아산시 기관단체장과 문화가족 및 시민이 참석하여 한 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함	
2	산우회	· 일시 : 2008. 1. 4 · 장소 : 아산 영인산 · 참석인원 : 45명	아산 영인산에서 1년동안 무탈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산신제를 지냄	
3	이사회 개최	· 일시 : 2008. 1. 24 · 장소 : 온양문화원(2층) · 참석인원 : 27명	당면업무 협의정관개정안	
4	孝문화탐방	· 일시 : 2008. 1. 25 · 장소 : 대전 · 참석인원 : 45명	국립중앙과학관, 선사박물관,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돌아보며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5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08. 1. 30 · 장소 : 온양문화원 · 참석인원 : 98명	2007 사업실적 결산안 승인 2008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6	산우회	· 일시 : 2008. 2. 15 · 장소 : 전복순창 강천산 · 참석인원 : 45명	산과 우정을 함께 하며 등산을 통하여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	
7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 일시 : 2008. 2. 20 · 장소 :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 참석인원 : 600명	정월보름을 맞아 우리민족의 밝은 사랑을 반영한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엿치기등 다채로운 행사 제공	
8	孝문화탐방	· 일시 : 2008. 2. 29 · 장소 : 경남 산청 · 참석인원 : 45명	목면시배유지, 성철대종사생가, 남사에 담촌을 돌아보며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9	산우회	· 일시 : 2008. 3. 7 · 장소 : 대전 대둔산 · 참석인원 : 45명	산과 우정을 함께 하며 등산을 통하여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	



2008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0	孝문화탐방	· 일시 : 2008. 3. 27 · 장소 : 충북 진천 · 참석인원 : 45명	김유신장군탄생지, 보탑사, 농다리 전 시간, 중박물관을 돌아보며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11	아산 타이딩 (소식지)발간	· 일시 : 2008. 3. 28 · 배부처 : 문화가족 및 출향인사 · 배부수 : 1,000부	아산과 온양문화원의 소식을 매분기 발간하여 문화가족과 시민 및 출향인 사에게 배부	
12	산우회	· 일시 : 2008. 4. 4 · 장소 : 진안 마이산 · 참석인원 : 45명	산과 우정을 함께 하며 등산을 통하여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	
13	이사회 개 회	· 일시 : 2008. 4. 10 · 장소 : 온양문화원(2층) · 참석인원 : 27명	당면업무 협의	
14	孝문화탐방	· 일시 : 2008. 4. 22 · 장소 : 강원도 정선 · 참석인원 : 45명	정선5일장, 화암동굴, 아라리촌을 돌아 보며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5	성웅이순신축제	· 일시 : 2008. 4. 25 ~ 4. 30 (6일간) · 장소 : 현충사 곡교천일원 · 참석인원 : 600,000여명	애국애족정신과 충효정신을 기리며 그 분이 일생동안 행해왔던 삶의 궤적을 참여와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함	
16	산우회	· 일시 : 2008. 5. 2 · 장소 : 괴산 도명산 · 참석인원 : 45명	화양구곡의 절경을 낀 계곡미가 일품 인 도명산을 산행하며 상호간에 친목 을 도모함	
17	해외문화탐방	· 일시 : 2008. 5. 19 ~ 2. 3 · 장소 : 중국 · 참석인원 : 41명	중국 장가계, 원가계, 장사, 천문산등 을 돌아보며 해외의 문화를 느끼며 체 험하는 기회를 제공	
18	이사회 개 회	· 일시 : 2008. 5. 28 · 장소 : 온양문화원(2층) · 참석인원 : 28명	당면업무 협의	



2008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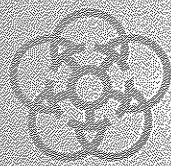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9	孝문화탐방	· 일시 : 2008. 5. 30 · 장소 : 경북 예천 · 참석인원 : 45명	용문사, 초간정사, 화룡포전망대, 장안 사를 돌아보며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 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20	산우회	· 일시 : 2008. 6. 5 · 장 소 : 대야산 · 참석인원 : 45명	산과 우정을 함께 하며 등산을 통하여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	
21	孝문화탐방	· 일시 : 2008. 6. 26 · 장소 : 서울 · 참석인원 : 45명	서울국립중앙박물관, 화폐금융박물관, 형무소, 역사박물관등을 돌아보며 문 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22	아산 타이딩 (소식지)발간	· 일시 : 2008. 6. 30 · 배부처 : 문화가족및출향인사 · 배부수 : 1,000부	아산과 온양문화원의 소식을 매분기 발간하여 문화가족과 시민 및 출향인 사에게 배부	
23	이사회 개 회	· 일시 : 2008. 7. 3 · 장소 : 온양문화원(2층) · 참석인원 : 28명	당면업무 협의	
24	산우회	· 일시 : 2008. 7. 4 · 장소 : 북바위산 · 참석인원 : 45명	산과 우정을 함께 하며 등산을 통하여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	
25	문화탐방	· 일시 : 2008. 7. 25 · 장소 : 경남 함양 · 참석인원 : 45명	상림공원, 창계서원, 용추계곡, 거여정 을 돌아보며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 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26	산우회	· 일시 : 2008. 8. 1 · 장소 : 충북 제천 금수산 · 참석인원 : 45명	산과 우정을 함께 하며 등산을 통하여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	
27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 일시 : 2008. 8. 4 ~ 8. 8 · 장소 : 온양문화원 · 인원 : 관내초중학생 100명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들에게 교양 강좌 및 취미생활을 실시하고, 문화유 적에 대한 지식을 함양케하기 위하여 문화학교 운영	

2008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8	이사회 개최	· 일시 : 2008. 8. 12 · 장소 : 온양문화원(2층) · 참석인원 : 28명	당면업무 협의	
29	실버문화학교 짚풀공예 현장견학	· 일시 : 2008. 8. 20 · 장소 : 짚풀생활사 박물관, 인사동 · 참석인원 : 45명	짚풀공예 작품 전시장인 짚풀 생활사 박물관을 견학하여 짚풀공예 체험을 하였으며 인사동을 둘러보고 우리것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	
30	孝문화탐방	· 일시 : 2008. 8. 29 · 장소 : 전남 무안 · 참석인원 : 45명	무안항공우주전시관, 화산백련지, 초의 선사유적지, 조금나루를 둘러보고 문 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31	산우회	· 일시 : 2008. 9. 5 · 장소 : 지리산 · 참석인원 : 45명	산과 우정을 함께 하며 등산을 통하여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	
32	고향의밤	· 일시 : 2008. 9. 13 · 장소 : 온양문화원 · 인원 : 출향인사외 120명	고향인사들이 추석을 맞아 고향에 온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서로간의 화합의 시간을 가지며 지역문화를 위하여 관심 갖는 시간을 가짐	
33	강사및 문화학교회원 단합대회	· 일시 : 2008. 9. 21 · 장소 : 공주 · 인원 : 45명	강좌강사및 회원들이 공주시 일대 석 장리 박물관,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웅진교육박물관을 탐방하였으며 알밤 줍기로 회원들간의 단합 도모	
34	孝문화탐방	· 일시 : 2008. 9. 26 · 장소 : 경북 고령 · 참석인원 : 45명	산림녹화기념숲, 우륵박물관, 대가야박 물관, 왕릉전시관등을 둘러보고 문화 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 회를 제공	
35	사회복지박람회	· 일시 : 2008. 9. 27 ~ 28 · 장소 : 신정호 유원지 · 참석인원 : 40명	짚풀공예 어른선들과 염색, 매듭 강좌 생들이 참여하여 아산지역민에게 체 험의 기회를 제공	
36	아산 타이딩 (소식지)발간	· 일시 : 2008. 9. 30 · 배부처 : 문화가족및출향인사 · 배부수 : 1,000부	아산과 온양문화원의 소식을 매분 기 발간하여 문화가족과 시민 및 출향 인사에게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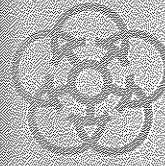
2008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37	이사회 개최	· 일시 : 2008. 9. 30 · 장소 : 온양문화원(2층) · 참석인원 : 28명	당면업무 협의	
38	온양온천 문화예술제	· 일시 : 2008. 10. 2 ~ 10. 4 · 장소 : 신정호관광단지 · 인원 : 2,000여명	아산에서 벌어지는 가을 축제중 설화 예술제, 맹정승축제, 온궁행렬제연등 3 대 축제를 통합하여 실시함	
39	충남 평생학습축제	· 일시 : 2008. 10. 6 ~ 10. 7 · 장소 : 신정호국민관광단지 · 참석인원 : 20명	충남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여 아산지 역민에게 잊혀져가는 짚풀공예체험의 기회를 제공	
40	전주실버문화축제	· 일시 : 2008. 10. 10 ~ 10. 11 · 장소 : 전주 · 참석인원 : 33명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2008전주 실 버문화축제 체험마당에 참가, 새로운 짚풀문화를 알리는데 일조	
41	孝문화탐방	· 일시 : 2008. 10. 31 · 장소 : 전북 장성 · 참석인원 : 45명	문화현장 답사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42	산우회	· 일시 : 2008. 11. 8 · 장소 : 구미 금오산 · 참석인원 : 45명	산과 우정을 함께 하며 등산을 통하여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	
43	이사회 개최	· 일시 : 2008. 11. 26 · 장소 : 온양문화원(2층) · 참석인원 : 28명	당면업무 협의	
44	孝문화탐방	· 일시 : 2008. 11. 28 · 장소 : 광주직할시 · 참석인원 : 45명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의 원효사, 충 장사를 돌아보며 문화현장 답사로 문 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45	산우회	· 일시 : 2008. 12. 5 · 장소 : 예산 덕숭산 · 참석인원 : 45명	산과 우정을 함께 하며 등산을 통하여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	



2008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46	노인위안잔치	· 일시 : 2008. 12. 8 · 장소 : 온양문화원 대강당 · 인원 : 300여명	충청 연예인 자원봉사단원들과 함께 공연을 통해 노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을 가짐	
47	작품전시회	· 일시 : 2008. 12. 10 ~ 12 · 장소 : 시청1층로비 · 인원 : 500여명	회원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전시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원을 알림	
48	문화탐방	· 일시 : 2008. 12. 26 · 장소 : 충남 논산 · 참석인원 : 45명	문화현장 답사로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49	아산 타이딩 (소식지)발간	· 일시 : 2008. 12. 30 · 배부처 : 문화가족및출향인사 · 배부수 : 1,000부	아산과 온양문화원의 소식을 매분기 발간하여 문화가족과 시민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	
50	송년의 밤	· 일시 : 2008. 12. 31 · 장소 : 방현리 방수마을 · 인원 : 300여명	회원들간의 단합의 시간을 가지며 가는 해를 잘 마무리하고자 함	
51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2008. 1. 2 ~ 12. 31 · 장소 : 온양문화원 · 인원 : 300여명	도자기, 천연염색, 밥로스, 서예, 전통매듭, 다도, 칠보공예, 한국화, 생활영어, 이주민 한국어, 짚풀공예, 선물포장, 북아트, 디지털 카메라	
52	향토민속발굴	· 일시 : 2008. 8. 1 ~ 12. 31 · 장소 : 아산시 일원 · 인원 : 5명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향토 민속을 발굴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자료 및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함	
53	아산독립만세운동기념추진위원회	· 일시 : 2008.11. 1 ~ 12. 31 · 장소 : 온양문화원 자료실 · 인원 : 27명		



2008년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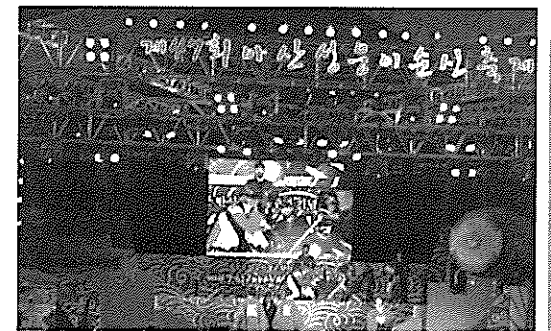
정월 대보름민속놀이 한마당



해외문화탐방



효 문화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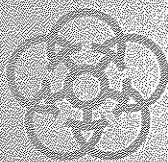
제47회 아산성웅 이순신축제



산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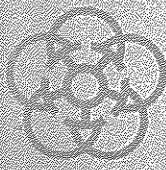
작품 전시회



2008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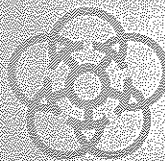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어버이날 호 콘서트	· 일시 : 5. 29. 목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참석인원 : 300명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 그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새해맞이 우리소리 한마당	· 일시 : 1. 3 10:00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참석인원 : 500명	2008년 해맞이 우리소리 한마당을 통하여 군민의 화합단결	
3	풍물교육 및 연습	· 일시 : 연중 · 장소 : 농악대사무실 · 참석인원 : 80명	매주 월~금 까지 옷다리 풍물, 사물 난타 교육 및 강좌	
4	국악단 교육 및 연습	· 일시 : 연중 · 장소 : 풍물사무실 · 참석인원 : 35명	매주 목요일은 남도민요 및 판소리 교 실 운영 토요일 경기민요 교육 각종 초청 공연 및 봉사공연 실시	
5	대보름맞이 웃놀이 대회	· 일시 : 2. 22 금. 11:00 · 장소 : 군민회관소회의실 · 참석인원 : 50명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웃놀이를 개최하며 문 화예술인의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6	향토사연구 활동	· 일시 : 연중 · 장소 : 연기군내 및 군외 · 참석인원 : 20명	향토사로조사연구 활동 및 내 고장 문 화교육	
7	문화유적답사	· 일시 : 5 ~ 12월 · 장소 : 연기군내, 도내 · 참석인원 : 250명	유적지 순례를 통한 내고장 문화 알리 기 및 유적답사	
8	경로효친의 달 행사	· 일시 : 4. 29 화. 9:00 · 장소 : 덕산 세심천, 수덕사 · 참석인원 : 250명	65세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적 답사 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즐거 움을 알림과 동시에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있음	
9	주부교양강좌 (다도교실)	· 일시 : 연중 · 장소 : 1월 ~ 12월 · 참여인원 : 20명	주부들의 교양증진 및 취미활동을 위 한 다도교실 운영	
10	독서의 계절 독후감 공모	· 일시 : 10월 ~ 12월 · 대상 : 연기군내 초중고 · 참여인원 : 50명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연기군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위인전을 읽고 독후감 공모 개최	
11	2008년 노인학교 운영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군민회관소회의실 · 대상 : 연기군내 어르신 · 참여인원 : 30명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춤강 좌 (부채춤, 아리랑, 살풀이 등)	



2008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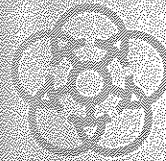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2	성년의 날 행사	· 일시 : 5. 29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대상 : 관내고등학교 재학생중 시설아동 · 참석인원 : 5명	전통방식에 따른 우리 고유의 성년식 을 지역고등학교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문화원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성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 어줌	
13	가요교실 운영	· 일시 : 연중 · 장소 : 군민회관소회의실 · 참석인원 : 100명	건전가요반 운영(매주 목요일 오후 2~4까지 개최하였으면 연말에는 불우 이웃돕기 노래자랑을 펼침	
14	어린이가야금 기타교실 운영	· 일시 : 4월 ~ 10월 · 장소 : 향토사료실 국악교실 · 대상 : 40명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취미 및 특기활동 배양	
15	효자효부표창	· 일시 : 5. 29 · 장소 : 군민회관대강당 · 대상 : 개음면효자효부 · 효행자 : 9명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효자효부를 선출 하여 표창 함	
16	독서실운영	· 일시 : 연중 · 장소 : 연기향토사무실 · 참석인원 : 연기군민	각종 고서적 및 월간 주간지를 구입하 여 연기군민이 문화원을 방문시 자유 롭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독서실을 운 영하고자 함.	
17	충남문화 예술제 및 연기문화예술인의 밤 개최	· 일시 : 11월 12월 · 장소 : 당진문화회관 연기군민회관 · 참석인원 : 연기군민	충남도내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 여 충남의 문화예술발전을 모색하 고 창작의욕 진작및 향토고유문화창달 의 계기를 마련 및 군내 문화예술인의 밤 개최	
18	충효사상고취 청소년 웅변대회 개최	· 일시 : 10. 24. 11:00 · 장소 : 연기대접공원 · 참석인원 : 10명	충효의 본고장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 들에게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자 웅변 대회를 개최	
19	문화의 달 행사	· 일시 : 10. 10. 09:00 · 장소 : 전주 한옥마을 · 참석인원 : 30명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문화 인이 한자리에 모여 행사를 가지고자 함	
20	문화달력 편찬	· 편찬인원 : 5명 · 매수 : 1000매	연기군내 유적지를 담은 2009년도 달력 편찬함	



2008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1	찾아가는 무로영화상영 및 특별공연	· 일시 : 7월 ~ 12월 · 장소 : 6개면 · 참석인원 : 연기군민	6개 면을 돌며 문화에 소외되어 살고 있는 분들을 방문하여 영화상영 및 특 별공연(가족유지컬-피터팬)을 함으로 써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일깨워 줌	
22	판소리 및 가아금 교실 운영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국악교실 · 참석인원 : 15명	어린이들을 위한 판소리 교실 운영 및 가아금 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활용	
23	풍물단 악기구입	· 일시 : 11월	풍물교실 운영에 따른 악기구입	
24	이주여성교육	· 일시 : 4월 ~ 11월 · 장소 : 문화원 강의실 · 참석인원 : 30명	연기군내에 결혼하여 이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 (한글, 한국춤, 예절, 음 식, 전통놀이, 노래, 매듭공예, 한지공 예 등)	
25	연맥서화 전시회 (생활속의 서예전)	· 일시 : 12. 5 ~ 7 · 장소 : 군민회관소회의실 · 참석인원 : 50명	연기군의 맥을 잇고 있는 서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시회를 개최코자 함	
26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특강	· 일시 : 8월 ~ 12월 · 장소 : 문화원교육실 · 참석인원 : 100명	어린이들의 방학을 이용한 바둑교실, 종이접기교실, 가아금교실, 난타교실, 사물교실, 연기역사알기교실등 교육	
27	제26회 백제대제	· 일시 : 4. 15 · 장소 : 전의면 비암사 · 참석인원 : 500명	백제대제의 기원은 계유년(673년) 4 월15일 백제 유민들에 의해 석불비상 8개를 조성하여 비암사를 짓고 시납 하여 국왕 대신과 칠세부모를 위한 제 를 올린데 기원을 둔다(백제의 역대제 왕과 대신의 혼령을 위로하고 백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례	
28	전통소리봉사단 운영	· 일시 : 연중 · 장소 : 국악교실 운영 · 참석인원 : 30명	전통소리봉사단을 운영하며 연기군내 및 도내 우리전통소리가 필요한곳에 소리봉사를 펼침. 또한 후세들에게 우리소리를 알리는 계기마련	



2008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9	제8회 연기대첩제	· 일시 : 10. 24 10:30 · 장소 : 연기대첩공원 · 참석인원 : 100명	고려시대 몽고합단적(哈丹賊)이 쳐들 어 왔을 때 이들을 연기정좌산(燕岐正 左山)에서 물리치므로 풍전등화 같았 던 나라를 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 이에 연기대첩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국난극복의 충의정신을 상 기하는 교육으로 삼고자 하는데 있음	
30	유스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일시 : 10월 13일 · 장소 : 연기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 1500명	군민화합을 위한 유스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개최	
31	62사단 국군장병위문공연	· 일시 : 11. 5 14:00 · 장소 : 농어민문화체육관 · 참석인원 : 1000명	62사단 국군장병 및 가족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펼쳤음	
32	연기군민 생활강좌 개최	· 일시 : 1월 ~ 12월까지 · 장소 : 군민회관내 강의실 · 참석인원 : 연기군민	연기군민 생활강좌 및 평생교육을 통 하여 급변하는 세계와 지식의 고속성 장에 따른 그리고 세대간의 엄청난 갭 을 극복하고 특별사나 행복시에 따른 도시민의 자질을 한 박자 빠르게 교육 받는 과정 개인이 따라가기 보다는 전문가의 지 식에서 요점을 듣는 것이 교육에 효용 성을 높이며 군민간의 애정과 리더쉽 배양에 큰 힘을 될 것이라 믿어 평생 문화교육을 실시	
33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7. 1 ~ 12월까지 · 장소 : 문화원강의실 · 참석인원 : 연기군민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성 계 발 및 지식기반 창출 건전여가 문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	
34	연기문화해설사 양성교육	· 일시 : 11월 ~ 12월 · 장소 : 문화원강의실 충남도내 · 참석인원 : 37명	백제권에 있는 연기군내 유적지 및 유 물을 소개할 수 있는 연기문화해설사 양성교육	



2008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연기대첩제 헌화식



소리봉사단 공연



연기군민 생활강좌(황수관 박사 초청강연)



무료영화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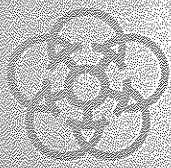


가야금교실운영



2008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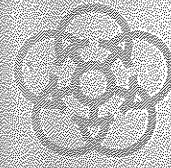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1	2008 신년 교례회	· 일시: 1. 3 오전 11시 · 장소: 아리랑뷔페 · 참석인원: 300명	· 신년사 · 축사 · 상호교례 · 다과 및 오찬	새해를 맞아 군내 각 기관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 을 모시고 새해인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단결을 다짐하 는 신년하례식
2	문화학교	· 기간: 1. 4 ~ 2. 2 · 장소: 청양문화원 · 수료인원: 77명	· 동계청소년문화학교 -미술교실 -피오피교실 -종이접기교실 -책속놀이터교실 -댄스스포츠교실 -아이클레이교실(계6강좌) -영화상영(무료)	문화적 기반시설이 미약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 학기간중 다양한 문화강좌 를 개설함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방학을 보 낼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 마련
		· 기간: 7. 28 ~ 8. 22 · 장소: 청양문화원 · 수료인원: 69명	· 하계청소년문화학교 -미술교실 -피오피교실 -종이접기교실 -칼라믹스교실 -행복한논술교실 -발리댄스교실 -폴리머클레이교실 (계7강좌) -영화상영(무료)	수료식때 강좌별 발표회 시간을 가져 문화학교 수업 기간동안 능동적이고 적극 적인 수업참여 유도
3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	· 일시: 4. 26 10:30 ~ 17:00 · 장소: 칠갑산 장승공원일원 · 참석인원: 10,000명	· 본행사 -개막식 -칠갑산장승대제 -장승명문식 -장승깎기시연 -마을장승제시연 -가족장승깎기 · 부대행사-학생그리기대회 -가족허수아비창작모전 -나만의 우표만들기 -소원성취기원문달기 -소지율리기 -윤금선무용단 초청공연 -국악인초청공연 -공예품 전시,판매 -소달구지타기체험 -봉산탈춤공연 -두레중물단공연 -전통민속놀이 읍면대향경기 -각설이공연,구봉예술단공연 -페이스페인팅 -가훈씨주기, 사진전시회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제일의 장승문화 보존지역으로 자 리매김하여 칠갑산을 연계 한 관광문화 축제로 육성



2008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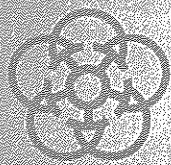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4	문화회원 유적지 순례	제1차 · 일시 : 5. 16 · 참여인원 : 38명	· 순례장소 여주, 음성 문화유적지 - 명성왕후생가, 세종대왕릉, 신륵사, 큰바위 얼굴 조각공원	유적지순례를 통해 문화 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체험하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
		제2차 · 일시 : 11. 4 · 참여인원 : 30명	· 순례장소 영주시 문화유적지 - 부석사, 선비촌,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5	지역사회 교육	· 응모기간 : 6. 1~6. 20	· 충의선열추모 한글작품공모전 - 특선(초등1, 중등1, 고등1) - 가작(초등1, 중등1, 고등1) - 입선(초등2, 중등2, 고등2) - 장려(초등2, 중등2, 고등2)	
6	청소년 역사체험 순례	· 1차 : 6. 17 (99명) · 2차 : 7. 11 (101명) · 3차 : 7. 15 (57명)	· 충남권 문화유적지 및 현충(충의)시설 순례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민족정기선 양과 호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 순례장소 서산마애삼존불, 간월도간월암, 해미읍 성, 김좌진장군생가, 한용운선생사당	· 1차 : 합천초등학교 · 2차 : 청양중학교 · 3차 : 청신여자중학교
7	문화가족 씨름운영	· 기간 : 1. 3 ~ 12. 30 · 장소 : 문화원 3층	· 국악교실(가야금, 장구, 민요)	· 국악교실
		· 기간 : 3. 7 ~ 3. 8 · 장소 : 문화원 전시실	· 제5회 청양군 한국춘란전시회	· 청양난우회
		· 기간 : 6. 3 ~ 10. 31 · 장소 : 문화원 2층	· 풍물교실	· 청무풍물패
		· 일시 : 6. 27 · 장소 : 전복익산	· 조상현장답사	· 정산 풍수지리학회 청양학회
		· 기간 : 7. 7 ~ 12. 29 · 장소 : 문화원 2층	· 대금교실	· 청양 대금동호회
		· 기간 : 8. 1 ~ 11. 28 · 장소 : 정신면사무소	· 정산 풍물교실	· 정산 풍물동아리
		· 기간 : 8. 4 ~ 11. 27 · 장소 : 정신면사무소	· 정산 서예교실	· 정산 서예동아리



2008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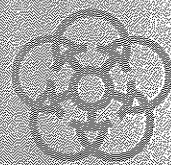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7		· 1차 : 8. 29(11명) · 2차 : 10. 21(15명) · 3차 : 11. 22(13명)	· 제1차 향토사연구위원회 조사활동 전남 영광 문화유적지 (불갑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법성포)	· 청양향토사연구회
			· 제2차 향토사연구위원회 조사활동 청양군 관내 문화유적지 (농암리 천주교 성지순례 조계종 죽림사원)	
			· 제3차 향토사연구위원회 조사활동 충남권 문화유적지 (백제역사 재현단지, 미암사(철비위), 신라 최치원작 국보8호, 임진왜란 유공지비군)	
		· 기간 : 9. 17 ~ 12. 8 · 장소 : 문화원 3층	· 한국무용강좌	· 청양 무용회
		· 기간 : 9. 25 ~ 9. 26 · 장소 : 문화원 전시실	· 제6회 청양군 서우회 서.화전	· 청양군 서우회
		· 일시 : 10. 11 · 장소 : 칠갑산 자연 휴양림 야외공연장	· 한사랑 음악회	· 음악새를 한사랑
		· 기간 : 10. 11 ~ 10. 17 · 장소 : 문화원 전시실	· 한국미술협회 청양지부전	· 청양군 미술협회
		· 기간 : 10. 30 ~ 11. 1 · 장소 : 문화원 전시실	· 제14회 청양칠갑사진회 회원전	· 청양칠갑사진회
		· 일시 : 11. 15 · 장소 : 문화원 3층	· 제6회 청양군 바둑대회	· 청양군 바둑협회
		· 기간 : 11. 27 ~ 12. 1 · 장소 : 문화원 전시실	· 한뫼각시 규방공예 작품전	· 한뫼각시 규방공예연구회
8	애함운동	· 일시 : 9. 27 · 장소 : 문화원 2층 및 청 양관내 유적지 · 참여인원 : 30명	· 내교장 문화알리기 - 서충남교수의 문학교실 초청 -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 출향, 문화예술인 초청
		· 일시 : 12. 23 · 장소 : 청양관내유적지 · 참여인원 : 31명	· 내교장 문화알리기 -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 다문화가정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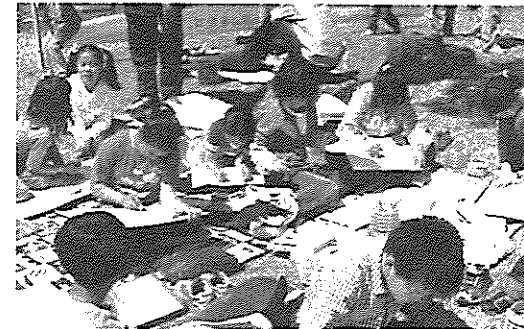
2008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9	고유민속 예술발굴 전 승	· 일시 : 12. 3 · 장소 : 문화체육센터 · 참여인원 : 200여명	· 전통민속놀이 음·면대항 경기 · 청양군 민속장기대회	우리고유의 전통놀이문 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음·면민간의 화합과 결속 을 다지기 위해 개최
10	문화가족 작 품 발 표 회	· 일시 : 12. 30 · 장소 : 문화원전시실	· 수강생 발표(밸리댄스) · 수강생 작품 전시 미술작품 (20작품) 피오피작품 (5작품) 종이접기작품 (12작품) 칼라믹스작품 (11작품) 폴리머클레이작품 (6작품)	문화학교 수강생(밸리, 미술, 피오피, 종이접기, 칼라믹스, 폴리머클레이) 작품전시 및 발표회
11	발간사업	· 발행부수 : 각1,000부 (3종) · 발행일 : 12월	· 향토민속발굴 · 내고장문화유산 교육자료 발간	· 청양의 교통교역 · 산간마을의 민속 · 칠갑문화 18호
12	문화코너 운 영	· 기간 : 연중	· 자료열람실 (전국향토사료집 및 일반도서)운영 · 영화감상교실 운영	영화 및 음악감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취미생활과 정 서교육에 기여
13	향토사료관 운영	· 기간 : 연중	· 향토사료전시관 역사인물관, 문화재관, 영상실 생활문화관, 민속 및 종교관 운영	민속사료를 통하여 옛 선 인들의 지혜와 당시의 생 활방식등을 알수 있는 계 기 마련
14	사이버 문화원 운 영	· 일시 : 연중 · 홈페이지 주소 : cheongyang.cul21.or.kr	· 문화소식 · 청양의 역사소개 · 축제/행사 · 참여마당 등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 정보센터로 운영 함



2008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칠갑산장승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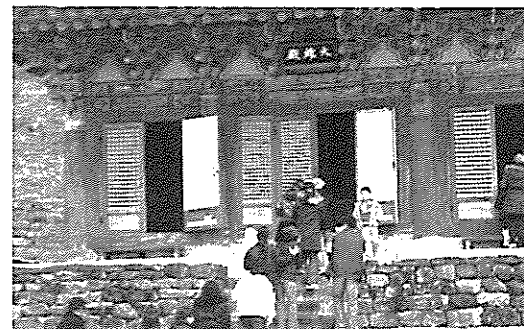
전통민속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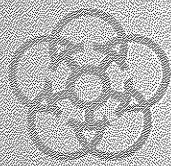
칠갑사진회 회원전



시낭송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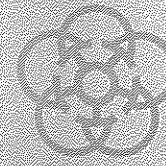
다문화 가정초청 내고장문화 알리기



2008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	중앙대제	· 일시 : 2. 20(음1. 14) 19:00 · 장소 : 경이정 · 참석인원 : 각급기관단체장, 주민100여명	태안의 고유한 전통 민속 제례 의식으 로 태안군 각급 기관장 및 지역주민들 이 모여 국태민안 시화연풍 등을 기원 하는 대제	
2	이원면 벚가릿대놀이	· 일시 : 3. 8 (음 2. 1) · 장소 : 이원면 관리마을회관 · 참석인원 : 인근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100여명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정월 보름 전날에 긴 장대를 마당 한 복판에 세우고 새끼줄을 꼬아 세갈래 로 지지해서 세워두었다가 머슴의 날 인 음 2월 1일에 벚가릿대를 누인다. 이때 장대 끝에 매달아 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한해의 풍·흉을 점치는 의식 으로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행 사	
3	해외문화유적답사	1차 : 일본문화유적답사 · 일시 : 7/26~7/28 · 장소 :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 참여대상 : 문화가족, 대의원 2차 : 전주문화유적답사 · 일시 : 11/28 · 장소 :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전주국립박물관 · 참여대상 : 문화가족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베어있는 일본 을 탐방하고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 을 연구·고찰하는 계기마련. 국내 인근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실시하 여 향후 풍부한 답사경력을 바탕으로 지역향토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 및 육성 마련	
4	문화교류사업	· 일시 : 10. 30 의왕문화원 · 장소 : 근흥면 안흥성, 가의도리 일대 · 참석인원 : 태안문화원·의왕문화원 임원	태안문화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의왕문 화원이 지역문화교류사업을 통하여 상 호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	
5	향토도서관자료관리	· 일시 : 연중 · 장소 : 문화원 · 참석인원 : 10명	수집된 도서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 서관을 조성하여 향토유물전시관과 함 께 전국의 지역문화자료를 언제나 쉽 게 열람할 수 있도록 문화관련 전문도 서관을 운영하며 지역의 각종문헌을 수집하여 제본으로 보관함	
6	고남면 누동리 조개부르기제	· 일시 : 11. 21 · 장소 : 고남면 누동리 바닷가 · 참여인원 : 인근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100여명	누동리 1구 대동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문화행사 로 제단올리기, 축위기, 조개부르기 한 마당, 제물 띄어 보내기 등으로 진행됨	



2008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7	당제및민속행사지원	· 일시 : 1월 ~ 12월 · 대상 : 남면 당암리, 원청리, 소원면 파도리, 고남면 누동리, 근흥 면 신진도리	지역에서 전래되어 오던 당제를 전승 할 수 있도록 지원함. 태안지역의 현재 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의 당 제행사를 계승 지원하여 그 맥을 이어 갈수 있도록 함	
8	제1회 태안옛사진 공모전	· 일시 : 10/15 ~ 10/31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작품내용 : 태안을 배경으로 한 1980 년 이전의 사진, 엽서	우리 고장의 옛 모습과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통해 지역정서 공유와 애향심 을 고취하고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태안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엽서 등을 공모	
9	주말영화교실	· 일시 : 4. 5 ~ 10. 18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문화원 · 대상 : 태안군민, 학생	다양한 문화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원 강당을 이용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매 주 자료집을 발행하고 영화에 대한 토 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 성함	
10	제17회 소성백일장	· 대상 : 초·중·고학생 · 참가인원 : 190명중 130명 입상 15개 학교	태안문화원 계속 사업으로 태안군의 학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생 활문화를 주제로 지역문화와 문학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자연과 생활문화 를 주제로 시와 산문을 학교별로 접수 하여 심사함	
11	초·중 미술실기대회	· 일시 : 6. 21(토) 14:00 · 장소 : 태안문예회관 앞 술밭공원 · 참석인원 : 310명 중 140명 입상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풍경, 경험화 등 사상 대회를 실시함	
12	움직이는 문화공연	1차/2차 · 일시 : 11. 27 / 12. 9 · 장소 : 안면중·고(300명) 평화의 집(10여명)	지역적, 사회적 여건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초청 또는 방문을 통한 무료 문화공연을 실시함	
13	2008태안문화원 초대전	· 일시 : 6. 20 ~ 6. 24 · 장소 : 태안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참가단체 : 태안군내 13개 예술단체	문화원을 중심으로 서예협회태안지부, 연목회, 백화사진동우회, 태안사진동우 회, 읍스큐라사진동우회, 태안서각회, 한지공예예사랑, 나옴회 등의 지역 예술체들이 참여하는 연합전시회	



2008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4	태안군 문화예술인워크숍	· 일시 : 11월 29일 · 장소 : 태안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참석인원 : 150여명	지역문화예술인 현황과 활동사례발표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관람,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토론, 지역문화예술 정책과 방향에 대한 강연, 친교의 시간 등을 실시	
15	사이버문화원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문화원 홈페이지관리	향토민속문화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문화정보를 사이버상에서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 에 기여함	
16	태안군 어린이동요대회	· 일시 : 5월 3일 · 장소 : 태안문화예술회관 대강당 · 참여인원 : 500명(관객포함)	태안군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선을 실시한 후 본선 진출 대상으로 초청 공연과 함께 대회를 진행함	
17	자염축제	· 일시 : 10월 11일 ~ 12일 · 장소 : 근흥면(남금마을) · 참석인원 : 2000명	우리 문화역사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소금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특히 우리의 전통소금인 자염을 중심 으로 소금의 역사를 보고 체험 할 수 있는 자염축제를 실시함	
18	소성의향기14집	· 일시 : 12. 31까지 · 발간부수 : 1,000부 · 배부처 : 문화가족, 전국문화원, 군내 각 기관 및 단체	문예작품, 향토문화, 특별기고, 각종 문화예술계소식, 문학작품, 우리고장 문화소식 등을 수록한 책자발간	
19	지역문화학교	· 일시 : 4월 ~ 10월 · 장소 : 문화원, 색동미술학원, 서각협회사무실 · 참가인원 : 300명	프로그램 P.O.P : 4~10월/ 천연화장품: 4~6월 서각 : 4~10월/ 사물놀이: 8~10월 요 가 : 4~10월/ 유화: 4~10월	
20	제1회 태안역사문화 학술 발표회	· 일시 : 11. 20. 14:00 · 장소 : 태안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참석인원 : 200여명	태안의 문화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 를 재조명 -태일전에 대한 고찰 -태안 도요지의 현대적 활용방안 -안흥정에 대한 고찰	



2008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21	향토민속발굴① 태안군청자도요지 지표조사	· 일시 : 3월 ~ 6월 · 장소 : 태안군 일원	태안읍 일원의 고려청자 도요지 발굴 지표조사	
22	향토민속발굴② 시목리 고인돌 및 북창 주춧돌 안내판 제작	· 일시 : 3월 ~ 10월 · 장소 : 태안군	시목리에서 마을 냇가의 디딤돌로 사 용되던 고인돌을 태안문화원으로 원형 을 복원하고 공원조성하고 재설치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홍보하고 보존하 도록 한다.	
23	충남문화예술제	· 일시 : 11. 8 15:00 · 장소 : 당진문화회관 · 참여인원 : 태안군 문화예술인40명	충남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토론 및 발표	
24	향토사료 전시관 운영	· 일시 : 1월 ~ 12월 · 장소 : 태안문화원	문화원에서 보유중인 지역의 향토사료, 유물, 서적 등을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자료로 적극 활용함은 물론 전문인력 을 배치함으로써 지역문화자료를 체계 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함	
25	글씨그림 그리고사진전	· 일시 : 10. 2 ~ 10. 6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참여단체 : 백화사진동우회/서예협회 태안군지회/샘골스케치회/연목회/예술 태안회/태안사진동우회/백화사진동우 회/밀물과 썰물회/미협태안군지부	태안지역에서 10여 년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 서예, 사진 등을 예술 단체에서 축적된 경험과 능력으로 제 작된 작품으로 연합 전시회를 개최 함	
26	(바우처사업) 가족나들이	· 일시 : 6월 ~ 12월 · 인원 : 1000여명 · 장소 : 부산(KTX) 아산,도고,해미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대상 으로 테마여행 및 공연관람을 제공하 는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써 가족간의 대화 문화체험을 통해 공감대형성과 신뢰감 회복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2008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중앙대제



가족나들이



실버문화학교



문화학교-요가수업



주말영화 상영



2008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비고
1	신년교례회	· 일시 : 1월 3일 · 장소 : 홍성군청대강당 · 인원 : 300명	신년인사, 신년사, 축사, 상호인사, 축 시낭송, 폐회	신년을 맞아 관 내 각급기관 사 회, 문화 단체장들 간의 친목 도모 와 지역문화발전 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 리를 문화원 주 관으로 실시함
2	2008 제48차 정기총회	· 일시 : 1월 29일 · 장소 : 문화원 공연장 · 인원 : 대의원 50명	2007세입 · 세출결산승인 2008세입 · 세출예산승인	
3	제7회 군민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 일시 : 2월 20일 · 장소 : 홍주의사총 옆 하천변 · 인원 : 1,000여명	연날리기, 제기차기, 소원쓰기, 널뛰기, 다리밟기, 쥐불놀이, 윷놀이, 달집태우 기, 투호놀이, 보름밥 나누어 먹기 등	잊혀져 가는 전 통 문화를 새로 게 조명하며 우 리 고유의 문화 유산을 후세에 전하고자 달집 태우기, 쥐불놀 이, 연날리기 등 행사를 마을 주 민과 함께 공동 으로 실시함
4	옛사진과 함께하는 야생화 전시회	· 일시 : 5월 6일 ~ 10일 · 장소 : 문화원 전시실 · 인원 : 2,000여명	옛사진 전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옛것 에 대한 향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줌	
5	전통 관례 및 관례 재현	· 일시 : 5월 19일 · 장소 : 해전대 노천극장 · 인원 : 800여명 · 일시 : 10월 24일 · 장소 : 홍북면 노은리 · 인원 : 200여명	성인된 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키고, 행해야 됨을 가르치는 자리	
6	제10회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영화제	· 일시 : 6월 11일 · 장소 : 홍주의사총 · 인원 : 500여명 · 일시 : 9월 9일 · 장소 : 광천하상주차장 · 인원 : 500여명	쉽게 접할수 없는 야외무대에서 영화 를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킴	
7	보훈가정 초청 음악회	· 일시 : 6월 23일 · 장소 : 문화원공연장 · 인원 : 250여명	홍성신문 주관 무료공연	



2008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8	화랑세기 뮤지컬 공연	· 일시 : 7월 3일 ~ 5일 · 장소 : 홍성문화원 공연장 · 인원 : 750여명	무대공연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연극 에 대한 이해와 문화수준을 한단계 늘 여주는 기회를 제공함	
9	제 3회 여름전통문화학교	· 일시 : 7월 28일 ~ 8월 1일 · 장소 : 문화원내 · 인원 : 40명	우리문화알아보기, 전통예절교실, 도예 교실, 명상체험, 전통 관례 및 관례체 험, 영화감상하기	방학을 맞이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통 문화학교를 통해 아이 들 의 정서함양 시키고 자기 발전을 마련하 는 계기가 됨
10	독도사진전시회	· 일시 : 7월 30일 · 장소 : 홍성군청 앞 · 인원 : 300여명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알리기	
11	한여름밤의 영화제	· 일시 : 8월 4일 ~ 7일 · 장소 : 문화원공연장 · 인원 : 2,000여명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원의 이벤트	
12	마당극 공연 "공심은네 콩나고"	· 일시 : 9월 19일 · 장소 : 문화원앞마당 · 인원 : 100여명	여성운동의 선구자인 김호연재를 소재 로한 마당극을 야외에서 실시함	
13	만해제 추모다례	· 일시 : 9월 26일 · 장소 : 만해생가지 · 인원 : 700여명	추모다례 추모공연 사진전시회 헌화, 공향	만해 한용운 선 사의 추모 및 행 사와 각종 문화 예술단체와 개 인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주민 과 함께하는 문 화마당 잔치
14	독립선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 일시 : 10월 11일 ~ 12일 · 장소 : 독립기념관, 백담사, 오죽헌, 소리박물관 · 인원 : 40여명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만해 한용운 선사의 행적을 찾아다니며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삶의 방향 제시	



2008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사업 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사 업 내 용	비 고
15	노인대학 무료영화상영	· 일시 : 10월 30일 · 장소 : 문화원 공연장 · 인원 : 250여명	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문화욕구를 조 금이나마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원의 이벤트	
16	우리문화알아보기	· 일시 : 11월 14일 · 장소 : 보석박물관, 미륵사지 · 인원 : 50명 · 일시 : 12월 8일 · 장소 : 보석박물관, 미륵사지 · 인원 : 50명	현장 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됨	
17	문화학교	· 기간 : 연중 · 장소 : 문화원 · 참석인원 : 매회 20명	-서예교실 -전통풍수지리교실 -도예교실 -전통기수련교실 -아로마테라피교실 -전통풍수지리교실	
18	홍성문화발간	· 발행부수 : 각 1,000부 · 발행일 : 6월, 12월	홍성의 문화소식을 주민들이 만들어가 며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배포해 주어 문화에 대한 인 식을 새롭게 해줌	
19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영화	· 일시 : 매주 목요일 · 장소 : 문화원 공연장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	
20	사이버 문화원 운영	· 일시 : 연중 · 홈페이지 주소 http://hongseong.cult21.or.kr/index.jsp	문화소식 홍성의 역사 소개 축제/행사 등	
21	문화학교 작품 전시회	· 일시 : 12월 15일 ~ 19일 · 장소 : 문화원 전시실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 및 발 표회	



2008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정기총회



신년교례회



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영화제



정월대보름

충청남도 사이버문화원 가나다순

- 공주 문화원 <http://gongju.cult21.or.kr>
- 금산 문화원 <http://geumsan.cult21.or.kr>
- 논산 문화원 <http://nonsan.cult21.or.kr>
- 당진 문화원 <http://dangjin.cult21.or.kr>
- 대천 문화원 <http://daecheon.cult21.or.kr>
- 부여 문화원 <http://buyeo.cult21.or.kr>
- 서산 문화원 <http://seosan.cult21.or.kr>
- 서천 문화원 <http://seocheon.cult21.or.kr>
- 성환 문화원 <http://sunghwan.cult21.or.kr>
- 아우내 문화원 <http://aunae.cult21.or.kr>
- 예산 문화원 <http://yesan.cult21.or.kr>
- 온양 문화원 <http://onyang.cult21.or.kr>
- 조치원 문화원 <http://jochiwon.cult21.or.kr>
- 청양 문화원 <http://cheongyang.cult21.or.kr>
- 태안 문화원 <http://taean.cult21.or.kr>
- 홍성 문화원 <http://hongseong.cult21.or.kr>

충청남도사이버문화원 E-book 자료관 구축

- 문화원 발간도서, 홍보책자, 업무책자, 행사사진, 동영상 등 E-book자료관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사이버문화원 및 도내문화원 홈페이지 하단 배너 링크"



충남도내 문화원 현황

가나다순

(2008. 12월 현재)

문화원명	소재지	창립일	원사총면적 (평)	원장	문화가족 사무국장	직원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문연 충남도지회	논산시 내동 279-4 (논산문화원)	67. 2. 20		지회장 박응진	사무처장 이준창	전현희 이승은	732-2395 730-4632	732-2394
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54. 12. 14	650	정재욱	현대수	우명란 김민영	852-9005	856-6746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8	67. 11. 18	364	김호택	안용산	전병만 석한숙	754-2724	754-6611
논산문화원	논산시 내동 279-4	57. 11. 14	20	박응진	이준창	전현희 이승은	732-2395 730-4632	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0-6	58. 3. 5	341	정정희	정제상	김현숙 백숙현 서재석	354-2367 357-2367	356-3850
대전문화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2. 4	287	임기석	오종화	김명희 임효선	934-3061	936-3071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2	54. 3. 1	125	윤준웅	김인권	이미영 정은실	835-3318	833-3318
서산문화원	서산시 읍내동 516	65. 2. 11	570	이준호	김영철	안지현 최윤경 강현숙	669-5050	669-4567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62	65. 1. 26	300	유성열	정찬영	최신희 김희정 노경숙	953-0123	953-0133
성환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66	63. 5. 10	56	송용삼	신광식	김정선	581-2101	582-1725
아우내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172	58. 4. 20	161	김준기	이영현	김희영	564-1022	563-1021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47-11	55. 10. 15	344	이용면	김찬민	이항옥	333-2441 335-2441	334-4330
온양문화원	아산시 온천2동 216-4	57. 3. 20	298	김시검	이일용	이충경 석명주 이은우	545-2222	542-4444
조치원문화원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1-1	64. 10. 14	603	임영이	길미숙	민선혜 이경미 이진세	865-2411 865-2412	864-0870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2-5	55. 4. 17	286	정재권	임두순	복은주 차승원 송미애	943-4774	944-1030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남문3리 53-11	90. 5. 5	241	명수남	정지수	김유미 이연숙 오지혜	674-2192 674-1192	675-6968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89-4	65. 1. 26	605	전용택	김경식	강철식 송은미 최철 손형진	632-3613 632-3612	633-1199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인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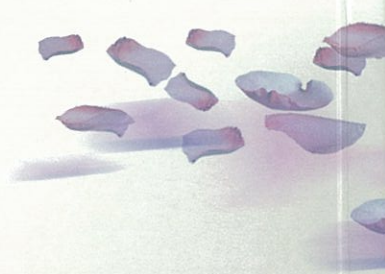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 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충남 문화

2008 제12호
ChungNam Culture



韓國文化院聯合會 忠清南道支會